



2017년도 정기총회

2017년 1월 17일(화) 18:30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대강당(7층)



경주환경운동연합

<http://gj.ekfem.or.kr>

트위터 @gjkfem 페이스북 gjkfem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정기총회자료집 목차

| | |
|-------------------------|-----|
| 정기총회 식순..... | 4 |
| 2016년 활동일지 | 5 |
| 감사보고서..... | 17 |
| 2016년 사업보고(안) | 23 |
| 2016년 재정결산(안) | 91 |
| 정관개정(안) | 103 |
| 2017년 조직구성(안) | 111 |
| 2017년 사업계획(안) | 115 |
| 2017년 예산(안)..... | 155 |
| [부록] | |
| 성명서 / 논평 / 기자회견문 | 163 |
| 언론보도로 보는 2016년 활동 | 195 |
| 회원생활수칙 | 214 |



정기총회 식순

[식전행사]

- 활동영상

[1부 | 식전행사]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서기지정
- 전차회의록 낭독
- 안전상징
 - 제1안 | 감사보고 안
 - 제2안 | 2016년 사업 및 결산 안
 - 제3안 | 정관개정 안
 - 제4안 | 임원 선임 안
 - 제5안 | 2017년 사업 및 예산 안
 - 제6안 | 전국대의원 선출 안
 - 제7안 | 기타 안건
- 녹색회원상 시상 /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
- 폐회

[2부 | 다과]

활동/일지

1

| | |
|-----------|---|
| 1월 4일 | 시민사회 합동시무식(5.18민주묘지), 6차 탈핵캠페인 |
| 1월 5일 | 웹소식지'자연지기'1호 발송 |
| 1월 7일 | 도시철도 간담회 |
| 1월 11일 | 2015년 사업 및 회계감사 |
| 1월 14일 | 총회 준비위원회 회의, 자문위원 자문위원 연석회의 |
| 1월 16일 |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기총회(담양) |
| 1월 19일 | 웹소식지'자연지기'2호 발송 |
| 1월 25일 | 도시철도 2호선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시의회 기자실) |
| 1월 26일 | 2016 정기총회 |
| 1월 28~30일 |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
| 1월 30일 | '초록누리꾼'글쓰기 및 SNS활용 활동가 교육 참가(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 |

2월

| | |
|-----------|--|
| 2월 1일 | 7차 탈핵캠페인(푸른길공원) /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김남주 평전 북 콘서트) |
| 2월 4일 | 집행위원회 정례회의 |
| 2월 9일 | 웹소식지'자연지기'3호 발송 |
| 2월 14일 | 모래톱 정기모임(사라지는 철새를 찾아서) |
| 2월 20일 | 양산일곡 회원모임(연날리기) |
| 2월 20~21일 | 물 한 방울 흙 한줌 정기총회(담양) |
| 2월 23일 | 웹소식지'자연지기'4호 발송 |
| 2월 24일 | 5차 광주습지생물다양성세미나 / 시를 사랑하는 모임(시낭송회) |
| 2월 25일 | 햇빛발전협동조합 총회(NGO센터) |
| 2월 26일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 연찬회 |
| 2월 27일 | 환경운동연합 전국대의원 대회, 전국대표자회의(서울역사박물관) |

3

- 3월 2일 8차 탈핵캠페인(전남대학교 후문)
- 3월 3일 집행위원회 정례회의 / 기후천사 회원모임
- 3월 7일 모래톱 정기모임(식물)
- 3월 8일 웹소식지'자연지기'5호 발송
- 3월 10일 기후천사 회원모임(태양열 조리기 만들기)
- 3월 11일 후쿠시마5주기 기자회견(금남로 우체국 앞) / 영산강네트워크 총회
(푸른나주 21)
- 3월 14일 환경운동연합 전국 국·처장단 회의(대전)
- 3월 19일 도랑살리기(평동천) / 일곡양산 회원모임(자전거로 달리는 영산강)
- 3월 20일 물 한방울 흙 한줌 정기모임(만연산의 새봄)
- 3월 22일 웹소식지'자연지기'6호 발송
- 3월 23일 남영전구 수은누출사고 성명 및 보도
6차 광주습지생물다양성세미나
- 3월 26일 양산일곡 텃밭모임 OT
- 3월 28일 도시교통 워크숍
- 3월 29일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 3월 30일 햇빛발전소 임대차계약
- 3월 31일 20대 총선 반환경 후보 낙선 캠페인(무안) / 기후천사 회원모임

4월

- 4월 1일 9차 탈핵캠페인(증심사 입구) / 기후천사 환경순회교육(청계초)
- 4월 3일 모래톱 정기모임(양림동 문화) / 기후천사 회원모임
- 4월 4일 광주천 우안 자전거도로 공사 반대 성명
- 4월 5일 4·13 총선후보들에게 핵발전 관련 질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 /
웹소식지'자연지기'7호 발송 / 기후천사 환경순회교육(현경북초)
- 4월 6일 도시교통 토론회
- 4월 7일 집행위원회 정례회의 / 회원확대 캠페인 발대식

- 4월 16일 어린이 자연 나들이(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나?) / 양산일곡 텃밭모임 (모종심기, 씨뿌리기)
- 4월 17일 물 한 방울 흙 한줌 정기모임(세월호 1000일 도보순례)
- 4월 19일 웹소식지'자연지기'8호 발송 / 자원순환시민강사 용융C 양성교육 1,2강 / 기후천사 환경순회교육(무안북중)
- 4월 20일 7차 광주습지생물다양성세미나 / 기후천사 환경순회교육(고달초)
- 4월 21일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 고발 건 재향고(검찰의 항고기각 결정 후속 대응) / 자원순환시민강사 용융C 양성교육 3,4강
- 4월 23일 지구의 날 기념행사(금남로 차 없는 거리) / 햇빛발전협동조합 홍보 활동(금남로)
- 4월 26일 자원순환시민강사 용융C 양성교육 5강 / 광주 탈핵 공동체상영회(핵 발전과 일본) /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 4월 27일 하천지킴이 양성교육 1강(강과 인류의 역사) / 도시철도 2호선 시민 회의
- 4월 28일 자원순환시민강사 용융C 양성교육 6,7강
- 4월 29일 광주·전남 활동가 수련회 / 인간도시위크숍 참여(수원)/ 자원순환 캠퍼스 학생, 교직원 인식조사
- 4월 30일 하천지킴이 양성교육 2강(하천과 생물종 다양성)

5월

- 5월 1일 모래톱 정기모임(물길과 숲길의 만남)
- 5월 2일 10차 탈핵캠페인
- 5월 3일 자원순환시민강사 용융C 양성교육 8,9강
- 5월 4일 하천지킴이 양성교육 3강(맑고 건강한 하천, 어떻게 살릴 수 있나)
- 5월 5일 햇빛발전협동조합 홍보활동(광주시청 광장)
- 5월 7일 하천지킴이 양성교육 4강(환경지킴이는 환경교육가)
- 5월 10일 자원순환시민강사 용융C 양성교육 10강 / 옥시상품 불매선언 광주시 민사회 기자회견(5·18 민주광장) / 웹소식지'자연지기'9호 발송 / 주요지천 오염원 조사(광주천)
- 5월 12일 집행위원회 회의 / 자원순환시민강사 용융C 양성교육 11강
- 5월 13일 어린이 하천 생태교육(광주남초등학교) / 광주전남 임원, 활동가 위

크숍(별교)

- 5월 14일 어린이 자연 나들이(꽃배는 어디까지 흘러가나?)
- 5월 15일 물 한 방울 흙 한줌 정기모임(두 바퀴로 가는 섬진강 자전거 길)
- 5월 16일 5·18 합동참배 / 기후천사 회원모임
- 5월 17일 자원순환시민강사 용융C 양성교육 12강 / 기아자동차 악취협업체 간담회 / 옥시제품 불매운동 캠페인(금남로)
- 5월 18일 광주 시민햇빛발전소 1호 발전사업 허가 득 / 주요지천 오염원 조사(풍영정천) / 옥시제품 불매운동 캠페인(롯데마트 상무점)
- 5월 19일 영산강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 심포지엄 대응 / 자원순환시민강사 용융C 양성교육 13강
- 5월 20일 옥시제품 불매운동 캠페인(홈플러스 계림점)
- 5월 21일 도랑살리기(평동천) / 양산일곡 회원모임(산야초 효소 만들기)
- 5월 23일 주요지천 오염원 조사(평동천) / 자원순환 캠퍼스 학생, 교직원 인식조사
- 5월 24일 자원순환시민강사 용융C 양성교육 14강, 수료식 / 탈핵강사 양성교육 1강(핵발전 시스템과 안전을 둘러싼 논란들) / 자원순환 캠퍼스 학생, 교직원 인식조사 / 웹소식지'자연지기'10호 발송
- 5월 25일 8차 광주습지생물다양성세미나 / 자원순환 캠퍼스 학생, 교직원 인식조사
- 5월 26일 옥시제품 불매운동 캠페인(홈플러스 동광주점)
- 5월 27일 시민단체협의회 야유회(안양산 휴양림)
- 5월 28일 양산일곡회원모임(텃밭에서의 초록파티)
- 5월 30일 탈핵강사 양성교육 2강(방사능과 건강문제) / 옥시제품 불매운동 캠페인(홈플러스 계림점)

6월

- 6월 1일 11차 탈핵캠페인(푸른길 공원) / 광주환경운동연합 자문회의
- 6월 2일 집행위원회 정례회의 / 가슴기 살균제 시의회 간담회(시청)
- 6월 3일 햇빛발전협동조합 홍보활동(아이쿱생협 빛고을센터) / 가슴기살균제참사 관련 광주시 T/F 간담회(광주시청 협업회의실)

- 6월 5일 모래톱 정기모임(광주천 이야기)
- 6월 6일 물 한 방울 흙 한줌 정기모임(모내기)
- 6월 7일 탈핵강사 양성교육 3강(대안은 있다!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사회)
/ 재생에너지 갈등 간담회 / 자원순환 캠퍼스 시설물 실태조사
- 6월 8일 자원순환 캠퍼스 시설물 실태조사
- 6월 9일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발표 및 사망자 추모촛불 기자회견
(시의회) /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시민강좌(환경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 / 시민참여 도시계획 2030토론회 / 자원순환 캠퍼스 시설물
실태조사
- 6월 10일 햇빛발전협동조합 홍보활동(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 자원순환 캠퍼
스 시설물 실태조사
- 6월 11일 양산일곡 텃밭모임(고구마 심기)
- 6월 13일 옥시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 6월 14일 탈핵강사 양성교육 4강(기후변화 실태와 그 문제점) / 빈용기 혼입을
및 반환내역조사(~16일) / 환경통신원 회원모임(미세먼지 캠페인)
- 6월 17일 자원순환시민강사 용용C 활동(분리수거 놀이를 통한 재활용 활동) /
전국 총·처장단 회의
- 6월 18일 어린이 자연 나들이(피라미 혼인색은 왜 파랄까?)
- 6월 19일 물 한 방울 흙 한줌 정기모임(서천 국립 생태원)
- 6월 21일 웹소식지'자연지기'11호 발송 / 탈핵강사 양성교육 5강(탈핵과 에너
지를 교육하는 강사의 자세)
- 6월 22일 제 3차 습지보호포럼(광주생물다양성 핵심 축 답사 및 포럼) / 기후
천사 환경순회교육(망운초)
- 6월 23일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 6월 25일 자전거 가람단(광주천) / 양산일곡회원모임(황토 고구마 심기)
- 6월 27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규탄 기자회견
- 6월 28일 자원순환 강사단 용용C 심회교육 / 탈핵강사 심화교육 1강 / 영광
고준위 핵폐기장 군민결의대회
- 6월 29일 환경통신원(미세먼지캠페인)

7월

- 7월 1일 12차 탈핵캠페인
- 7월 2일 모래톱 정기모임(광주천 유해식물 이해와 제거작업) / 자원순환 플래시몹(문화전당역)
- 7월 5일 웹소식지'자연지기'12호 발송 / 탈핵상사 심화교육 2강
- 7월 7일 집행위원회 정례회의
- 7월 9~10일 어린이 자연 캠프(다슬기가 밤상으로 올라오기까지)
- 7월 12일 하남산단 내 세방산업 TCE 발암물질 배출 1위 성명 발표 / 주민과 함께하는 기아차 생생문화기행(~13일)
- 7월 13일 기후천사 환경순회교육(석곡초)
- 7월 14일 기후천사 환경순회교육(무안초) / 자원순환캠퍼스 협약 추진회의(전남대)
- 7월 16일 전국회원대회(여주)
- 7월 17일 물 한 방울 흙 한줌(어린이 여름 번개모임)
- 7월 18일 하남산단 세방산업의 발암물질 배출관련 사과 및 TCE근본대책 수립 요구 기자회견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5차 의제 회의
- 7월 19일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 관련 대책회의 / 웹소식지'자연지기 13호'발송 / 주민과 함께하는 기아차 생생문화기행(~22일)
- 7월 20일 9차 광주습지생물다양성세미나
- 7월 21일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 관련 대책회의
- 7월 21~25일 일본 도쿄 습지 답사
- 7월 22일 세계인권도시포럼(공공교통을 말하다)
- 7월 23일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 7월 25일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규탄 긴급 기자회견(정부 세종청사 앞)
- 7월 27일 자원순환 음식물 쓰레기 조사
- 7월 28일 영광,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 등 규탄 성명 / 도랑살리기(황룡강)
- 7월 29일 영산강 수질, 퇴적토 조사
- 7월 31일 세방산업 재가동에 대한 규탄 성명발표

8월

- 8월 1일 13차 탈핵캠페인 / 제11회 영산강 대탐사(~5일)
- 8월 3일 자원순환캠퍼스 협약 추진회의(전남대)
- 8월 4~6일 여름캠프
- 8월 7일 모래톱 단합대회(대전 갑천 답사)
- 8월 9일 웹소식지'자연지기 14호'발송 / 자원순환시민강사 용융C 교육 시연 및 발표회
- 8월 13~14일 물 한 방울 흙 한줌(추도 여행)
- 8월 16~18일 빈용기 혼입율 및 반환내역 조사
- 8월 24일 10차 광주습지생물다양성세미나
- 8월 26일 주요지천 오염원 조사(풍영정천)
- 8월 27일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 8월 30일 주요지천 오염원 조사(황룡강) / 웹소식지'자연지기 15호'발송
- 8월 31일 주요지천 오염원 조사(광주천, 평동천)

9월

- 9월 1일 집행위원회 정례회의 / 14차 탈핵캠페인 / 영산강 하구둑 수생태 복원회의(목포)
- 9월 2~6일 빈용기 혼입율 및 반환내역조사
- 9월 3일 공원의 친구 되는 날(풍암호수공원)
- 9월 4일 모래톱 정기모임(풍영정천 답사)
- 9월 6일 도시열섬토론회
- 9월 7일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도시 숲, 물 환경, 기후대기)
- 9월 8일 가슴기 살균제 사고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대책 수립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 9월 9일 광주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토론회
- 9월 13일 웹소식지'자연지기 16호'발송
- 9월 19일 영산강 하구둑 수질조사

- 9월 20일 가습기 살균제 사고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대책 수립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
광주 대기질 개선 민·관간담회 개최(광주시 주요지점 NO2 조사 결과발표) / 도시농업 토론회
- 9월 21일 광주습지생물다양성 4차 포럼
- 9월 22~25일 동아시아 기후포럼(일본 교토)
- 9월 24일 시를 사랑하는 모임
- 9월 27일 어린이 하천 생태교육(새별초등학교) / 기후천사 환경순회교육(전남체육중)
- 9월 28일 기후천사 환경순회교육(죽곡초)
- 9월 29일 래미학교 생태교육
- 9월 29일 물 한 방울 흙 한 줌 해외답사(캄보디아) 9/29~10/3
- 9월 30일 탈핵캠프(금남공원 아하갤러리)

10월

- 10월 1일 도랑살리기(황룡강)
- 10월 4일 인조잔디 관련 교육감 간담회(교육감실)/ 웹소식지‘자연지기 17호’발송 / 가톨릭환경대상 수상(최지현 사무처장)
- 10월 6일 영산강 퇴적토, 수질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안전하고 깨끗한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
- 10월 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OB와 YB가 함께하는 워크숍, 집행위원회 정례회의(담양 한옥체험관) / 안전하고 깨끗한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
- 10월 9일 자전거 가람단(황룡강) / 물 한 방울 흙 한 줌, 모래톱 정기모임(광주비엔날레)
- 10월 10일 15차 탈핵캠페인(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 10월 12일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문태준 시인과의 기특한 만남)
- 10월 13일 책으로 만나는 기후·환경이야기 1강(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 관련 대책회의
- 10월 14일 어린이 하천 생태교육(울곡, 평동초등학교)
- 10월 15일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 서명운동(알라딘 서점 앞)

- 10월 16일 어린이 자연 나들이(담양 운수대통마을)
- 10월 17일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출범 기자회견
- 10월 19일 광주습지생물다양성 5차 포럼 / 주요지천 오염원 조사 성과보고 및 간담회
- 10월 20일 책으로 만나는 기후·환경이야기 2강(말들이 돌아오는 시간) / 자원순환 성과보고
- 10월 21일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5·18민주광장, 금남로 등)
- 10월 24일 광주지속협의회 물순환 선진지 견학 참여(수원레인시티탐방)
- 10월 25일 웹소식지‘자연지기 18호’발송
- 10월 27일 책으로 만나는 기후·환경이야기 3강(지구인의 도시 사용법) / 자원순환 캠퍼스 성과보고회
- 10월 29일 자전거 가람단(황룡강)

11월

- 11월 1일 16차 탈핵캠페인 / 빈용기 혼입율 및 반환내역조사(~2일)
- 11월 2일 신재생에너지 학회(김대중컨벤션센터)
- 11월 3일 집행위원회 정례회의 / 송원초 학생들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통학로 만들기 교육·캠페인 / 책으로 만나는 기후·환경이야기 4강(기후변화 27인의 전문가가 답하다) / 모래톱 정기모임
- 11월 5일 도량살리기 (평동천 정화활동)
- 11월 6일 자전거 가람단(영산강)
- 11월 8일 웹소식지‘자연지기’19호 발송
- 11월 10일 책으로 만나는 기후·환경이야기 5강(숲에게 길을 묻다)
- 11월 12일 2016 민중총궐기 / 도량살리기(주남천)
- 11월 13일 어린이 자연 나들이
- 11월 15일 2016 후원의 밤‘초록동행’(수자타)
- 11월 17일 책으로 만나는 기후·환경이야기 6강(아이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 11월 19일 영산강 도보순례
- 11월 20일 물 한 방울 흙 한줌 정기모임(하동 토지문화관)

- 11월 21일 비용기 혼입율 및 반환내역 조사(~23일)
- 11월 22일 웹소식지'자연지기'20호 발송
- 11월 23일 11차 광주습지생물다양성세미나
- 11월 24일 책으로 만나는 기후·환경이야기 7강(어느 지구주의자의 시선)
- 11월 26일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 11월 27일 누문동 고층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재검토 요구 성명 발표

12월

- 12월 1일 17차 탈핵캠페인(증심사 입구) / 자원순환시민강사 용용C 심화교육
- 12월 2일 수돗물 시민네트워크 간담회
- 12월 4일 모래톱 정기모임
- 12월 5일 시민과 함께하는 방사선 계측기 교육
- 12월 6일 웹소식지'자연지기'21호 발송
- 12월 8일 집행위원회 정례회의 / 자원순환시민강사 용용C 심화교육
- 12월 9일 푸른광주21협의회 기후대기분과 평가회의
- 12월 15일 4대강 정책토론회 / 자원순환시민강사 용용C 심화교육
- 12월 17일 '판도라'영화 무료상영회 / 물 한 방울 흠 한줌 정기모임(담양 예술
창작마을 _별자리 답사)
- 12월 19일 도시계획토론회(초고층 아파트 숲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 문제와 대
안 마련)
- 12월 21일 12차 광주습지생물다양성세미나
세방산업 검증위원회 회의 참여
- 12월 26일 도심의 변화와 공공성지키기 집담회
- 12월 27일 웹소식지'자연지기'22호 발송
- 12월 28일 핵없는 세상광주전남행동 회의
- 12월 29일 자원순환시민강사 용용C 심화교육

감사보고서

2016년 광주환경운동연합 감사 보고서

- 감사일자 : 2017년 1월 4일(수) 14:00~17:00
- 감사장소 : 광주환경연합 사무실
- 감사내용 : 2016년 회계연도(1/1~12/31)의 사업 및 재정
- 수감자(참석자): 박태규 공동의장, 이경희 정책실장, 정은정간사

다음과 같이 감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17년 1월 4일

감사 오 원 만



감사 김 정 민



감사보고 안

[사업감사]

- 사무처의 인력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중점사업과 연속사업 그리고 현안에 대한 감시 및 대안제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사안이었던 가슴기살균제참사에 대한 전국 및 지역 내 연대활동을 통해 생명안전의 중요성을 알려냈습니다. 이익만을 쫓는 비윤리적 기업과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을 알리고 피해자 찾기, 옥시제품 불매운동 등의 대응 활동이 함께 진행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 지역내 발암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이슈화하고, 남영전구에 대한 대응을 지속한 것은 생명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에 대한 시민의 감시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켰습니다.
- 환경교육은 인식의 변화와 실천을 유도하는 환경운동입니다. 지난해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원순환시민강사를 양성한 일은 환경교육의 체계화와 활성화의 토대가 되는 성과였습니다.
- 초고층아파트 등 도시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활동도 의미가 큽니다. 도시 경관의 공공성을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품격있는 도시-광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시경관의 문제들을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도심에 넘쳐나는 자동차는 보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유로운 도시공간의 관리를 만들기 위해, 자동차가 만들어낸 도시풍경을 바꾸는 활동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 감시활동을 비롯하여 정책 제시가 필요합니다. 성장이 아닌 관리의 패러다임으로 바꾸어내야 합니다. 도시의 지속가능성, 도시공공성 지키기에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 지난해는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교육위원회, 미디어홍보위원회, 회원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사무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사업과 소식지 발간, 임원 워크숍, 후원의 밤 등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연합 전 임위원이 모임을 결성해, 활동의 지원 역할을 스스로 자처한 부분 등 전, 현 임위원들의 애정과 관심을 갖고 활동해 주었습니다.
-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는 시민과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부족하였습니다. 활동의 과정과 성과들을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이 강화되길 주문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브랜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워크숍이 있었고 회원설문 등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과 회원들의 실천활동을 연계하고, 회원의 확대에도 이어져야 합니다 .
- 더불어 경제의 침체와 일자리의 부족으로 많은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일 자리를 개발하고 제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단체로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것에도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계 감사]

- 2016년 회계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장부, 현금 및 자산, 항목별 잔액, 통장 등을 확인하였고,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한 회계처리, 자료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전년도 회계감사시 지적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 회계의 관리는 전체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 2016년 재정 운영의 총평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원과 후원자들의 관심과 참여, 후원으로 회비를 기반으로 한 재정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회비수입이 예산의 90% 달성된 점은 고무적입니다.

- 2016년 중점사업으로 탈핵 에너지전환, 회원조직화, 환경교육을 선정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집행결과를 보면, 탈핵 에너지전환 56%, 회원조직화 53%, 환경교육 106%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탈핵 에너지전환사업과 회원조직화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 낮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점사업의 경우, 좀더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한 실행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 세무관련 협력 의무 이행과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 신고를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무신고를 위해 전담인력의 배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2017년부터 세무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함으로써 세무 분야의 투명성과 체계적 관리로의 전환이 기대됩니다.

- 아직까지 비영리법인에 대한 수익사업법인세신고와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향후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 등으로 퇴직금의 관리를 체계화하고 제도화하였습니다. 단, 현재 별도 관리중인 퇴직금은 퇴직연금계좌로 통합관리하기 바랍니다.

■ 장기발전기금의 안정적 관리

- 사무실 이전 등의 목적으로 장기발전기금을 89,089,031원 적립중에 있습니다. 본 기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예금자보호법 대상 금액으로 분산적립하기 바랍니다.

2016년 사업보고(안)

회원·조직화사업

□ 사업목적

- 회원 및 시민참여 활동확산 및 조직적 활동토대 구축
- 적극적인 회원 확대를 통한 조직 역량강화, 재정 안정성 확보
- 다양한 회원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회원활동 활성화

□ 사업개요

- 회원확대캠페인을 비롯한 회원배가활동
- 생태적 가치를 담은 회원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운영
- 마을 및 지역 회원활동 활성화 및 신규회원소모임 결성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회원들과의 소통

□ 사업내용

1. 회원 및 회비현황

1) 회원현황(2016.12.31. 기준)

| 회원구분 | 회원 수(명) | 회비납부방법 | 회원 수(명) |
|-------------------------|---------|--------|---------|
| 개인회원(회비5천원) | 1,483 | 자동이체 | 1,536 |
| 개인회원(회비1만원이상) | | | |
| 가족회원(회비2만원) | 62 | 지로 | 34 |
| 단체,기업회원(회비5만원) | 14 | | |
| 어린이청소년회원 (2천원~3천원) | 130 | 통장직접납부 | 16 |
| 평생회원 (1~2백만원이상/1회이상) | 40 | 기타 | 143 |
| 계 | 1,729 | 계 | 1,729 |

2) 회비현황

| | | | | | | |
|--------------------------------|------------|------------|------------|------------|------------|------------|
| | 1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회비(원) | 12,692,000 | 12,561,000 | 12,502,000 | 12,824,000 | 13,308,000 | 13,140,000 |
| 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회비(원) | 13,081,000 | 12,517,000 | 12,961,000 | 13,420,000 | 14,189,000 | 12,756,000 |
| *후원금을 제외한 회비 총액 : 155,951,000원 | | | | | | |

2. 회원만남행사 및 회원참여 프로그램

1) 회원확대캠페인

- 기간 : 4월 ~6월까지(3개월)
- 주제 : 만개(滿開)-꽃을 활짝 키우다
- 내용
 - 목표 : 300명(신입회원 및 재가입회원)
 - 방법 : 임원5인, 실무자1인을 1그룹 구성. 총5그룹 조직하여 활동
 - 결과 : 광주환경운동연합이라는 나무에 꽃이 가득 핀다는 의미의 만개로 보다 많은 분들이 초록세상을 위해 함께해주었으면 하는 의미로 회원확대캠페인을 전개. 총63명신규 회원가압 (2016년 신규가입회원 : 97명)

2) 회원참여 프로그램 달력 배포

- 일자 : 4월중
- 내용 : 회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홍보 일환. 환경교육, 생태답사, 캠페인 및 소모임 활동계획을 달력형태로 제작하여 배포

3) 후원의밤 행사개최

- 일시 : 11월 15일(화) 오후5시30분~ 9시
- 장소 : 광주 동구 수자타
- 주제 : 강·기후·생명안전을 위한 초록동행
- 내용
 - 체험프로그램 : 친환경치약만들기
 - 전시 : 강, 기후, 생활안전을 주제로 환경연합 활동 전시

- 축하공연 및 기념식
- 환경퍼포먼스
- 회원 및 지역인사 200여명 참석

4) '판도라' 영화 상영회

- 일시 : 12월 17일(토) 오전 9시30분~12시
- 장소 :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 대상 : 회원 및 탈핵활동가
- 참여 : 120여명
- 내용 : 핵발전소 위험성을 알리고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일환. 판도라 영화상영, 탈핵 토크콘서트,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3. 회원모임 및 회원위원회

[기후천사]

□ 활동목적

-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대해 학습
- 광주환경연합 기후강사 활동

□ 활동개요

- 기후변화와 에너지를 주제로 초·중학생에 맞춘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현장 교육 능력을 습득하여 환경연합의 교육강사로 활동. 10여 회원 참여

□ 활동내용

1) 정례모임

| | 내용 |
|-----------|---|
| 3 31일(목) | 순회교육 강사 운영방법 논의 기후변화교육 공통된 자료만들기 및 역량향상교육 논의 |
| 5월 16일(월) | 순회교육 강사확정 기후변화교육 공통된 자료만들기 및 역량향상교육 논의 |

2) 환경순회교육

| 일자 | 장소 | 주제 |
|--------|---------|-------------|
| 4월 1일 | 청계초등학교 | 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 |
| 4월 5일 | 현경북초등학교 | 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 |
| 4월 19일 | 무안북중학교 | 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 |
| 4월 20일 | 고달초등학교 | 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 |
| 6월 22일 | 망운초등학교 | 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 |
| 7월 13일 | 석곡초등학교 | 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 |
| 7월 14일 | 무안초등학교 | 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 |
| 9월 27일 | 전남체육중학교 | 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 |
| 9월 28일 | 죽곡초등학교 | 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 |

3) 광주교대부속초 ESD 체험한마당

- 일시 : 5월 3일(화) 오전 9시 ~ 12시 30분
- 장소 : 광주교대부속초등학교 운동장
- 내용
 - 자원순환교육 : 자원순환의 의미, 쓰레기 분류, 쓰레기 분리배출체험

[물한방을 휴한중]

□ 활동목적

- 생태문화 답사로 가족단위 회원프로그램 활성화
- 환경과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 함양으로 생태적 감수성 키우기

□ 활동개요

- 월 1회 셋째주 일요일 정기모임 개최, 가족단위 생태답사 진행
- 30여명 회원 참여

□ 활동내용

- 일자 : 매월 셋째주 일요일
- 내용 :

- 생활 속 실천(일회용품 안녕), 배움이 있는 답사, 에너지 걱정답사 라는 목표를 가지고
생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을 답사함
- 매월 주제에 따라 담당회원을 정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함
- 15가족, 약 40명 참여

| 일자 | 장소 | 주제 |
|-------------------------|-------------|------------------------|
| 2월 20일(토) ~21일(일) | 담양 금성테마펜션 | 물휴총회, 활동보고 및 계획논의 |
| 3월 20일(일) | 화순 만연산 | 만연산의 새봄 |
| 4월 17일(일) | 광주 푸른길 | 세월호 1000일 순례 |
| 5월 15일(일) | 영산강 | 두 바퀴로 가는 영산강 자전거길 |
| 6월 6일(월) | 장성 수해리 | 농활, 모내기하고 수박먹자! |
| 6월 19일(일) | 서천 국립생태원 | 기차여행, 기후대별 생태체험 |
| 7월 14일(목) | 기아챔피언스필드 | 야구 단체 관람 |
| 8월 13일(토) ~14일(일) | 여수 추도 | 착한여행, 섬여행학교 |
| 9월 29일(목) ~10월 3일(월) | 캄보디아 씨엠립 | 해외 특별 답사 |
| 10월 9일(일) | 광주 비엔날레 | Ingela Ihrma작품관람 및 워크숍 |
| 11월 20일(일) | 하동 악양 토지문화관 | 하동 평사리의 늦가을 |
| 12월 17일(토) ~18일(일) | 한새봉 농업생태공원 | 무박 2일, 별자리 답사 |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 기간 : 1월~12월(매월 첫 번째 일요일)
- 장소 : 광주천과 지천 등
- 내용
 - 모래톱 회원이 이끄미가 되어 재능기부 형식으로 월 정기모임 프로그램 진행
 - 광주천과 지천 답사 및 모니터링, 사진기록, 온라인 daum 모래톱 카페 자료 구축 등

- 어린이 광주천 생태체험 및 교육(광주남초, 새별초, 울곡초, 평동초 학생 대상)
- 20여 회원

· 주요 활동 일지

| 일자 | 주제 | 장소 |
|-----------|---------------------------|----------------------|
| 1월 16일(토) | 정기총회 | 담양 운수대통마을 |
| 2월 14일(일) | 철새의 낙원_조류 탐사 | 담양습지, 전남대 용지 |
| 3월 6일(일) | 식물표본의 이론과 실제 | 광주천 3구간 (양유교~유촌교) |
| 4월 3일(일) | 양림동 문화답사 | 광주천 2구간 (원지교~양유교) |
| 5월 1일(일) | 광주천과 무등산, 사진의 기술 | 광주천 1구간 (샘골~원지교) |
| 6월 5일(일) | 광주 이야기 | 광주천 2구간 (원지교~양유교) |
| 7월 3일(일) | 생태계교란식물의 이해와 체험 | 광주천 4구간 (유촌교~영산강) |
| 8월 7일(일) | 모래톱 단합대회 | 대전 갑천 |
| 9월 4일(일) | 풍영정천 생태 답사 | 풍영정천 |
| 10월 9일(일) | 일제시대와 지금의 광주천 변화 | 광주천 4구간 (유촌교~영산강) |
| 11월 3일(목) | 비엔날레 참여작가 잉겔라 오르만과의 만남 | 광주천 2구간 (원지교~남광교) |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 시와 문학 작품을 낭송 및 감상
- 시 읽기 모임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고 회원간의 단합, 친목활동 전개
- 매월 1회 1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시낭송회 진행
- 김남주 시인 평전 출판기념 행사, 시문화 행사(문태준 시인과의 특별한 만남) 참여 등

[양산일곡회원모임]

- 20여 회원
- 정기 모임
 - 2월 20일(토)/ 영산강변 / 바람분다, 연날리자
 - 3월 19일(토)/ 담양습지/ 자전거로 느끼는 영산강의 봄
 - 5월 21일(토)/ 생룡마을/ 산야초 효소 만들기
- 생생텃밭 경작활동
 - 3월 / 경작자 모집 및 오리엔테이션
 - 4월 16일(토)/ 모종심기, 씨뿌리기
 - 5월 28일(토)/ 텃밭에서의 초록파티
 - 6월 25일(토)/ 황토 고구마 심기
 - 7월 / 풀매기
 - 10월 / 고구마수확

[녹색감시단, 환경통신원]

- 녹색감시단 10여명, 환경통신원 70여 회원
- 자동차 매연과, 환경오염 현장 고발과 시정 요구 연중활동.
-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
- 환경연합 회원활동 상시적 참여 등

[회원위원회]

- 목적 : 회원확대 및 회원참여활성화 방안 마련
- 위원 : 박병섭, 홍기혁, 송형일, 김미수, 국윤주,
- 내용

| 일자 | 내용 |
|-----------|-----------------------------------|
| 2월 23일(화) | 회원확대캠페인 논의 |
| 8월 30일(화) | 회원모임활동공유, 2016 회원체육대회 대체프로그램 논의 등 |

[기타]

- 제목 : '2030 청년모임'준비모임
- 일시 : 8월 29일(월) 오후7시
-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 내용 : 청년회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전의견수렴 및 활성화방안 논의

4. 홍보사업

1) 소식지 '밝은삶 맑은터'발행 및 발송

- 기간 : 1월~12월(총 6회)
- 내용 : 우리 단체 활동과 회원소식을 알리는 회원 소식지로 격월 발행 및 우편 발송.
- 편집위원회
 - 2, 4, 6, 8, 10, 12월에 총 6회 편집위원회 회의 개최
 - 격월로 발송되는'밝은 삶 맑은 터'소식지의 내용과 구성을 위한 논의

2)월간지 '함께 사는 길' 구입 및 발송

- 기간 : 1월~12월 총12회
- 내용 : 환경운동연합 부설 '함께사는길'편집국에서 발행하는 월간 잡지. 국내외 환경 현안 등이 다뤄지는 환경 전문 잡지로 회원들 중 구독을 원하는 자료 회원에게 매달 발송

3) 웹메일 '자연지기' 발송

- 기간 : 1월~12월(총 21회)
- 내용 : 광주환경운동연합의 활동소식, 공지사항, 전국의 환경이슈 등을 회원에게 알림, 별도로 웹메일 형태의 주요 행사 안내 메일 수시 발송

4)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 활용

- 기간 : 연중
- 내용 : 활동소식 및 각종 활동자료를 회원 및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SNS, 홈페이지 등을 활용.

□ 사업평가

-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환경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회원확대활동과 회원 프로그램, 회원소모임, 각 위원회들의 활동들이 활발히 진행됨
- 회원확대캠페인, 회원확대활동을 통한 임위원 및 회원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회원확대 결과가 목표에는 크게 못미침.
- 회원확대 및 홍보를 위해 회원위원회를 강화하거나 전담팀 구성이 필요.
- 함께사는길, 소식직, 자연지기(웹소식지), SNS 등을 통한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함.
- 회원참여사업, 지역모임 활성화,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몇몇 계획들은 미실시되거나 성과를 이루지 못함
- 각 회원모임에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고 회원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과 지원방안 필요
- 회원 조직의 성장을 꾀하고 회원 대상별, 주제별 참여프로그램 발굴과 지원이 필요

[집행위원회, 자문회의, 지도위원 모임]

1. 집행위원회

- 매월 정례적으로 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 집행위원 추가 선임을 통해 집행위원회 활성화

2. 자문회의

· 일시 : 2016년 6월 1일(수) 낮 12시

· 장소 : 북동가든

- 내용 : 상반기 광주환경운동연합 활동에 대한 보고

※ 고문, 공동의장, 감사의 자문회의를 분기별로 개최기로 하였으나, 2016년 1차례 개최됨.

3. 광주환경운동연합 OB모임 구성

- 일자 : 1차 2월 17일(수) 2차 4월 5일(화) 3차 : 10월 7일(금)
4차: 12월 13일(화)
- 임원 : 회장 이근우, 간사 박시종
- 분기별 1회씩 친목도모와 환경연합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기로 함.

4. YB와 OB가 함께 하는 1박 2일 워크숍

- 일자: 10월 7일(금) 오후 7시~10월 8일(토) 오후 2시
- 장소: 담양 죽녹원 한옥체험관(의향당, 예향당)
- 참여자: 임위원, OB모임, 활동가 20-30명
- 내용 : 1회용품 줄이기, 생활속 화학물질, 바람길, 환경교육 등 광주환경운동연합의 브랜드 사업에 대한 논의

□ 사업평가

- 집행위원회, 자문회의, OB모임, 전·현직 임위원 워크숍 등을 통해 광주환경운동연합 현안 공유 및 논의, 조직의 내부 결속 강화, 의제 발굴을 꾀함

□ 활동사진



휴한증



환경통신원

기후에너지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운동]

□ 사업목적

- 핵발전과 화력발전에서 벗어난 재생에너지의 확대 및 보급
- 시민참여형 협동조합 모델을 통한 지역 풀뿌리 참여 유도
-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지원으로 에너지대안사회와 협동경제의 실현

□ 사업개요

-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호 건립 추진 및 홍보
- 조합의 사무국 역할과 실무자 파견 및 운영 업무

□ 사업내용

1.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호' 건립 추진

· 내용 :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호' 건립을 위한 장소임대계약, 발전사업 허가, 출자조합원확대 및 증좌, 발전소시공사선정을 위한 활동

· 세부내용

1) 발전소건립 예정부지 임대계약

- 장소 : (재)광주그린카진흥원 1개동 옥상
- 일자 : 2016. 3. 30

2) 발전사업 허가

-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호
- 취득일 : 2016. 5. 18

3) 사업자 등록증 업태 종목 변경

- 업태 : 전기 추가 / 종목 : 태양광발전 추가

4) 시공사 선정 추진

- 결과 : (주)탑인프라 우선협상자로 선정

| 구분 | 일시 | 내용 |
|-----------------|-----------|--------------------------------------|
| 시공사선정을 위한 공고 | 7월 11일(월) | 기간: 7.11~7.20(10일간) 방법: 우선협상자선정방식 |
| 현장설명회 | 7월 15일(수) | 장소: 그린카진흥원 옥상 |
| 시공사선정(우선협상자 선정) | 7월 25일(월) | 탐인프라 |

5) 발전소건립 실시설계 및 감시 선정

- 일자 : 2016년 10월
- 내용 : 실시설계(탐인프라), 감리선정(진광엔지니어링)

2. 조합활동

· 홍보활동

| 연번 | 일시 | 장소 | 주제 |
|----|----------|-----------------|---|
| 1 | 4월23일(토) | 금남로 일대 | 지구의날 -태양광발전 설치(250W), 핸드폰충전 |
| 2 | 5월5일(목) | 광주시청 광장 | 어린이 재활용장터(아름다운 가게) -태양광발전 설치(250W), 핸드폰충전 |
| 3 | 6월3일(금) | 아이쿱생협 빛 고을센터 | 영화제 실시 -제목 : This change everything |
| 4 | 6월10일(금) | 광주시청자미디어 어센터 | 영화제 -제목 : This change everything |

3. 기타활동

·이사회 : 이사12명

- 일정 : 4월~12월
- 장소 : NGO센터 회의실
- 내용 : 출자금 증좌 및 신규조합원 모집, 발전소 건립과정 점검 등

·시공사선정위원회 : 위원7명

- 일정 : 4월~8월
- 장소 : 협동조합사무실, 금수장 커피숍
- 내용 : 시공사선정방법, 입찰공고, 시공사평가, 우선협상자 협의

·실무위원회

| 일시 | 장소 | 내용 |
|----------|--------------|--------------------------------|
| 3월16일(수) | NGO센터 회의실 | 햇빛발전소 조성기금 확보방안 및 활성화 방안 논의 |
| 8월3일(수) | NGO센터 회의실 | 햇빛발전소 추진과정 점검 |

4. 햇빛협동조합 현황

- 조합원 가입 및 출자금 현황
 - 조합원 : 310명(2016.12월 / 출자금 납부기준)
 - 출자금현황 : 136,550,000원(2016.12월 기준)

□ 사업평가

-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호'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완료함
- 태양광 발전소 부지 및 시공사선정, 조합원과 출자금의 증가 등 발전소 건립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룸
- 협동조합의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였음.
- 협동조합 활성화, '광주시민햇빛발전소1호' 완공을 위한 집중활동 필요함.

[에너지 정책 활동]

□ 사업목적

- 지역 에너지 정책의 대안 모색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계획 마련

□ 사업개요

- 재생에너지 갈등해소를 위한 모색과 공론화 활동

□ 사업내용

○ 광주전남재생에너지 갈등 해결 모색 워크숍

- 일시 : 6월 7일(화) 오전 11시~ 오후 1시
-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
- 참가
 - 지역주민 : 진도농민회(곽길성 회장 외 2명)
 - 중앙사무처 : 이지언(에너지팀장)
 - 전남환경운동연합 : 백양국(광양), 임경숙(목포), 김영철(고흥보성), 강대봉(고흥보성), 신호임(순천), 조환익(여수)
 - 광주환경운동연합 : 이경희(정책실장), 김종필(팀장)
- 내용 및 결과
 - 풍력발전소 건립과 풍력단지 조성시 문제 인식 : 녹지 및 경관 훼손, 주민건강악영향 등
 - 핵폐기물, 송전탑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자립이 필요. 재생에너지 확대는 발전효율이 높은 풍력발전을 배제하고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지역 자체 에너지 생산과 소비, 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 규모와 위치 선정시 지역특색 고려 등이 지역 주민의 피해와 자연훼손 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은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공공성 확보와 제도 및 정책개선을 위해 노력

□ 사업평가

- 신재생에너지 갈등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
- 내부워크숍에서 논의되고 도출된 재생에너지 주민갈등 해결을 위한 후속 활동이 부족
(예: 추가 워크숍, 지역내 공론화 등 기타 실천활동)
- 2016년 기후에너지 활동 계획대비(에너지정책활동, 재생에너지갈등연구모임, 토론회, 포럼, 에너지학교) 활동이 미진함
- 송전탑, 변전소 등 지역내 현안 활동이 부족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

□ 사업목적

-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으로 한중일 국제 연대의 결속력 강화 및 의제 발굴, 정책활동

□ 사업개요

- 동아시아 기후포럼 참여 및 기후보호활동 공유

□ 사업내용

1. 동아시아기후포럼

- 주제 : COP21의 약속, 그리고 동아시아의 역할
- 일자 : 9월 22일~25일
- 장소 : 일본 교토 일원
- 내용 : 한중일의 NGO, 전문가, 행정, 기업 등 환경 기후 에너지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발표와 토론의 장

| 구분 | 내용 |
|------|---|
| 현장투어 | 현장투어 1. 케이호쿠(시민공동발전소) 현장투어 2. 타우타샤(자립농촌공동체) |
| 기후포럼 | 제1세션 - 파리협정실시에 있어서의 동아시아의 역할 제2세션 - 저탄소 동아시아 추진의 과제 제3세션 - 동아시아지역의 탈핵, 탈화석 연료 |
| 전략회의 |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 전략회의 |

- 참여 : 한중일(대만)NGO, 하인리히 뵐 재단(독일), 서아시아 CAN, 일본 시민 등 100여명

1) 기후포럼

- 일자 : 9월 24일(토)
- 장소 : 류코쿠 대학교 후카쿠사 캠퍼스(일본 교토부 교토시 후시미구 소재)

- 주최 : KIKO네트워크, 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 류코쿠대학,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
- 주관 :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광주환경운동연합, 환우과학기술연구센터, 동아시아 환경정보발전소)
- 참석 : 한중일 전문가, 시민단체, 교수, 학생, 시민 등

2)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 전략회의

- 일자 : 9월 25일
- 장소 : 일본교토국제회관
- 주제 : 동아시아공동추진 의제 발굴
- 내용

| 구분 | 내 용 |
|------|---|
| 한국제안 | 동아시아 탈석탄 보고서 작성, 탈석탄 워크숍 실시 |
| 중국제안 | 한중일 환경교육 공동교재 제작 |
| 일본제안 | 석탄화력발전 현황(운영, 건설예정 등) 웹지도 제작 |
| 기타제안 | ㄱ. 일본350 : 기후변화 다이베스트먼트(탈(脫) 투자) 운동 동참 ㄴ. 대만 : 친환경 지역에너지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와 교류 |

- 결과
 - 한중일 공동 기후변화교육교재 및 교구 제작
 - 2017년 4월경 석탄화력발전소(탈석탄)에 관한 공동 워크숍 실시
 - 2018년 석탄화력발전소 문제(가제) 공동 보고서 작성

□ 사업평가

- 정기적인 논의의 장을 통한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 활동의 지속성 강화
-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가 형식적인 모임이 아닌 석탄화력발전소 대응, 환경교재제작 등 공동의 세부적인 활동내용을 모색하고 계획
- 임위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석탄화력발전문제를 통한 국내의 지역조직 과 연계 계기 마련

□ 활동사진



2016 동아시아 기후포럼

탈핵운동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의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음

□ 사업목적

- 탈핵교육의 대중화를 통해 핵에너지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확산
- 영광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감시활동
- 핵 관련 현안에 대한 전국적인 탈핵연대 강화

□ 사업개요

- 탈핵강사 양성 및 탈핵교육 확대
- 노후원전폐쇄를 위한 준비활동
- 수산물 방사능 조사 및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 광주전남 탈핵운동의 역량 강화

□ 사업내용

1. 탈핵활동가 발굴 및 역량강화 사업

1) 탈핵강사 양성교육 프로그램

- 일자 : 5월 24일~7월 14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장소 : 광주 YMCA 올안실
- 참여자 : 시민, 활동가 등 26명
- 교육프로그램

: 핵발전의 문제, 방사능의 위험성, 기후변화와 핵, 대안에너지, 탈핵에너지교육 방법 등

2) 룰루랄라 탈핵캠프

- 일시 : 9월 30일(금) 오후 4시~9시
- 장소 : 아하갤러리

- 참여자 : 탈핵활동가 등 20여명
- 내용 : 광주전남 핵관련 현안(윤종호- 탈핵신문편집장), 탈핵교육 및 탈핵홍보팀 구성

3) 시민방사선 계측기 교육

- 일자 : 11월 28일(월) 오후 2시~4시
- 장소 : 광주광역시청(1층) 행복나눔드림실
- 참여자 : 탈핵행동 참여단체 활동가 16명
- 내용 : 방사선 기본 이론, 방사선 계측기 사용방법과 유의사항 설명 및 계측기 사용 실습, 관련 법령 설명 등(강사 : 김혜정 운영위원장(시민방사능감시센터), 권정완 박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 탈핵 캠페인 전개

※ 매월 1회, 탈핵행동 참여단체 중 1개 단체에서 주관을 맡아 진행

- 8회차 - 2월 1일 / 푸른길공원건기/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 9회차 - 3월 2일/ 광주시청 앞/ 주관 : 한살림
- 10회차 - 4월 1일 / 증심사 입구 /주관 : 여성단체연합
- 11회차 - 5월 2일 / 증심사 입구/ 주관 : 녹색당
- 12회차 - 6월 1일 / 증심사 입구/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 13회차 - 8월 1일/ 남광주푸른길공원 / 주관 : 녹색연합
- 14회차 - 9월 1일 / 광주우체국 / 주관 : 광주YMCA
- 15회차 - 10월 10일 / 전남대 후문/ 주관 : 사회진보연대
- 16회차 - 11월 1일 / 알라딘 서점 앞/ 주관 : 불교환경연대
- 17회차 - 12월 1일/ 무등산 버스종점/ 주관 : 한살림

3.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련 대응

1) 장병완 국회의원 면담

- 일시 : 7월 3일(일) 오후 3시
- 장소 : 장병완국회의원 지역사무실
- 참여자 : 황대권(탈핵행동대표), 박태규(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등 6인
- 내용 : 정부의 사용후 핵연료 관련 입법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지역의 입장 전달

2) 영광,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 등 규탄 성명발표

- 일자 : 7월 28일(목)
- 내용 : 주민동의 절차 생략, 핵발전의 수명연장을 담보로 한 영광핵발전소 부지 내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의 설치를 반대

3)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기본계획 규탄 긴급 기자회견 참여

- 일시 : 7월 25일(월) 오후 2시30분
- 장소 : 정부 세종청사 앞
- 주최 : 탈핵지역대책위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내용 : 정부의 일방적인 공론화, 파행된 공청회를 근거로한 고준위 핵폐기물 관련 입법의 무효 주장

4.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서명운동

1)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서명운동 선포식

- 일시: 10월 17일(월) 오전 11시
- 장소 : 518민주광장
- 내용 : 2017년 대선 후보들에게 국민들의 탈핵 및 에너지전환을 요구할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의 광주전남 선포식 진행

2)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

- 일자 : 10월 21일(금)~지속
-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및 만민공동회에서 거리서명운동 전개
- 장소 : 518민주광장, 금남로 등
- 내용 : 금남로 촛불집회 및 거리 행사시 100만서명운동전개, 이를 통해 현재 2,000여명 서명 참여

5. 후쿠시마 5주기 기념 기자회견

- 일시 : 3월 11일 오전 11시
- 장소 : 옛 광주우체국 앞
- 내용 : 후쿠시마 5주기를 맞아, 영광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고, 거리행진 진행

6. 4.13 총선의 탈핵 후보에 대한 보도자료

- 일자 : 4월 5일

- 내용 : 총선 후보들에게 핵발전 관련 질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광주지역 41명의 후보 중 15명(새누리당 2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 당 5명, 정의당 4명, 민중연합당1명, 무소속 1명)이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전체적으로 탈핵기본법 등 공동행동이 제안한 탈핵에너지 정책에 동의를 포함).

7. 탈핵영화상영

1) 일본과 핵발전 영화상영

- 일자 : 4월 26일 19:00
- 장소 : 전남대학교 컨벤션홀
- 내용 : 학생, 시민이 참여하는 영화상영,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의 상황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상영, 영화상영 후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집행위원장과 대화마당 진행

2) 영화- 판도라 상영회

- 일자 : 12월 10일 09시 30분
- 장소 : 롯데시네마
- 내용 :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핵없는 세상광주전남행동이 공동 주관하여, 탈핵행동 참여단체 활동가 및 회원, 광주환경운동연합 임원 및 회원이 함께 관람.

8. 연대활동

1) 신고리 5,6호기 건설반대 기자회견

- 일자 : 6월 27일(월) 오전 11시
- 장소 : 5.18민주광장
- 내용 :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의 부당함과 박근혜 정부의 핵발전확대 정책의 문제점 제기

2) 탈핵지역대책위 참여

- 내용 : 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탈핵대책위들의 연대회의 참여, 방사능방제구역,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관련 대응 논의

□ 사업평가

- 광주전남의 탈핵 현안을 발굴하고 대응하는 활동이 부족하였으나 전국

- 적인 연대활동과 지역 단체들의 연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음.
- 탈핵행동 참여단체 활동가 및 시민들의 탈핵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탈핵시민강사양성 등을 통한 탈핵교육이 강화됨.
 - 탈핵행동 참여단체들이 주관하여 진행하는 탈핵캠페인의 지속적인 진행과 안정화의 성과가 있음.

[수산물 방사능 조사]

□ 사업목적

- 국내에서 유통중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실태조사
- 수산물의 안전 가이드 라인 제안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광주, 부산, 서울과 공동 조사 진행

□ 사업개요

- 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조사
- 3년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가이드라인 보고서 제작 및 배포

□ 사업내용

1) 수산물 방사능 실태조사

·기간 : 2월~8월

- 구매장소 : 광주의 대형재래시장(양동, 말바우, 남광주시장 등), 대형마트(롯데마트, 이마트 등)

- 대상 수산물 : 송어, 피꼬막, 오징어 등 30여개

- 결과 : 광주지역에서 구매한 수산물 중에서 송어 1개에서 세슘 검출.

※ 3년의 조사 결과 : 국내산은 207건, 수입산은 198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세슘137이 검출된 시료는 국내산 7건, 수입산이 17건으로 나타났다. 종류별 검사 결과, 전체 405개 시료 중 세슘 137이 검출된 빈도는 송어가 18.8%, 명태 12.1%, 가쓰오부시 11.1% 순이며 그 외에 대구는 52개 시료에서 4건(7.7%), 다시마는 26건에서 2건(7.7%), 고등어는 60개

시료 중에서 3건(5%), 명태알 20개 시료 중 1건(5.0%), 명태곤 20개 시료 중 1건(5.0%)으로 나타남.

2) 수산물 가이드라인 제작

- 일자 : 12월
- 내용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위한 시민안전 가이드라인 제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정책을 위한 정책제안을 담은 보고서 제작, 배포

□ 사업평가

- 대체적으로 광주지역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의 경우, 방사능 검출의 빈도가 낮고, 농도가 낮은 결과를 나타냄(부산과 비교시),
- 2017년 지역내 유통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방사능조사로 확대됨으로써 먹거리에 대한 일상적 방사능감시활동의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의 방사능조사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등 지역내 자체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연대활동필요.

□ 활동사진



3.11 후쿠시마 5주기 기자회견

광주천·영산강 살리기 운동

[광주천, 지천 수질보전·감시활동]

□ 사업목적

- 영산강, 광주천 등의 하천, 지천의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 도출 및 개선
- 영산강 등 현장답사, 정화활동을 통해 수질 개선 및 생태환경 복원 기여
- 시민활동으로 하천보전 의식 확산

□ 사업개요

- 광주의 하천관리 사각지대 답사 및 정화활동 전개
- 시민들과 자전거를 타고 하천체험 및 감시 전개
- 우리지역 도심하천 오염원 현황 파악 및 개선책 마련
- 풀뿌리 하천 지킴이들의 지속적인 하천보전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주도형 활동을 정착시켜 나감

□ 사업내용

1. 도량살리기

- 기간 : 3월~11월
- 장소 : 평동천, 황룡강, 주남천
- 내용 : 하천관리 사각지대 답사 및 정화활동

| | 장소 | 내용 | 참여자 |
|-------|-----------|--|--------------|
| 3/19 | 평동천 본촌교 | 불법 투기, 소각 문제 등 하천관리 문제점 해설, 하천정화활동 | 기아자동차 직원 30명 |
| 5/21 | 황룡강 송정교 | 쓰레기 불법 투기 등 하천관리 문제점 해설, 하천정화활동 | 시민 22명 |
| 7/28 | 황룡강 송산유원지 | 하천 유해식물의 이해와 제거작업 | 시민 130여 명 |
| 10/1 | 황룡강 송정교 | 쓰레기 불법 투기 등 하천관리 문제점 해설, 하천정화활동 | 시민 30명 |
| 11/5 | 평동천 본촌교 | 쓰레기 불법 투기, 소각 문제 등 하천관리 문제점 해설, 하천정화활동 | 시민 25명 |
| 11/12 | 주남천 일대 | 하천정화활동, 비료포대함 설치 등 | 시민 20명 |

2. 자전거 가람단

- 기간 : 6월~11월
- 장소 : 영산강, 광주천, 황룡강
- 내용 : 영산강(영산강의 유래, 4대강 사업 후 변화), 광주천(유해식물의 이해와 제거, 복개하천 문제와 개선방안, 오수관과 우수관의 관리 실태), 황룡강(생태적, 문화적 가치, 정화활동)

| | 장소 | 내용 | 참여자 |
|------|--------|---|---------------------|
| 6/25 | 광주천 일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식물의 이해와 제거작업 - 복개하천 현황과 문제점 - 하수관, 우수관의 관리실태와 문제점 | 대학교 홍보단 10명 |
| 5/21 | 황룡강 일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룡강의 생태(습지 기능, 생태계 먹이사슬) - 불법 경작지와 쓰레기 투기 - 황룡강과 문화(월봉서원) - 정화활동 | 대학교 홍보단, 대학생 8명 |
| 7/28 | 황룡강 일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룡강의 생태(습지 기능, 생태계 먹이사슬) - 불법 경작지와 쓰레기 투기 - 황룡강과 문화(월봉서원) - 정화활동 | 대학교 홍보단, 대학생 17명 |
| 10/1 | 영산강 일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산강의 유래 - 4대강 사업이 영산강에 미친 영향 - 영산강의 생태 | 대학교 홍보단, 대학생 12명 |

3. 광주 주요지천 오염원 조사

- 기간 : 5월~9월
- 장소 : 광주천, 풍영정천, 황룡강, 평동천
- 내용 :
 - 각 하천 지킴이들이 광주의 4개 주요지천에서 상반기, 하반기 오염원 조사 및 하천관리 시스템 개선 촉구
 - 5월과 8월 두 차례 풍영정천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이 발생하여 현장 조사 및 대응

4. 광주 주요지천 오염원 조사 활동 보고 및 간담회

- 일자 : 10월 19일
- 장소 : 광주시청 1층(행복나눔드림실)
- 내용 :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물환경분과 4차의제 활동보고 및 간담회

5. 광주천 우안 자전거도로 설치 반대

- 기간 : 2015년 5월~2016년 5월
- 내용
 - 2015년 5월 12일, 2016년 4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천 우안(서구 동천동 빗고을초등학교 인근) 자전거 도로 설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성명 발표
 -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광주천 우안 자전거 도로 공사 철거를 촉구하는 반대 퍼포먼스 진행
 - 당초 계획 6km에서 축소하여 6.8m로 건설됨. 서구청과 광주시는 광주천에 추가 연장을 않겠다는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자전거도로 기본 계획에는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바, 주민 요구 등을 이유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음. 이에 대한 후속 대응이 요구됨

□ 사업평가

-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참여가 이루어짐으로써 참여자의 폭이 확대되었음.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향상시키는 효과
- 정기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하천정화활동을 통해 환경의식고양과 수질개선효과
- 4년 동안 꾸준히 지천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여 하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
- 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 및 정책제안

□ 활동사진



광주천 자전거도로 반대 퍼포먼스



황룡강 정화활동

[하천보전을 위한 교육]

□ 사업목적

-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하천답사를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함
- 우리하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위한 시민활동을 통해 하천 보전의식 확산

□ 사업개요

- 어린이 하천교육 및 체험활동
- 하천보전활동을 위한 시민교육

□ 사업내용

1. 광주천 생태교육

- 기간 : 5월~10월
- 장소 : 광주천 원지교 일대
- 내용 : 광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고기 채집 및 관찰, 시설물과 펌핑수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 둔치식물, 수생식물, 수서곤충 등에 대한 광주천 교육과 체험 3회 진행
- 참여 : 광주남초등학교(80명), 새별초등학교(110명), 울곡초등학교(70명), 평동초등학교(10명)

2. 어린이 청소년 대상 하천 교육

- 기간 : 4월~7월
- 장소 : 담양 용흥사 계곡, 함평생태경관보전지역, 화순 지석천, 광양 금천계곡
- 내용 : 주제별 하천체험 및 놀이 프로그램 진행(수서곤충, 식물, 어류, 먹을거리 등)

| 일자 | 장소 | 내용 | 강사 |
|--------|---------------|--|---|
| 4/16 | 담양 용흥사 계곡 | 하루만 사나? (수서곤충) - 하천체험 및 수서곤충 관찰 - 재활용 만들기(수서곤충) | - 함순아 (동강대 수서곤충과 교수) - 김홍숙 (황룡강 지킴이) |
| 5/14 | 함평 생태경관 보전지역 | 꽃 배는 어디까지 흘러갈까?(식물) - 붉은박쥐 영상 시청 - 고산봉 트레킹 - 박쥐 동굴체험 - 하천, 산지 식물 | - 조어진 (환경부 교육 홍보 강사) |
| 6/18 | 화순 지석천 | 피라미 혼인새은 왜 파랄까?(물고기) - 물고기 집 이야기, 물고기 구조 - 물고기 관찰 및 그리기 | - 김희성 (전남대학원 생물학) - 김희련(화가) |
| 7/9~10 | 광양 금천계곡 / 섬진강 | 다슬기가 밥상으로 올라오기까지(먹을거리) - 다슬기 음식 만들어먹기 - '나'의 물 발자국(물 교육) - 섬진강 퍼포먼스 - 섬진강 어류생태관 견학 | - 조어진 (환경부 교육 홍보 강사) - 김동구 (국제기후환경센터 직원) |

2. 하천지킴이 양성교육

- 기간 : 4월 27일~5월 7일
- 장소 : 증심사천,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의실
- 내용 : 강과 인류의 역사, 하천과 생물종 다양성, 하천보전활동의 방향, 환경교육의 기능과 실례 등

| 일자 | 장소 | 내용 | 강사 | 참여자 |
|------|----------|---|----------------------------|-----|
| 4/27 | 광주환경운동연합 | 강과 인류의 역사 - 지구의 역사, 하천의 역사 - 인간은 강과 어떻게 살아왔나 | 박철웅 (전남대 지리교육과 교수) | 15명 |
| 4/30 | 증심사천 | 하천과 생물종 다양성 - 하천에는 무엇이 살고 있을까 | 조어진 (환경부 교육 홍보 강사) | 15명 |
| 5/4 | 광주환경운동연합 | 누구나 수호(水護)천사가 될 수 있다 - 맑고 건강한 하천, 어떻게 살릴 수 있나 | 신진철 (강 살리기 네트워크 전 사무처장) | 10명 |
| 5/7 | 광주환경운동연합 | 하천지킴이는 환경 교육가 - 하천의 중요성, 어떻게 전달할까 - 환경교육 기능과 실례 | 박병옥 (자연생태복원연구회장) | 8명 |

□ 사업평가

- 체험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의 생태적 감수성 및 흥미를 키움
- 꾸준히 어린이 교육, 체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강사의 확보 필요
- 지속적인 어린이 하천교육을 위한 매뉴얼 정리 필요
- 하천지킴이 양성교육 후 참여자 조직 미흡
- 회원주도형 활동을 지속함
- 다양한 교육, 홍보활동 필요

□ 활동사진



하천지킴이 양성 교육



어린이 자연 나들이

[4대강사업 후속 대응_영산강 재자연화]

□ 사업 목적

- 영산강 주변을 개발하려는 제 2의 4대강사업 저지
- 4대강사업 이후 변화, 악화된 영산강 모니터링과 대안 모색
-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 및 책임자 심판
- 영산강 재자연화 공론화 및 강 살리기 시민참여 확대

□ 사업 개요

- 영산강, 지천 등 하천 난개발에 대한 대응활동
-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의 생태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을 전문가, 지역시민단체, 지역민과 조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
- 영산강 복원을 위한 방안모색과 실현을 위해 지역주민, 단체,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추진
- 녹조, 수질, 농경지침수, 생태환경 등을 조사, 간담회 등을 실시

□ 사업내용

1. 영산강 개발에 대한 대응활동

1)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 사업 반대

- 기간 : 2월~6월
- 내용

- 2월 17일, 5월 19일 성명 발표 : 4대강사업 결과로 강 생태계는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올해 초 남구는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 TF팀을 구성하여 추진을 계획하였고, 이에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영산강과 광주·전남 지역에 미칠 환경적, 경제적, 심미적 문제점, 사업의 허구성 등을 제기하는 반대 성명 발표

- 남구 주최로 참여한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 관련 토론회에서 반대 피케팅 및 사업의 허구성을 문제제기함

2)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대응

- 기간 : 11월~12월
- 내용

- 12월 13일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의 하천둔치 개발 요구에 따라 일반보전지구를 근린친수지구로 변경하여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미 영산강 하천둔치는 운동장 등 체육시설이 과잉으로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산강의 생태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복원, 보전 관리하는 것이 우선.
- 12월 19일 성명 발표 : 2016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안)의 문제점과 요구를 발표

2. 영산강 상시 모니터링

- 기간 : 연중
- 장소 : 영산강 일대
- 내용 : 월 1회 이상 영산강 모니터링을 실시함
- 월별로 영산강 변화와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 수질, 녹조발생, 역행침식 등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파악하고 개선 촉구 활동을 이어감

3. 영산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결과발표

1) 승촌보, 죽산보의 수질, 퇴적토 조사

- 일자 : 7월 29일(금)
- 조사지점 : 승촌보 좌안, 우안(상류방향) 200~300m, 죽산보 좌안(상류방향) 200~300m(총 3지점)
- 내용 : 영산강의 수질, 용존산소, 퇴적토, 강의 구조 변화 등을 조사함
- 참여 : 대한하천학회(박창근 단장) 외 7개 시민단체,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 4명, 다수 언론

2) 영산강 녹조조사

- 일자 : 8월 24일(수)
- 조사지점 :
- 내용 : 영산강 개 지점의 강물을 샘플링하여 독성물질(마이크로시스틴)을 분석함

3) 하구둑 수질 조사

- 일자 : 9월 19일(월)
- 조사지점 : 하구둑 상류방향 5~10km 4지점, 하구둑 하류방향 2km 2지점(총 6지점)
- 내용 : 영산강 하구둑의 수심별 수질, 용존산소량 조사함
- 참여 : 광주환경운동연합 외 6개 시민단체, 전라남도(배종범 도의원),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목포대학교 C-그랜트 연구소 등

4) 영산강 수질, 퇴적토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자 : 10월 6일(목)
- 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앞
- 내용 : 영산강의 수질, 용존산소, 퇴적토 조사결과 발표 및 영산강 복원 요구
- 조사결과
 - 영산강 수질(표층)은 2~3등급 정도로 나타났음
 - 용존산소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감소하다가 4m지점부터는 거의 무산소층을 형성
 - 퇴적토의 경우 중금속은 대체로 1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총인(T-P)가 4등급이고 완전연소가능량이 거의 4등급 수치로 나타났기 때문에 '심각하고 명백한 오염'상태, 즉 토양정화 및 복원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임
 - 수질은 수심별 조사를 시행하여 살펴봐야 하며, 퇴적토도 모래층이 오염된 뿔층으로 변했기 때문에 정부, 지자체의 정밀조사가 필요함

5) 영산강 복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간담회

- 일자 : 12월 14일(수)
- 장소 : 나주의제 사무실
- 내용
 - 영산강을 복원하기 위한 하천부지 친수구역 활용 확대에 대한 문제 대응
 - 하구연 생태복원 협의회 활동 계획
 - 영산강 수질 및 퇴적토 조사 결과 발표
 - 영산강 네트워크 강화

6) 4대강 정책토론회(4대강 사후 모니터링과 주민조직화)

- 일자 : 12월 15일(목)
- 장소 : 서울 NPO지원센터
- 내용 : 2015년부터 시민환경연구소와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2년째 진행 중인 4대강사업 이후 강에 대한 모니터링결과, 피해주민에 대한 심층 인터뷰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4대강 모니터링과 운동방향에 대한 발전적 논의 및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

4. 영산강 도보순례(초록동행 for 영산강)

- 일자 : 11월 19일(토)
- 구간 : 영산강 자전거 안내센터(극락교) → 승촌보(약 11km)
- 내용 : 4대강 사업 이후의 변화된 영산강을 느껴보고 아름다웠던 영산강을 기억하기 위한 회원, 시민 참여 도보 순례
- 참여 : 회원, 시민 25명

5.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연대 활동

1) 제 11회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 기간 : 8월 1일~5일
- 장소 : 영산강 일대
- 내용 : 80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영산강 유역 순례(도보, 자전거, 선박 등), 가마골과 광주천에서 수생태환경 조사,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퍼포먼스 및 상황극 발표 등

2) 영산강 기수(하구) 수생태복원협의회 발족

- 기간 : 10월 19일~
- 개요
 - 영산강 하굿둑이 만들어진지 40년 가까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하굿둑이 수질을 비롯한 생태, 경관 등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
 - 하굿둑으로 인해 멈춰버린 영산강을 생명의 강으로 되돌리기 위한 활동이 필요
- 내용
 - 10월 19일 영산강 하굿둑의 생태복원을 위해 광주·전남 37개 시민단체, 전남도의원, 학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영산강 기수(하구) 생태

복원협의회 발족식이 이루어짐

- 2017년에 진행할 하굿둑 개방을 위한 정책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연구사업 등을 준비 중

3) 제 8회 영산강 살리기 한마당

- 일자 : 12월 8일
- 장소 : 담양 추월산 해피랜드
- 내용 : 권역별로 영산강과 지류하천을 보전하기 위해 진행했던 활동과 성과 공유, 수생태 복원을 위한 토론회

□ 사업 평가

- 4대강사업 이후 생태환경 여건 변화를 비롯한 제반 문제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지속하고 있음. 녹조심화, 생물종 변화 등과 관련한 조사와 하천부지나 주변을 개발하려는 지자체 등의 시도에 대한 대응이 이어짐.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 이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공론화 기회가 됨.
- 영산강 수질 및 퇴적토 조사 등 하천환경의 변화와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영산강 문제를 지역의 이슈로 이끌어 냈음.
- 녹조, 퇴적 오니 등에 대한 개괄조사로 문제제기는 되었으나, 조사 결과에 대한 실효적 활용을 위해 전문 조사에 있어 보완이 필요함.
- 연대 및 시민의 참여를 토대로 영산강의 재자연화, 복원 등의 이슈 확산과 정책적 반영을 위한 후속활동이 요구됨.

□ 활동사진



영산강 퇴적토 조사



영산강 조사결과 발표

환경 교육

□ 사업목적

-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환경교육시스템 구축
- 어린이프로그램, 자원순환교실 등 지속사업의 활성화
-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연계활성화방안 모색 및 제도화 마련

□ 사업개요

- 환경교육위원회 활성화 및 정례회의
- 자원순환강사 양성을 통한 전문강사 인력 구축
-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 시민환경강좌 등 시민대상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1. 환경교육위원회 정례화

- 위원장 : 김희련
- 위원 : 국윤주(집행위원), 김홍숙(집행위원), 박병섭(집행위원), 배효선(회원, 교사), 김춘희(회원, 국제기후환경센터 교육팀장), 케이경희(정책실장)
- 회의 일자 : 2차 - 2월 2일(화), 3차- 3월 29일(화) 4차- 5월 10일(화)
5차-8월 18일(목), 6차 - 12월 16일(금)
- 내용 : 환경운동연합 교육 프로그램 정검, 자원순환교육 논의, 시민환경포럼 등 시민교육프로그램 활성화제안

2. 어린이 환경교육

1) 자연나들이

- ※ 상반기 자연나들이는 하천교육프로그램(광주천, 영산강살리기)의 일환으로 진행

- 기간 : 상반기- 4월~7월, 하반기 10월~11월
- 장소 : 담양 용흥사 계곡, 담양 등 등
- 내용 : 자연놀이, 자연체험활동
- 가을 프로그램

| 일자 | 장소 | 내용 | 강사 | 참여자 |
|-------|--------------|------------------|--------------------|-----|
| 10/16 | 담양 운수대통마을 | 가을산은 000보다 낮다 | - 신민정, 임여훈, 배효선 | 22명 |
| 11/13 | 장성 수해리 | 논두렁에서 살아남기 | - 신민정, 임여훈, 노석규 | 29명 |

2) 여름캠프- '허버 재미있는, 차~아암 불편한 캠프'

- 일자 : 8월 4일(목)~6일(토)
- 장소 : 장흥 '오래된 숲'
- 참여인원 : 초등학교 11명/ 지도자 4명
- 내용 : 캠프 도서관, 멧때리기, 물놀이, 하천탐사, 텃밭을 부탁해(자연요리 대회) 등

2. 자원순환시민강사 - 용용씨 양성 교육 및 활동

1) 자원순환시민강사 - 용용씨 기본교육

- 일자 : 4월~6월
-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동구도시재생센터, 현장
- 참여자 : 22명
- 프로그램
- : 자원순환교육과 기후변화, 광주의 쓰레기문제, 교육철학과 방법론 등 14강좌 진행

| | 일자 | 주제 | 강사 | 소속 |
|----|------|----------------------|-----|---------------|
| | 4/19 | 오리엔테이션 / 개강식 | | |
| 1강 | 4/19 | 우리는 왜 버려진 것에 관심을 갖는가 | |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차장 |
| 2강 | 4/19 | 삶과 미래를 바꾸는 자원순환교육 | 김미화 |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차장 |

| | | | | |
|-----|------|----------------------|-----|---------------|
| 3 | 4/21 | 잘 쓰면 시원, 잘못 쓰면 더운 지구 | | 국제기후환경센터 교육팀장 |
| 4강 | 4/21 | 광주의 쓰레기 문제 들춰보기 | 박미경 | 광주환경공단 상임이사 |
| 5강 | 4/26 |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가? | 현장 | 정향자/동구자활 |
| 6강 | 4/28 | 가르친다는 것은 | 손준호 | 문산초 수석교사 |
| 7강 | 4/28 | 자원순환교육의 사례 1 | 김희련 | 자운영아트 대표 |
| 8강 | 5/3 | 나만의 강의계획서 작성하기 | 이정민 | 계림초 수석교사 |
| 9강 | 5/3 | 자원순환교육의 사례 2 | 최낙선 | 광주에코센터 센터장 |
| 10강 | 5/10 | 종이의 용용C | 김화영 | 블루리본 대표 |
| 11강 | 5/12 | 나무의 용용C | 한우석 | 마을공방대표 |
| 12강 | 5/17 | 옷감의 용용C | 신수현 | 행복한 쓰임 |
| 13강 | 5/19 | 플라스틱의 용용C | 김희련 | 자운영아트 대표 |
| 14강 | 5/24 | 나의 수업 발표하기 | 김희련 | 자운영아트 대표 |
| | 5/24 | 수료식 | | |

2) 자원순환시민강사- 용용씨 심화교육 1차

- 일자 : 6월~8월
-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실, 광주 행복나눔드림실
- 프로그램

| 월 | 일 | 주제 | 강사 |
|----|----|------------------------|--------------------------------------|
| 6월 | 14 | 교실에서의 인권, 교사의 자세 | 정아람(인권교육센터 활짝) |
| | 28 | 쓰레기 분리수거의 모든 것(행정체계 등) | 이정환(북구청 자원순환팀장) |
| 7월 | 12 | 교육 프로그램 발표 1차 | 초등교사, 중등교사, 활동가 등 - 김민수(광덕중학교 교사) |
| | 26 | 교육 프로그램 발표 2차 | - 최낙선(에코센터 센터장) |
| 8월 | 9 | 교육프로그램 최종 발표회 | - 김희련(자운영아트 대표) |
| | | 수여 | - ESD 초등교사모임 |

3) 자원순환시민강사- 용용씨 심화교육 2차

- 일자 : 12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 | 장소 | 주제 | |
|--|----|----|--|
| | | | |

| | | | |
|---------|-----------|-------------------------------|----------------------------------|
| 12월 1일 | 광주지속협 사무실 | 지속가능발전목표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활동 사례 | 윤화철(광주지속협 기획부장) 정은정(광주환경운동연합) |
| 12월 8일 | 한책방 | 아름다운 가게의 운영 원리, 시민참여 필요성 | 신예정(한책방 매너저) |
| 12월 15일 | 에코센터 | 폐식용유 순환시스템 자원순환기본법 및 제도 알기 | 최낙선(에코센터 센터장) 박미경(환경공단 상임이사) |
| 12월 29일 | 퀵트 공방 | 한옷 재활용, 그리고 발상의 전환 | 탁정은(퀵트 공방 대표) |

4) 자원순환시민강사- 용용씨 모임 구성

· 기간 : 8월~12월

- 운영진 : 신민정, 기세현, 박경아

- 참여자 : 용용씨 구성된 12명

- 운영 : 매월에 1회씩 정기모임을 통해 활동 내용에 대한 평가 및 계획 수립

2.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1) 프로그램 개발

· 기간 : 7월~9월

- 내용 : 내가 만든 빨간 수세미(초등 5,6학년), 땅을 살리는 건전지수거함만들기(초등 4,5학년), 쓰레기통을 말려줘(초등 1, 2학년)

2) 교육 진행

- 총 14개 학교 총 86개반 2,064명(1개반 평균 24명) 교육 진행

| 일자 | 학교 | 대상 | |
|-------------|--------|-----------|------------------|
| 09월 21일~23일 | | 4학년 6개반 | 내가 만든 빨간 수세미 |
| 09월 22일~23일 | 만호초등학교 | 3학년 8개반 | 땅을 살리는 건전지 분리수거함 |
| 09월 26일~28일 | 월곡초등학교 | 3학년 6개반 | 쓰레기통을 말려줘 |
| 10월 06일 | 농성초등학교 | 1학년 3개반 | 쓰레기통을 말려줘 |
| 10월 6일~4일 | 동운초등학교 | 4학년 2개반 | 내가 만든 빨간수세미 |
| 10월 20일 | 남초등학교 | 1학년 6개반 | 쓰레기통을 말려줘 |
| 10월 24일~28일 | 대성초등학교 | 전 학년 37개반 | 내가 만든 빨간 수세미 등 |

| | | | |
|-------------|----------|-----------------|----------------|
| 11월 10일,24일 | | 2학년, 5학년 5개반 | 내가 만든 빨간 수세미 등 |
| 11월 02일~3일 | 양산초등학교 | 4학년 4개반 | 내가 만든 빨간 수세미 |
| 11월 03일 | 용봉초등학교 | 4학년, 6학년 | 내가 만든 빨간 수세미 |
| 11월 08일 | 매곡초등학교 | 2학년 4개반 | 쓰레기통을 말려줘 |
| 11월 10일~11일 | 문흥초등학교 | 1학년, 5학년 4개반 | 쓰레기통을 말려줘 등 |
| 11월 28일 | 일곡초등학교 | 1학년 4개반 | 쓰레기통을 말려줘 |
| 11월 18일 | 문흥중앙초등학교 | 6학년 4개반 | 내가 만든 빨간 수세미 |

3. 시민환경포럼-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

-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요한 이슈, 의제를 선정하여 대중 강연활동을 갖음.

- 일시 : 6월 9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NGO센터 7층 강당
- 강사 :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사회 : 국윤주(집행위원)
- 내용 :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한 과정과 현재 진행상황
- 참여자 : 100여명 참여(회원, 임원, 학생 참여)

※ 분기별 1회의 시민환경포럼을 하반기에 계획하였으나, 국제기후환경센터와 공동으로 “책읽는 강연회”로 대체하여 진행

4. 책읽는 강연회- 책으로 만나는 세상, 책으로 만나는 기후·환경이야기

- 기간 : 10월 13일(목)~11월 24일(목) (매주 목요일, 7강좌)
- 시간 : 오후 7시~9시
- 장소 : 광주NGO센터(상무지구) 7층 대동홀
- 참여자 : 매회 40~70여명 참여
- 주최 : 광주 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 주제 | 강연자 | 소속 |
|----------|---------------------|-----|-----------------|
| 10/13(목) |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 황대권 | 생명평화마을 대표 |
| 10/20(목) |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 | 나희덕 |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

| | | | |
|----------|--------------------|-----|----------------|
| 10/27() | 도시사용법 | 박경화 | 환경생태운동가 |
| 11/3(목) | 기후변화 27인의 전문가가 답하다 | 전익찬 | 세종대학교 교수 |
| 11/10(목) | 숲에게 길을 묻다 | 김용규 | “여우숲의 ‘인간 대표’ |
| 11/17(목) | 아이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 | 임종한 |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 11/24(목) | 어느 지구주의자의 시선 | 안병옥 | 기후행동연구소 소장 |

6. 기아차와 함께 하는 생생투어-‘광주로컬푸드 현장에서 배우는 녹색의 삶’

- 기간 : 7월 12일(화)~13일(수), 19일(화)~22일(금) 총 6회 진행
- 시간 : 09:30~16:20
- 장소 : 광주 남구 칠석마을(고싸움테마파크) 등
- 참여인원 : 기아자동차 인근 주민 180~200명
 - 내용 : 기아자동차와 광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기아자동차 인근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환경교육 진행, 지역내 생태문화자원의 탐방, 천연모기향만들기, 옥수수따기 등

□ 사업평가

- 환경교육에 관심있는 집행위원, 회원과 함께 환경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에 함께 참여하는 등 활동력 있는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6년 어린이교육프로그램의 진행이 참가자 모집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하반기에는 어린이나들이기획팀을 구성하는 등 회원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지속화될 수 있었음.
- 시민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인 시민환경포럼과 책읽는 강연회를 통해 시민과 만남을 확대하는 계기 마련. 특히 책읽는 강연회는 국제기후환경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함으로써 협업의 좋은 사례를 만들어냄.
-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프로그램, 자원순환시민강사 양성 등 자원순환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력 양성의 성과를 만들어냄.
- 교육을 통해 환경운동의 실천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의 지속화, 생활과의 연계 등이 필요함.

□ 활동사진



용용씨 학교순회교육



용용씨 양성교육



책임는 강연회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

[대기질 개선 사업]

□ 사업목적

- 미세먼지, 악취 등 대기 환경문제 공론화와 개선
-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기여
- 특히 어린이 등 취약층을 위한 보호책 마련

□ 사업개요

- 시민들이 일상에서 관심과 우려감을 갖고 있는 환경문제, 특히 대기질 (초미세, 미세먼지 등)에 대한 개선활동을 전개함.
- 청정학교 캠페인 등 대기환경 취약자를 위한 캠페인 및 교육진행
- 조사,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지방정부 등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 실현할 수 있도록 촉구함.

□ 사업내용

1. NO2 대기질 조사

- 일시 : 6월 17일(금)~18일(토), 30일(목)~7월 1일(금)
- 장소 : 광주 도시 주요도로, 학교 앞 등 100지점
- 내용 :
 - 학교 앞, 교통 혼잡지역, 주택 등 주요 거점 대기질 조사(연속활동)
 - 광주시의 대기질 측정망 자료 등을 활용, 대기질 현황 파악 및 개선안 모색

2. 대기질 개선 캠페인

- 일시 : 6월 29일(수) 13시
- 장소 : 5·18 민주광장
- 내용 : 소모임 환경통신원이 참여하여 대중교통 이용 및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진행

3. 기아자동차 악취방지협의체 간담회

- 일시 : 5월 17일(화), 11월 30일(수) 16시
- 장소 : 광주 기아자동차 1공장 회의실
- 내용 : 기아차 악취 민원현황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

4. 대기질 개선 민·관 정책간담회

- 일시 : 9월 20일(화) 11시
-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의실
- 내용 :
 - 담당공무원, 전문가, 시민들의 민·관합동 간담회 진행.
 - 5개년 대기질조사 결과 발표,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 정책의 평가하고, 구체적 실천 사례 소개와 더불어 우리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방안 논의

5. 안전하고 깨끗한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

- 기간 : 10월 6일(목)~7일(금)
- 대상 : 광주 송원초등학교
- 내용 :
 - 대기질과 건강과의 상관관계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수업 실시(3학년, 100명)
 - 교육 참여자 등과 함께 통학로 캠페인(학교 앞 공회전금지, 승용차이용 자제) 전개

□ 사업평가

- 민·관 간담회, 악취방지협의체 간담회를 통해 지역 대기문제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도입을 촉구함
- 미세먼지 교육과 통학로 캠페인을 통한 시민인식확대
5년간 동일지점에 대한 지속적인 대기질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주요거점 대기질 현황을 파악하고 청정학교캠페인 등 활용함

□ 활동사진



간담회



청정학교 캠페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응]

□ 사업목적

-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바,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성 인식 제고로 통해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
-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 등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관리부실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등 후속조치를 위한 지속적인 대응 필요

□ 사업개요

- 남영전구 수은누출사고 후속조치
-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응
- 유해화학물질 관리 지자체 대책 조사, 관련 간담회

□ 사업내용

1. 남영전구 수은누출사고 후속조치

1) 성명서 발표

- 일자 : 3월 23일(수)
- 내용 : 유해화학물질 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남영전구 수은누출사고 정보공개 및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2) 남영전구 관련 정보공개 및 안전한 도시 만들기 퇴근선전전

- 기간 : 4월 11일(월)~15일(금) 17시30분
- 장소 : 전남우정국 사거리
- 내용 : 남영전구수은누출사고 후속조치를 중심으로 화학사고 대응매뉴얼 위반, 안전조치 미흡 등 화학사고대응의 총괄책임기관인 영상간유역청의 부실대응에 대한 시위

3) 남영전구 대표 고발 진행사항

- 일자 : 2015년 11월 4일(고발장접수)-2016년 12월 2일(공판)
- 내용 :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남영전구 김철주 대표 검찰고발-남영전구 관계자 3명, 하도급업체 2명 구속

2. 가슴기살균제 참사 대응

1) 가슴기 살균제 제조기업 처벌추구와 옥시제품 불매운동 광주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 : 5월 10일(화) 11시
- 장소 : 광주 YMCA 무진관관
- 내용 : 가슴기 살균제 참사의 가해기업 처벌을 추구하고 최대가해기업인 옥시제품 불매운동을 선언하는 광주시민단체 기자회견

2) 옥시제품 불매운동 집중캠페인

가. 매대 앞 게릴라 시위

- 일자 : 5월 20일(금), 26일(목), 30(월)
- 장소 : 홈플러스 동광주점, 계림점
- 내용 : 대형유통업체 옆 대로변 시민캠페인, SNS홍보

나. 불매 협조공문 발송

- 내용 : 광주·전남 공공기관, 대형유통업체, 약사회 대상 옥시제품 불매 협조공문 발송

3) 가슴기살균제 참사 관련 광주시T/F 간담회

- 일시 : 6월 3일(금) 10시
- 장소 : 광주시청 협업회의실
- 내용 : 광주시 가슴기살균제 피해대응 및 지원계획 공유 및 보완 간담회

4)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현황발표 기자회견

- 일시 : 6월 9일(목) 오후 3시 30분
- 장소 : 광주시의회 기자송고실
- 내용 :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현황발표 및 대응촉구, 추모촛불(LED)포퍼먼스/12월 20일 2차 피해자현황발표

5) 팩트체크 시민감시단 모집 및 운영

- 기간 : 9월 ~11월
- 내용 : 10여명 구성, 안전성이 궁금한 생활화학제품의 앞면과 성분표를 찍어 문자, 밴드, 페이스북에 업로드

6) '제 2의 옥시를 막자' 캠페인 및 서명운동

- 기간 : 9월 8일(목), 20일(화), 10월 4일(화), 18일(화)
- 장소 : 충장로 알라딘서점 앞
- 내용 : 시민감시단 및 자원봉사자 활동, 가습기살균제 참사관련 성분표시제 제정운동

3. 세방산업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관련

1) 하남산단 내 세방산업 TCE 발암물질 전국 1위 성명서 발표

- 일자 : 7월 12일(화)
- 내용 : 하남산단 세방산업, 6년 연속 1급 발암물질 배출 1위, 엘지화학 여수공장의 5배에 이르는 발암물질 배출, 지역 산단의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 소홀 지적

2) 세방그룹의 사과 및 TCE 근본대책 수립 요구 기자회견

- 일시: 7월 18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광주시청 앞
- 내용 : 세방그룹의 책임있는 사과 및 근본대책 수립 촉구, 대체물질 사용검증, 안전보건검증위원회 구성, 하남산단의 안전성 진단 및 시민공개

3) 세방산업 재가동에 대한 규탄 성명발표

- 일자 : 7월 31일 (일)
- 발암물질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세방산업의 재가동에 대한

입장 표명(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성명)

4)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 관련 대책회의

- 일자 : 7월 19일(화), 7월 21일(목), 10월 13일(목) 등
-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의실, 민주노총 등
- 참석 : 환경단체, 민주노총, 정당 등
- 내용 : 세방산업의 발암물질 배출관련 시민사회, 노동 조직의 대응활동 수립

5) 세방산업 관련 광주시 T/F팀 및 검증위원회 참여

6) 기타_국정감사 공동대응

- 이정미(정의당), 송옥주(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활동 지원 및 협력

□ 사업평가

-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시민인식 확산
-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가슴기살균제, 수은중독사건, 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역할 진행
- 전문성 강화를 통해 화학사고 재발방지 및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필요

□ 활동사진



세방산업 TCE배출 기자회견



가슴기 살균제 피해실태 기자회견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자원순환 캠퍼스 만들기]

□ 사업목적

- 지역 내 대학교 대상 자원순환 캠페인 실시
- 불법 투기 개선 및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법 모색

□ 사업개요

- 이면지 활용을 중심으로 교내 자원순환 문화 정착유도
- 교내 쓰레기 문제를 함께 진단하고 대학생, 교직원 역할분담을 통해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참여형 자원순환대학 모델 구축

□ 사업내용

1. 자원순환 캠퍼스 사업추진단 간담회

- 기간 : 4월 ~ 10월, 매월 1회
- 장소 : 전남대 1학생회관 425호, 광주환경연합 회의실
- 내용 : 전남대 환경동아리 그린액션과 담당교수님 참여. 자원순환 캠퍼스 사업방향 및 방법 공유, 역할분담 실시

2. 자원순환 캠퍼스 학생·교직원 인식조사

- 기간 : 4월 29일(금), 5월 23일(월)~25일(수)
- 장소 : 전남대학교 인문대
- 내용 : 이면지활용, 일회용 컵 사용절감에 대한 문항으로 자원순환 캠퍼스 추진 기초자료로 활용, 250여명 대상

3. 자원순환 캠퍼스 시설물 실태조사

- 기간 : 6월 7일(화)~10일(금)
- 장소 : 전남대학교
- 내용 : 캠퍼스 내 주요 90구역 대상 분리배출 시설 실태조사 실시, 조사원 10명참여

4. 분리배출 플래쉬몹

- 일시 : 7월 2일(토) 10시
- 장소 : 금남로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
- 내용 : 시민대상 분리배출 캠페인 및 플래시몹

5. 자원순환 협약 추진회의

- 일시 : 7월 14일(목), 8월 3일(수) 14시
- 장소 : 전남대학교 본부
- 내용 : 자원순환캠퍼스 협약 체결을 위한 사업공유 및 논의 회의(대외 협력과, 학생처)

6. 재활용 UP, 자원순환 캠퍼스 PARTY

- 일자 : 9월 8일(목)~10(토)
- 장소 : 전남대학교 본부
- 내용 : 대학생 및 교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자원순환 체험·홍보부스, 프리마켓 등 체험형 행사,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회 실시

7. 자원순환 캠퍼스 실천사례 만들기

- 기간 : 9~10월
- 내용 :
 - 이면지 활용확대 활동 :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생활과학대학, 공동공간(봉지, 백도, 홍도, 1학생회관) 대상으로 15개 이면지함 설치 및 사용실태 모니터링
 - 우산비닐 안 쓰기, 업사이클링 화분 만들기 개별 부스운영

8. 2016 자원순환 캠퍼스 사업성과보고회

- 일시 : 10월 27일(금) 오후5시
- 내용 : 사업추진내용 및 성과 평가, 이후 사업 추진협의

□ 사업평가

- 캠퍼스 내 이면지 활용, 다회용 컵 사용 확산을 중심으로 자원순환 기반 마련 및 사회경제적 비용과 자원절감에 기여

- 다양한 참여형 캠페인을 통한 자원순환 인식제고 및 교육효과
- 대학 내 동아리의 실무지원으로 보다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참여형 활동 가능
- 대학과의 협약이 진행되지 않아 행정적 참여가 원활하지 못함

□ 활동사진



업사이클링 화분 만들기



분리배출 플래시몹

[자원순환 조사사업]

□ 사업목적

- 쓰레기배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시민인식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조사
-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시스템이 적절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함

□ 사업개요

-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현장조사
- 빈용기 보증금 포함제품 비대상혼입을 조사
- 빈용기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실태조사

□ 사업내용

1.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현장조사
 - 기간 : 3월 28일(월)~4월 8일(금), 9월 19일(월)~30일(금)/2회
 - 대상 : 광주시내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32지점

· 내용 : 다회용품 사용권유, 분리배출 등 사전조사 및 공개조사

2. 1회용품 사용현황에 대한 시민설문조사

· 기간 : 7월~8월 12일(금)

· 내용 : 150명 대상, 1회용품 사용현황에 대한 시민설문조사 진행 및 분석

3. 빈용기 혼입율 및 반환내역조사

· 기간 : 6월, 8월, 9월, 11월

· 장소 : 광주·전남 지역의 조사대상 제조사 물류센터

· 내용 :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보해양조 등 광주·전남의 주요 제조사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빈용기 혼입율 및 반환내역조사를 연 4회 실시함

□ 사업평가

- 광주·전남 물류센터에서 2016년 처음으로 시행된 빈용기 반환내역조사에 대한 이해와 적응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해 쓰레기배출, 일회용품 사용, 빈용기 보증금 포함제품회수실태 등을 조사

생태도시만들기

□ 사업목적

-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녹지공간의 보전 및 확대활동
- 생물학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시- 광주를 구현
- 도시난개발에 대한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 도시계획, 도시교통, 도시재생 등의 계획에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제시

□ 사업개요

- 도시철도 2호선 푸른길 훼손에 대한 대응 및 저심도 지하철 2호선에 대한 대응
- 도시교통, 공공교통 정책에 대한 감시 및 대응활동
- 도시 난개발, 초고층 아파트의 개발 대응

□ 사업내용

1. 도시철도 2호선 추진에 따른 대응활동

1) 도시철도 2호선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일자 : 1월 7일, 1월 14일, 1월 21일 3차례 진행

·장소 : NGO센터 대동홀

·참여자 :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실무책임자 참여

- 내용 :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합의된 입장을 도출

-참여단체 : 광주경실련,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환경운동연합,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푸른길,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플랫폼 나들, 살기좋은광주만들기네트워크, 광주참교육학부모회, 에코바이크, 송화공동체, 광주시시각장애인연합회, 나눔평화기독인연대,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정의당광주시당, 녹색당광주시당(준)

2) 도시철도 2호선,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1월 25일(월) 10시30분
- 장소: 시의회 기자실
- 내용 : 편리성과 경제성이 없는 저심도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반대, 2호선의 조기착공이 아닌 근본적 대책 마련, 바람직한 교통체계 수립 등에 대해 광주시에 요구

3) 도시철도2호선 시민대책위(가칭) 회의

- 일시 : 2월 22일(월) 오전 11시
- 장소 : ngo센터 회의실
- 참여 : 연석회의 참여단체
- 내용 : 도시철도 2호선 원점재검토 시민회의를 구성키로 함에 따라, 원점 재검토에 대한 환경연합 내부 논의를 거쳐 참여키로 함.
- 이후 활동 : 도시철도 2호선 원점재검토 시민회의의 구성 및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음.

4) 회원 및 임위원 참여 도시교통 워크숍

- 일시 : 3월 28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실
- 참여자 : 집행위원+회원 등 20여명 참여
- 내용 : 도시공공교통으로 도시철도 2호선의 문제, 광주 도시교통의 문제점 등을 다룸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활동

1) 국가도시공원법 제정 환영논평

- 일자 : 3월 4일
- 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차원에서의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조문으로 변경, 과거 100만서명운동 등을 통해, 민간차원의 법개정운동을 펼쳤음.

2) 국가도시공원법 시행령안 의견서 접수

- 일자 : 8월 24일

- 내용 : 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시행령에서는 국가도시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법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문제점 제기

3) 공원일몰제 및 민간공원 민관 간담회

- 일자 : 10월 6일
- 장소 :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내용 : 국가도시공원법 개정이 무용지물로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 촉구

4) 중앙공원의 친구되는 날

- 일시 : 9월 3일(토) 09:30~12:00
- 장소 : 중앙공원 일대(서구 금호동 80)
- 내용
 -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환경봉사활동 전개,
 -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 푸른길 등 지역내 공원운동단체가 연대하여 진행
 - 시민 및 학생 83명과 함께 중앙공원 내 훼손지를 복원, 새집만들기, 가드닝활동 진행

3. 도시 난개발에 대한 대응

- 1)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부지 아파트 건축 불허기를 요청 의견서 제출

- 일자 : 1월 13일
- 내용 : 광주시에 의견서 제출

- 2) 누문동 뉴스테이사업(44층 고층 아파트)에 대한 문제제기

- 1차 : 11월 27일/ 문제 제기 성명발표
- 2차 : 12월 21일/ 경관위원회 위법성 및 공공성 침해에 대한 성명발표
- 3차 : 12월 27일/ 도심의 변화와 공공성 지키기 집담회 개최

4. 서석초 앞 보행전용도로 지키기 대응활동

- 일자 : 6월~12월

·참여단체 :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지역문화교류재단, 광주환경운동연합, 동계전 번영회 등

·내용

- 서석초 정문 앞 130m는 광주에서 유일한 학교 앞 보행자전용도로의 자동차 도로화에 반대하며,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활동 전개

·진행 경과

- 7월 19일(화) : 서석초 보행로 존치요구의 성명서 발표

- 7월 25일(월) : 서석초 정문 앞 보행 공간 침해 대응을 위한 커피 파티 개최

※ 지역 조직(모임), 청년, 시민사회, 문화단체 등 참여, 긴급 확대 간담회 개최

- 7월 28일(목) : 서석초 정문 보행전용도로 훼손에 따른 긴급간담회

※ 시민사회, 광주시, 동구청, 시의회 산건위원장, 동구의회 운영위원장 등 참석

※ 지역 주민 대표, 광주시 관련 부서 책임자와 간담회 / 시민토론회 개최키로

- 8월 19일(금), 12월 12일(월) :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5. 지구의 날 기념행사 "지구와 0cm"

·일시 : 4월 23일(토) 오전 11시~오후 5시

·장 소 : 금남로 YMCA ~ 금남공원/ 약 400m

·참여자 : 광주시민 약 3,000명

·내용 : (사전행사) 자전거 그란폰도(4/13~4/22), 녹색교통 토론회(4/6)
(본행사)자전거대행진, 기념식, 놀이마당, 문화마당, 체험부스 운영

- 주관 : 광주전남녹색연합

- 주최 ; 2016 지구의 날 행사위원회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주제마당인 놀이마당과 체험마당등을 기획 및 실행

6. 기타 - 도시계획, 도시교통, 도시경관 관련 위원회 활동

- 도시계획위원회- 최지현 사무처장, 도시경관위원회- 이경희 정책실장,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이경희 정책실장 참여

□ 사업평가

-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로 인해 훼손 위기에 놓인 푸른길공원 구간을 광주에서 도로구간을 활용해, 푸른길공원을 보전키로 하였으나, 도시철도 2호선의 근본적인 저심도, 대중교통, 공공교통으로써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못한상태에서 추진됨.
- 윤장현시장의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진행하였으나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전환을 이끌어내지는 못함.
- 장기미집행공원의 부지매입을 위해 2017년 본 예산에 공원매입비 반영의 성과

□ 활동사진



날



서석초 보행전용도로 간담회

[도시정책 및 관리의 정책대안 제시]

□ 사업목적

- 도시 관리의 철학과 정책방향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 공공성이 침해에 대한 대안 정책을 제시
- 특히 도시 열섬, 도시 난개발, 도시 고층화 문제에 대해 전문가, 시민 사회, 시민이 함께 모여 토론

□ 사업개요

- 도시열섬의 문제와 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광주의 공공 교통의 현실과 개선방안
- 초고층 아파트와 도시 난개발 토론회

□ 사업내용

1. 세계인권도시포럼- 환경과 도시 주체회의 “모두를 위한 도시- 공공교통을 말하다.”

· 일 시 : 7. 22 (금) 9:30~12:30

· 장 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극장3(지하3층)

- 참가인원 : 120여명 (국내외 전문가, 시민 등)

- 내용 및 프로그램

좌장 최동호(한국, 광주대 도시계획학과)

·발제1 인간을 위한 도시만들기 / Jurgen Rosemann(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Prof, Chairman, International Forum on Urbanism)

·발제2 모두를 위한 공공 교통 /백남철·안성채(한국건설기술연구원 ICT융합연구소 연구위원)

·발제3 도시의 교통실험 / 오용석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발제4 함께 편리하고 안전한 마을 /고경아(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경영기획본부장)

·토론1 김동효(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토론2 송예나(전남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토론3 문창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2. 광주도심열섬 현상과 도시계획의 방향

·일시 : 9월 6일(화) 오후3시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회의실

·내용

주제발표 1 : 광주의 열섬현상의 원인과 실태 -더워지는 광주, 바람길을 열어라 /박석봉(광주대 건축학부 교수)

주제발표 2 :시민이 체감하는 광주의 열섬현상 /윤희철(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토론 1 : 도시열섬과 도시녹지/조동범(전남대 조경학과 교수)

토론 2 : 생태적 도시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적용 사례와 제안/ 황철호(국재기후환경센터 책임연구원)

토론 3 : 도시열섬과 도시재생(건축) / 김상진(전주대 건축공학과 교수)

토론 4 : 도시열섬과 도시(계획)행정/ 신재욱(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3. 초고층 아파트숲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종향 상 문제 중심)

- 일시 : 12월 19일(월) 오후 2시 ~ 5시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
- 주최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 내용 및 프로그램
 - * 좌장 : 조오섭 의원(광주광역시의회)
 - 주제발표 1.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_ 조명래 교수(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 주제발표 2.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 _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 * 지정토론 좌장 : 조동범 교수(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토론 1. 도시계획_이민석(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토론 2. 주택, 주거_김기홍(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토론 3. 최동호(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토론 4. 도시개발_정병준(광주KBS 심의위원, 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토론 5. 종합_신재욱(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계장)

4. 집담회- 도심 공간의 변화와 공공성 지키기

- 일시 : 12월 26일(월) 오후4시
- 장소 : 광주NGO센터 공동체홀
- 주최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 내용 : 도심공간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과 시민사회단체의 집담회

5. 기타

- 1월 4일, 아파트건설에 따른 송전탑 및 송전선로 이설, 이로 인근 주민 피해 대한 입장문 발표
- 1월 13일,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설로 인한 주변 주택가 일조권 침

해 유발, 이에 대한 입장문 발표

□ 사업평가

- 도시열섬문제를 도시계획 측면에서 살펴보고 조례제정과 행정지침 등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하였으나 토론회이후 구체적인 정책마련과 시민대상 실천활동이 연계되지 못함
- 도시교통, 도시 난개발 등의 토론회를 통해 이슈와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지속적인 토론, 감시 비판활동이 부족함.
- 환경운동연합이 중심으로 활동해 나갈 도시 문제의 분야(도시교통, 주택개발, 녹지개발 등)를 선정해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활동사진



도시 열섬현상과 도시계획 방향 토론회

지역 및 전국연대

[전국 및 지역 환경운동연합]

1. 전국 대표자회의 _ 년 4회 개최

- 1차 : 2월 27일(토) / 경향신문사 2층 '자희향' 식당
 - 2차 : 12월 10일(토) / 환경운동연합(서울)
- ※ 박태규 공동의장 참여

2. 전국 국처장단회의_ 격월로 진행

- 1차 : 3월 14일(월) 15:00~18:00 / 대전 NGO지원센터
- 2차 : 5월 10일(화) 15:00~18:00 / 대전 NGO지원센터
- 3차 : 8월 18일(화) 15:00~19:00 / 대전 NGO지원센터
- 4차 : 10월 12일(수) 15:00~18:00 / 대전 NGO지원센터

: 내용_ 전국 현안사업 점검 및 사무국처장단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논의

3. 광주전남 사무국장 회의

- 3월 8일 / 목포환경운동연합
- 9월 5일 / 순천환경운동연합
- 12월 21일 / 순천환경운동연합

4. 광주전남 임원활동가 수련회

- 일자 : 4월 29일(금)~30일(토)
- 장소 : 전남 보성

- 참여 : 광주와 전남지역 환경운동연합 임원, 활동가 40여명 참여
- 내용 : 활동에 대한 공유,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 활동 토론

※ 반기별 진행키로 한 임원활동가 수련회의 하반기 일정은 촛불 정국 참여 등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함.

5. 전국회원대회

- 일자 : 7월 16일(토)~17일(일)
- 장소 : 경기도 여주 한국노총 연수원
- 내용 : 환경관련 특강, 전국 회원들의 포퍼먼스(가습기 살균제 피해)

[시민단체협의회]

1. 운영위원회 참여

- 매월 1차례 정례회의 참여, 시민단체협의회 활동에 대한 소통 및 지역 현안의 연대활동

2. 연대활동 참여

- 박근혜 퇴진운동, 백남기 농민, 도청 별관 보전 등 지역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 어등산 대책위, 민선 6기 시정평가 등 시민협 활동의 연대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 실천사업위원회

- 4차 의제(2012년~2016년) 실천사업 참여 _ 녹색교육분과, 자원순환분과, 하천분과, 기후대기분과
- 운영위원회 참여

2. 광주 습지생물다양성 세미나

- 기간 : 2015년 6월 ~ 2016년 12월
- 내용 : 광주의 습지생물다양성 보전관리 방향과 복원방안에 대한 세미나, 포럼, 선진지 답사 등을 월별 개최

3. UN-HABITAT 3 회의 참여

- 일자 : 10월 15일~10월 20일
- 장소 : 에콰도르 키토

- 참여 :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여(윤희철, 김광훈, 이경희)
- 내용 : 167개국의 국가 대표, 지방정부대표 등 3만여명이 참여하여 도시의 문제 해결에 대한 UN 합의문작성, 그 결과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 채택- 도시권, 재해로부터 회복력, 시민참여 보장하는 포용력, 적정 주거, 생태계 회복 등

[4.13 총선 대응]

1. 낙선대상 국회의원 후보 발표

- 4대강, 찬핵 후보 명단 발표
- 광주전남지역, 박준영(영암, 무안)후보자 낙선대상

2. 박준영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요구 기자회견

- 1차 : 3월 31일(목)/ 무안 박준영후보 사무실 앞
- 2차 : 4월 10일(일)/ 영암 오일장 앞

※ 박준영후보가 4.13총선 결과 당선됨. 이후 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 중

[기타]

1. 광주 도시농업시민협의회 구성

- 일자 : 9월 20일
- 장소 :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실
- 내용 : 도시농부들이 제안하는 도시농업의 방향 워크숍 개최, 광주 도시농업시민협의회 결성<대표 : 김은일(도시농업포럼 대표), 이성진(한새봉 두레 대표), 이종국(광주전남귀농학교 대표)>
- 주관 단체 : 한새봉 두레, 광주전남귀농학교
-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도시농업시민협의회 참가단체 및 운영위원으로 참여

2. 지구의 벗 국제본부(FoEI) 격년총회 참석

- 일자 : 11월 24일 ~ 12월 3일
- 장소 : 인도네시아 반다르람퐁
- 참석 : 76개국 회원 단체 100여명 참석

- 내용 :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지구의 벗 총회에 참석
 - ①의장 선출 ②운영위원 선출 ③예결산 승인 ④사업 논의(경제 정의, 기후정의와 에너지 프로그램, 식량주권 및 생물종다양성 보전)⑤차기 총회 개최지 선정 ⑥신규 회원국 가맹 논의 ⑦기타 _지구의 벗 시스템 체인지, 탄압받고 있는 환경운동가에 대한 지원 방안, 농민단체와 여성단체 연대 협력 방안 등 논의

□ 활동사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2016 재정결산(안)

2016 일반회계 결산

(단위: 원)

| 수입부 | | 지출부 | | | |
|----------------------|---------------------|----------------------|---------------|----------------|------------|
| 항목 | 결산 | 항목 | 결산 | | |
| 이월금(4.8%) | | 차기이월금(4.4%) | | | |
| 14,736,581 | | 13,573,895 | | | |
| 회비 | 자동이체 | 경상비 | 공과금 | | |
| | 지로납부 | | 전화통신비 | | |
| | 직접납부 | | 건물관리비 | | |
| | 평생회원 | | 구매 | | |
| | 특별(임원)회비 | | 소모/수선비/신문 | | |
| | 소계 (50.3%) | | 155,951,000 | 비품비 | 1,059,300 |
| 후원 마련비 | 후원의 밤 등 기부금 | 매식비 | 3,428,200 | | |
| | 회보광고 | 퇴직적립금 | 8,196,740 | | |
| | 소계 (19.1%) | 59,132,900 | 교육, 활동기공제지원 등 | 1,186,850 | |
| 사업비 | 민간협력사업 | 보험료 | 4대보험료 | | |
| | 교육참가비 | 인건비 | 급여 | | |
| | 소계 (23.2%) | 72,040,500 | 상여금 | 12,152,565 | |
| 기타 | 고용지원금 | 경상비소계 (45.8%) | | | |
| | 자료대여, 판매 등 | 142,017,240 | | | |
| | 대여금상환 | 중점 사업 | 환경교육 | 21,173,677 | |
| | 차입 | | 탈핵, 기후보호운동 | 16,730,784 | |
| | 기타수입(이자 등) | | 생태도시 | 9,643,556 | |
| | 소계 (2.6%) | | 8,187,217 | 광주천, 영산강살리기 | 17,299,320 |
| | 사업비 | | 사업비 | 정기간행(소식지, 월간지) | 16,724,000 |
| 홍보물제작, 우편, 수수료 | | | | 6,547,600 | |
| 회원모임지원 | | 1,330,500 | | | |
| 회원 조직 및 참여사업 | | 6,943,090 | | | |
| 홈페이지, 자료실운영 | | 1,385,200 | | | |
| 소계(10.6%) | | 32,930,390 | | | |
| 조직 및 특별 사업 | 조직 및 특별 사업 | 정기총회 등 회의 | 3,575,660 | | |
| | | 후원의 밤 | 2,890,500 | | |
| | | 중앙/지역연대 | 11,723,033 | | |
| | | 소계(5.9%) | 18,189,193 | | |
| 사업비 소계(42.6%) | | 132,168,663 | | | |
| 기타 | 기타 | 장기발전기금 | 17,000,000 | | |
| | | 기타지출(차입금 상환) | 5,288,400 | | |
| | | 소계(7.2%) | 22,288,400 | | |
| (87.6%) | | 지출(95.6%) | | | |
| 295,311,617 | | 296,474,303 | | | |
| 수입계(100%) | | 지출계(100%) | | | |
| 310,048,198 | | 310,048,198 | | | |

■ 현금 및 예금명세

(단위 : 원)

| 예금종류 | 은행 | 계좌번호 | 잔액 |
|------|----|------------------|------------|
| 보통 | 광주 | 010-107-302497 | - |
| 보통 | 광주 | 053-107-306601 | - |
| 보통 | 광주 | 001-107-385913 | - |
| 보통 | 광주 | 001-107-385922 | 893,935 |
| 보통 | 광주 | 053-107-309122 | 11,377,194 |
| 보통 | 광주 | 001-107-385889 | 1,152 |
| 보통 | 광주 | 055-107-002005 | - |
| 보통 | 광주 | 003-107-315495 | 436 |
| 보통 | 광주 | 001-107-385898 | 352 |
| 보통 | 광주 | 003-107-315501 | 1,246 |
| 보통 | 광주 | 053-107-313545 | 2,517 |
| 보통 | 광주 | 003-107-318147 | 375,837 |
| 보통 | 농협 | 617-01-145946 | 525,629 |
| 보통 | 농협 | 301-0094-7367-21 | 88 |
| 보통 | 신협 | 131-004-104341 | 46,452 |
| 보통 | 광주 | 003-107-312239 | 225 |
| 보통 | 광주 | 003-107-319286 | - |
| 보통 | 농협 | 616-01-127261 | 52 |
| 보통 | 광주 | 003-107-312220 | 300,850 |
| 현금 | 현금 | | 47,930 |
| 합계 | | | 13,573,895 |

■ 출자금 명세 (북동신협 110-051-151293)

| | | 현 적립 (2016년 12월 31일 기준) | |
|-----|---------------|-------------------------|---------------|
| 항목 | 금액 | 항목 | 금액 |
| 이월금 | 10,276 | | 50,634 |
| 배당금 | 358 | | |
| 출자금 | 40,000 | | |
| | 50,634 | (현 적립금) | 50,634 |

■ 임대보증금 명세

(단위 : 원)

| 임대인 | 기간 | 금액 |
|-----|-------------------|------------|
| | 2003년 3월~(2년씩 연장) | 50,000,000 |

[예- 결산 실적비교]

(단위 : 원)

| | | | | | 지출부 | | | | | | | |
|------|-------------|-------------|-------------|-------------|--------|-------------|-------------|-------------|-------------|-------------|-------------|-----|
| 항목 | | 예산 | 결산 | 실적 | 달성율(%) | 항목 | | 예산 | 결산 | 실적 | 달성율(%) | |
| | | 14,736,581 | 14,736,581 | | | 차기이월금 | | - | 13,573,895 | | | |
| 회비 | 자동이체 등 | 162,000,000 | 151,951,000 | -10,049,000 | 94% | 경상비 | 공과금, 건물관리비 | 6,600,000 | 6,149,665 | -450,335 | 93% | |
| | 평생회원 | 6,000,000 | 0 | -6,000,000 | 0% | | 소모/수선비/신문 | 2,400,000 | 1,008,780 | -1,391,220 | 42% | |
| | 특별(임원)회비 | 5,280,000 | 4,000,000 | -1,280,000 | 76% | | 비품비 | 3,000,000 | 1,059,300 | -1,940,700 | 35% | |
| | 소계 | 173,280,000 | 155,951,000 | -17,329,000 | 90% | | 활동가 후생복지 | 16,726,420 | 12,811,790 | -3,914,630 | 76.6% | |
| 미경입회 | 후원의 밤, 기부금 | 70,000,000 | 59,132,900 | -10,867,100 | 84% | | 4대보험료 | 9,539,920 | 7,051,850 | -2,488,070 | 74% | |
| | 회보광고 | 1,000,000 | 0 | -1,000,000 | 0% | | 인건비 | 126,097,000 | 113,935,855 | -12,161,145 | | |
| | 소계 | 71,000,000 | 59,132,900 | -11,867,100 | 83% | | 경상비소계 | 164,363,340 | 142,017,240 | -22,346,100 | 86% | |
| 사업비 | 민간협력사업 | 75,000,000 | 58,080,900 | -16,919,100 | 77% | | 사업비 | 중점, 연속 사업 | 105,000,000 | 81,049,080 | -23,950,920 | 77% |
| | 교육 참가비 | 12,000,000 | 13,959,600 | 1,959,600 | 116% | | | 회원 사업 | 52,672,000 | 32,930,390 | -19,741,610 | 63% |
| | 소계 | 87,000,000 | 72,040,500 | -14,959,500 | 83% | | | 조직 및 특별 사업 | 20,100,000 | 18,189,193 | -1,910,807 | 90% |
| 기타 | 차입금상환 | 0 | 5,000,000 | 5,000,000 | 0% | 사업비 소계 | | 177,772,000 | 132,168,663 | -45,603,337 | 74% | |
| | 자료대여, 판매 등 | 600,000 | 600,000 | 0 | 100% | 기타 | 장기발전기금 | 5,000,000 | 17,000,000 | 12,000,000 | 340% | |
| | 대여금상환 | 2,000,000 | 2,000,000 | 0 | 100% | | 기타지출 | 2,864,660 | 5,288,400 | 2,423,740 | 185% | |
| | 기타수입/결산이자 | 1,383,419 | 587,217 | -796,202 | 42% | | 소계 | 7,864,660 | 22,288,400 | 14,423,760 | 283% | |
| | 소계 | 3,983,419 | 8,187,217 | 4,203,798 | 206% | | | | | | | |
| 수입 | 335,263,419 | 295,311,617 | -39,951,802 | 88% | 지출 | 350,000,000 | 296,474,303 | -53,525,697 | 85% | | | |
| 수입계 | 350,000,000 | 310,048,198 | -39,951,802 | 89% | 지출계 | - | 310,048,198 | - | | | | |

[전년대비 증감률 비교]

(단위 : 원)

| | | | | | 지출부 | | | | | | | |
|--------------|-------------|-------------|-------------|-------------|------------|---------------|--------------|---------------|-------------|-------------|-------------|------|
| | | 2015 | 2016 | | 달성률 | 항목 | 2015 | 2016 | 증감 | 달성률 | | |
| 이월금 | | 34,087,587 | 14,736,581 | -19,351,006 | 43% | 차기이월금 | 14,736,581 | 13,573,895 | -1,161,686 | 92% | | |
| 회비 | 자동이체 등 | 149,191,999 | 151,951,000 | 2,759,001 | 102% | 경상비 | 공과금, 관리비 | 5,966,881 | 6,149,665 | 182,784 | 103% | |
| | 평생회원 | 0 | 0 | 0 | 0% | | 소모/수선비/신문 | 2,008,740 | 1,008,780 | -999,960 | 50% | |
| | 특별(임원)회비 | 4,960,000 | 4,000,000 | -960,000 | 81% | | 비품비 | 1,165,100 | 1,059,300 | -105,800 | 91% | |
| | 소계 | 154,151,999 | 155,951,000 | 1,799,001 | 101% | | 후생복지 | 12,602,750 | 12,811,790 | 209,040 | 101% | |
| 미리인-후 | 후원의 발 등 기부금 | 68,261,104 | 59,132,900 | -9,128,204 | 87% | | 4대보험료 | 5,001,590 | 7,051,850 | 2,050,260 | 141% | |
| | 회보광고 | 0 | 0 | 0 | 0% | | 인건비 | 115,637,390 | 113,935,855 | -1,701,535 | 99% | |
| | 소계 | 68,261,104 | 59,132,900 | -9,128,204 | 87% | | 경상비소계 | 142,382,451 | 142,017,240 | -365,211 | 100% | |
| 사업비 | 민간협력사업 | 72,596,000 | 58,080,900 | -14,515,100 | 80% | | 사업비 | 중점, 연속 사업 | 101,714,933 | 81,049,080 | -20,665,853 | 80% |
| | 교육참가비 | 7,628,000 | 13,959,600 | 6,331,600 | 183% | | | 회원 사업 | 38,501,110 | 32,930,390 | -5,570,720 | 86% |
| | 소계 | 80,224,000 | 72,040,500 | -8,183,500 | 90% | | | 조직, 연대, 특별 사업 | 16,108,099 | 18,189,193 | 2,081,094 | 113% |
| 기타 | 차입금상환 | 0 | 5,000,000 | 5,000,000 | 0% | 사업비 소계 | | 156,324,142 | 132,168,663 | -24,155,479 | 85% | |
| | 자료대여, 판매 등 | 250,000 | 600,000 | 350,000 | 240% | 기타 | | 장기발전기금 | 40,000,000 | 17,000,000 | -23,000,000 | 43% |
| | 대여금상환 | 1,000,000 | 2,000,000 | 1,000,000 | 200% | | 기타지출 | 520,843 | 5,288,400 | 4,767,557 | 102% | |
| | 기타수입/결산이자 | 2,091,447 | 587,217 | -1,504,230 | 28% | | 기타소계 | 40,520,843 | 22,288,400 | -18,232,443 | 55% | |
| | 고용지원금 | 13,897,880 | 0 | -13,897,880 | | | 지출 | 339,227,436 | 296,474,303 | -42,753,133 | 87% | |
| 소계 | 3,341,447 | 8,187,217 | 4,845,770 | 245% | 지출계 | 353,964,017 | 310,048,198 | -43,914,946 | 88% | | | |
| 수입 | 319,876,430 | 295,311,617 | -24,564,813 | 92% | | | | | | | | |

별도계정 결산(안)

■ 장기발전기금 예금 명세

(단위: 원)

| | 계좌 | 금액 |
|----|----------|------------|
| | 150-357- | 5,255,678 |
| 신협 | 150-373- | 15,718,858 |
| 신협 | 150-377- | 42,347,795 |
| 신협 | 150-348- | 5,241,474 |
| 광주 | 003-130- | 20,525,226 |
| | | 89,089,031 |

■ 장기발전기금 재정

(단위: 원)

| 수입부 | | 지출부 | |
|----------|------------|---------|------------|
| | 금액 | 항목 | 금액 |
| 이월금 | 70,523,959 | 차기이월금 | 89,089,031 |
| 2016 적립금 | 17,000,000 | 일반회계 대여 | 5,000,000 |
| 대여금 상환 | 5,000,000 | | |
| 이자수익 | 1,565,072 | | |
| 합계 | 94,089,031 | 합계 | 94,089,031 |

■ 퇴직적립금 예금명세

(단위 : 원)

| 은행 | 계좌 | 금액 |
|----|-----------|------------|
| 신협 | 172-031- | 1,652,484 |
| 신협 | 154-008- | 1,039,765 |
| 신협 | 172-032- | 2,093,648 |
| 신협 | 150-357- | 16,868,276 |
| 우리 | 1121-801- | 5,961,890 |
| 합계 | | 27,616,063 |

■ 퇴직적립금 재정

(단위 : 원)

| 수입부 | | 지출부 | |
|--------|------------|--------|------------|
| 항목 | 금액 | 항목 | 금액 |
| 이월금 | 24,247,770 | 차기이월금 | 27,616,063 |
| 퇴직금 적립 | 8,196,240 | 퇴직금 지급 | 5,194,780 |
| 이자수익 | 366,833 | | |
| 합계 | 32,810,843 | 합계 | 32,810,843 |

■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단위 : 원)

| 수입부 | | | 지출부 | | | |
|-----|-----------|---------|-----------|---------|---------|---|
| 항목 | 금액 | 항목 | 금액 | | | |
| 이월금 | 297,102 | 차기이월금 | 939,834 | | | |
| 수입 | 분담금 | 900,000 | 지출 | 운영 | 활동비 | - |
| | 후원금 | 166,231 | | 출장/유류비 | - | |
| | 사업비 | - | | 회의/식사비 | - | |
| | 참가비 | 130,000 | 사업 | 교육 | 184,080 | |
| | 결산이자 | 792 | | 기타 | 11 | |
| | | | | 정책 | 133,700 | |
| | | | 홍보 | 236,500 | | |
| 소계 | 1,197,023 | 소계 | 554,291 | | | |
| 수입 | 1,197,023 | 지출 | 554,291 | | | |
| 수입계 | 1,494,125 | 지출계 | 1,494,125 | | | |

[비품 명세]

| | 명 | 수 량 | 취득년도 | 구입금액 | 비고 |
|----------|-----------------|-----|------|-----------|------------|
| 96-01-01 | 잡지꽂이 | 1 | 1996 | | |
| 98-01-01 | 월계획 백색철판 | 1 | 1998 | 50,000 | |
| 00-01-02 | 회의용 탁자 | 2 | 2000 | | |
| 00-02-01 | 강의용 백색철판 | 1 | 2000 | 60,000 | |
| 01-01-11 | 목재 6단 책장 | 11 | 2001 | 950,000 | |
| 02-01-03 | 앵글형 책장 | 3 | 2002 | 60,000 | |
| 02-02-02 | 백색 5단 책장 | 2 | 2002 | | 기증 |
| 02-03-06 | 원탁용 접의자 | 6 | 2002 | 200,000 | |
| 03-01-02 | 키폰 | 2 | 2003 | 560,000 | |
| 03-02-02 | 책장 철재 유리 책장 | 2 | 2003 | | 기증 |
| 03-03-01 | 책장형 파일박스 4단 | 1 | 2003 | 140,000 | |
| 03-04-01 | 원형탁자(소) | 1 | 2003 | 30,000 | |
| 03-05-01 | 철재 캐비닛 | 1 | 2003 | | |
| 03-06-01 | 팩스 목재 받침대 | 1 | 2003 | 100,000 | |
| 03-07-36 | 파티션 | 31 | 2003 | 1,780,000 | 2016 5개 폐기 |
| 03-08-03 | 이동용 책상 | 3 | 2003 | 90,000 | |
| 04-01-01 | 집수레 | 1 | 2004 | 37,800 | |
| 05-01-01 | 필름 스크린 | 1 | 2005 | 600,000 | |
| 05-02-01 | 앰프 | 1 | 2005 | 600,000 | |
| 07-01-06 | 목재 3단 책장 | 6 | 2007 | 1,050,000 | |
| 07-03-01 | 냉난방기(RAS-11) | 1 | 2007 | 1,100,000 | |
| 07-04-01 | 냉난방기(CX-505FX) | 1 | 2007 | 2,300,000 | |
| 07-05-01 | 냉난방기(CX-355F) | 1 | 2007 | 1,850,000 | |
| 07-06-01 | 전기온풍기(REH-221S) | 1 | 2007 | 140,000 | |
| 08-01-01 | 메가폰 | 2 | 2008 | | 기증 |
| 09-01-01 | 프린터키(양크젯) | 1 | 2009 | 115,000 | 2016 폐기 |
| 10-01-01 | 냉온수기 | 1 | 2010 | | 무상임대 |
| 10-02-01 | 레이저팩스 | 1 | 2010 | 375,000 | |
| 10-03-02 | 기부금함 | 2 | 2010 | 120,000 | |
| 10-04-02 | 외장하드(1테라) | 2 | 2010 | 238,000 | |
| 11-01-01 | 데스크탑, 모니터 1 | 1 | 2011 | 670,000 | 2016 폐기 |
| 11-02-01 | 데스크탑, 모니터 2 | 1 | 2011 | 670,000 | 2016 폐기 |
| 11-04-02 | 노트북 1 | 1 | 2011 | 845,000 | |
| 11-05-02 | 노트북 2 | 1 | 2011 | 845,000 | |
| 11-06-01 | 레이저 복합기 | 1 | 2011 | 170,000 | |
| 11-07-01 | 전기주전자 | 1 | 2011 | 26,600 | |
| 12-01-01 | 데스크탑+모니터 3 | 1 | 2012 | 750,000 | |
| 12-02-01 | 노트북 3 | 1 | 2012 | 866,000 | |
| 12-03-01 | 싱크대, 조리대 | 1 | 2012 | 350,000 | |
| 12-04-01 | 근조기 | 1 | 2012 | 250,000 | |
| 12-05-01 | 갓발 | 1 | 2012 | 50,000 | |
| 12-06-01 | 냉장고 | 1 | 2012 | | 기증 |
| 12-07-01 | 원목 긴의자 | 1 | 2012 | | 기증 |
| 12-08-01 | 프린터기(레이저) | 1 | 2012 | | 기증 |
| 12-09-06 | 전화기 | 6 | 2012 | | 기증 |
| 12-10-14 | 목재 6단 책장 | 14 | 2012 | | 기증 |

| | | | | | |
|----------|----------------|----|------|------------|-------------------|
| 13-01-16 | 강의실 접이 책상 | 11 | 2013 | | 기증(2016 2개 폐기) |
| 13-02-18 | 강의실 접이 책상용 의자 | 37 | 2013 | | 기증(2016 9개 폐기) |
| 13-03-01 | 레이저 포인터2 | 1 | 2013 | 60,000 | |
| 13-04-01 | 복사기(Docu 2508) | 1 | 2013 | 1,700,000 | |
| 13-05-03 | 사무용 의자 | 4 | 2013 | | 기증 |
| 13-06-04 | 시스템 업무용 책상 | 4 | 2013 | | |
| 13-07-03 | 소파 | 3 | 2013 | | 기증 |
| 13-08-01 | 소파 테이블 | 1 | 2013 | | 기증 |
| 13-09-02 | 야외 접이 테이블 | 2 | 2013 | 70,000 | |
| 13-10-01 | 음향시스템(회의실) | 1 | 2013 | | 기증 |
| 13-11-01 | 전동스크린(회의실) | 1 | 2013 | | 기증 |
| 13-12-02 | 책상 서랍장 | 2 | 2013 | 70,000 | |
| 13-13-01 | 태양광 발전셋트 | 1 | 2013 | 485,000 | |
| 13-14-01 | 태양열조리기 | 1 | 2013 | 220,000 | |
| 13-15-01 | 회의용 테이블 | 1 | 2013 | | 기증 |
| 13-16-06 | 회의용 테이블 의자 | 6 | 2013 | | 기증 |
| 14-01-01 | 전자저울 | 1 | 2013 | 120,000 | |
| 14-01-02 | 데스크탑+모니터 4, 5 | 2 | 2014 | 300,000 | |
| 14-02-06 | 시스템 업무용 책상 | 6 | 2014 | 90,000 | |
| 14-03-02 | 의자2기 | 2 | 2014 | 30,000 | |
| 14-04-06 | 시스템책상 서랍장 6기 | 6 | 2014 | 60,000 | |
| 14-05-01 | 디지털카메라 | 1 | 2014 | 430,000 | |
| 14-07-01 | 하드디스크 | 1 | 2014 | 93,820 | |
| 14-07-02 | 프린터기(HP 7110) | 1 | 2014 | 500,000 | 기증 |
| 14-12-30 | 쌍안경 | 2 | 2014 | 340,000 | |
| 14-12-31 | 미니애프 | 1 | 2014 | 297,000 | |
| 14-12-31 | 방사능 측정기 | 1 | | | |
| 15-02-11 | 외장하드_2TB | 2 | 2015 | 132,900 | |
| 15-05-27 | 사무용 의자 | 1 | 2015 | 203,500 | |
| 15-05-28 | 사무용 의자 | 1 | 2015 | 203,500 | |
| 15-08-25 | 복합기(MG 3570) | 1 | 2015 | 112,420 | |
| 15-10-14 | 카메라 배터리 | 1 | 2015 | 60,000 | |
| 15-11-07 | 데스크탑 컴퓨터 6 | 1 | 2015 | 610,000 | |
| 15-11-07 | 모니터 6 | 1 | 2015 | 270,000 | |
| 15-12-29 | 수중카메라(HERO4) | 1 | 2015 | 538,200 | |
| 16-01-06 | 216000 아름 천공기 | 1 | 2016 | 145,000 | |
| 16-01-08 | 외장하드 2TB | 1 | 2016 | 119,900 | |
| 16-05-02 | 회원음성녹음전화기 | 1 | 2016 | 85,400 | |
| 16-05-27 | 모니터+데스크탑 컴퓨터 7 | 1 | 2016 | 300,000 | |
| 16-12-30 | 팬히터 | 1 | 2016 | | 기증 |
| 16-12-31 | 자전거 | 1 | 2016 | | 기증 |
| | | | | 25,685,540 | |

정관개정안

<개정안>

광주환경운동연합 정관

전 문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인 “광주환경공해연구회”는 89년 3월 17일 이 땅에서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 환경오염과 공해, 그리고 핵을 추방하여 인간과 자연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창립되었다. 또한 92년 2월 29일 “광주환경공해연구회”의 활동을 발전적으로 마감하고 높아가는 시민들의 공해추방과 환경보전의 절실한 요구를 적극 수렴하기 위해 광주전남지역의 환경운동의 새로운 구심체로서 “광주환경운동시민연합”을 창립하였다.

‘93년 4월 29일 그 동안 환경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건설과 우리나라 민간환경운동의 전국조직 창립에 발맞춰 구조적으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과 파괴로부터 우리의 삶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제3기의 민간환경운동으로 “광주환경운동연합(2000년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에서 명칭 변경)”을 창립하였다.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 현 행 | 개정 안 |
|---|--|
| 본 모임의 명칭은 “광주환경운동연합”, 약칭 “광주환경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 영문명은 “KFEM Gwangju”라 한다. | 본 모임의 명칭은 “광주환경운동연합”, 약칭 “광주환경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 영문명은 <u>“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in Gwangju”, 약칭 Gwangju KFEM</u> 이라 한다. |

제 2조(목적)하늘과 땅과 물 그리고 모든 생태계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들의 생활과 환경운동을 통해 광주와 이 세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터로 가꾸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위상)

| 현 행 | 신 설 |
|-----|--|
| | 환경운동연합은 동일한 목적을 지닌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전문기관의 전국 연합체이고, 국제 환경운동단체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회원이다. 본 연합은 지역 환경운동연합의 지위를 갖는다. 자체 정관에 의해 조직 인선과 운영에 자율성을 가지면서 환경운동연합 운영에 협력할 의무를 갖는다. |

제 3조의 신설로 인해 이하 각 조의 연번 변경함.

제 4조(사무실) 본 연합의 사무실은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 5조(사업) 본 연합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환경문제, 환경운동을 위한 조사.연구
- 2.환경문제의 대안정책 개발 및 제시
- 3.환경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 4.환경운동을 위한 조직
- 5.환경오염 피해 주민의 지원.지지
- 6.국내외 환경관련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의 연대
- 7.기타 본 연합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 6조(자격)

1. 본 연합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의 참여 정도에 따라 자격구분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조(의무)

1. 회원은 본 연합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회원 구분에 따른 회비 금액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조(권리) 회원은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본 연합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본 연합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제 9조(상벌)

1. 본 연합의 발전과 환경운동에 큰 기여를 한 회원, 시민 및 단체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 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징계 할 수 있으며,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장 총회

제 10조(회의) 총회는 본 연합의 최고의결기구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1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60일 한도 내에서 정기총회의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집행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1/2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3. 총회 소집시 의장은 총회에 상정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개최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제 12조(성원) 총회는 전년도 12월말 현재 재적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하며, 부득이 참석하지 못해 위임을 통보한 회원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13조(의결) 총회 의결은 참석한 회원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하며, 위임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 14조(임무)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현 행 | 개정 안 |
|--|---|
| 1. 정관 제정 및 개정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3. 공동의장 및 감사 선출 4. 고문 추대 및 지도위원 위촉 5. 집행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6. 기타 중요사항의 의결 | 1. 정관 제정 및 개정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3. 공동의장, 감사, 집행위원, 사무처장 선출 4. 전국대의원 선출 5. 고문 추대 및 지도위원 위촉 6. 집행위원회가 상정한 안건 심의 및 의결 7. 기타 중요사항의 의결 |

제 4장 조직

제 15조(임원) 본 연합 임원은 공동의장과 감사, 집행위원, 사무처장으로 한다.

1. 공동의장은 본 연합을 대표하며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단 회원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여야 한다.
2. 감사는 2인으로 하고 본 연합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한다.
3. 집행위원회는 상설 의결 및 집행기구로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 사무처장은 사무처를 총괄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6조(임기)

| 현 행 | 개정 안 |
|--|--|
|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의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의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 17조(전국대의원)

| 현 행 | 신 설 |
|-----|---|
| | 1. 환경운동연합의 최고결기기관의 위상을 갖는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

| | |
|--|---|
| | <p>2. 대의원에게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주요 판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등 일상적인 소통과 참여를 도모하여야 한다.</p> <p>3. 전국대의원은 의장1인, 사무처장으로 구성되는 당연직과 회원 100명당 1인의 비례, 반올림으로 선출하는 선출직으로 구성한다.</p> <p>4.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
|--|---|

제 17조의 신설로 인해 이하 각 조의 연번 변경함.

제 18조(자문회의) 본 연합의 제반 사항을 지도하고 자문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1. 자문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하며 고문, 감사, 공동의장, 환경교육원장, 부설연구소 이사장 및 소장와 상임의장이 지명한 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자문회의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9조(고문) 본 연합은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상임고문을 둔다.

제 20조(지도위원) 본 연합은 본 연합을 지도할 수 있는 각계 지도급 인사를 지도위원으로 둔다.

제 21조(후원회) 본 연합은 본 연합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2조(환경상담실) 환경문제와 공해피해를 상담하고 환경권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 환경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3조(자료정보실) 환경관련 자료의 보급과 정보화를 위해 자료정보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4조(환경교육원)

| 현 행 | 개정 안 |
|---|---|
| 제 24조(환경교육원)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회 각계각층에 효율적인 환경교육을 해 나가기 위해 환경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24조(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회 각계각층에 효율적인 환경교육을 해 나가기 위해 <u>환경교육센터</u> 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25조(부설기관) 본 연합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6조(상설위원회) 본 연합은 필요에 따라 기획위원회, 인사위원회, 재정위원회, 사업위원회, 회원위원회 등 상설위원회를 집행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7조(특별위원회) 본 연합은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집행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8조(지역조직 및 회원모임)

| 현 행 | 개정 안 |
|--|--|
| 1. 본 연합은 지역조직과 각 부문에 회원모임을 둘 수 있다. 2. 지역조직 및 회원모임은 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1. 본 연합은 지역조직과 각 부문에 회원모임을 둘 수 있다. 2. <u>지역조직 및 회원모임 설립은 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u> |

제 29조(사무처)

1. 본 연합은 총회 및 집행위원회 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 산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장이 총괄한다.

제 5장 재정

제 30조(재정) 본 연합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재정위원회의 사업수익금, 후원회의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31조(회계연도) 본 연합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32조(예산 및 결산) 사무처장은 사업 및 예결산안을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보 칙

제33조(정치활동 제한) 본 연합의 임원과 부설기관의 장 등 주요 직책을 갖는 회원에 대하여는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부 칙

제 1조(효력발생) 본 정관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개정) 정관 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1/20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총회에서 결의한다.

제 3조(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규정 및 준칙 민주적 관례에 따른다.

1993년 4월 29일 제정
1996년 2월 8일 1차 개정
1997년 1월 21일 2차 개정
1999년 1월 26일 3차 개정
2000년 1월 21일 4차 개정
2001년 12월 27일 5차 개정
2004년 1월 13일 6차 개정
2007년 1월 25일 7차 개정
2009년 1월 20일 8차 개정
2011년 1월 20일 9차 개정

광주환경운동연합

2017 조직구성(안)

【 임.위원 선임 및 사무처 안 】

고문 : 정철웅, 전홍준, 정구선, 안행강, 송인성 성진기, 이근우, 임낙평

감사 : 사업감사 : 오원만(*임기만료)

김상훈=> 선임 안

회계감사 : 김정민(*임기만료)=> 연임 안

■ 공동의장 : 이정애(*임기중) 이인화(*임기중)

박태규(*임기만료) => 연임 안

■ 집행위원회

- 집행위원장 : 박태규

- 당연직 : (각 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국장, 회원모임 대표)

기후보호포럼_ 차인수

녹색감시단_ 정영남

물한방울_ 흥한준_ 국운주,

광주천지킴이_ 모래톱_ 홍기혁

환경통신원_ 김미수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_ 송형일

사무처장_ 최지현

정책실장_ 이경희

- 선임직 : 박덕희, 서영주, 정순일, 조어진, 조영태, 최홍엽, 김홍숙, 박병섭,
박종성, 김태형, 곽민섭, 선종덕 (임기중)

신 임(안) : 신민정(여), 양지만(남)

■ 사무처

- 사무처장(최지현. *임기만료) => 연임 안

- 정책실장(이경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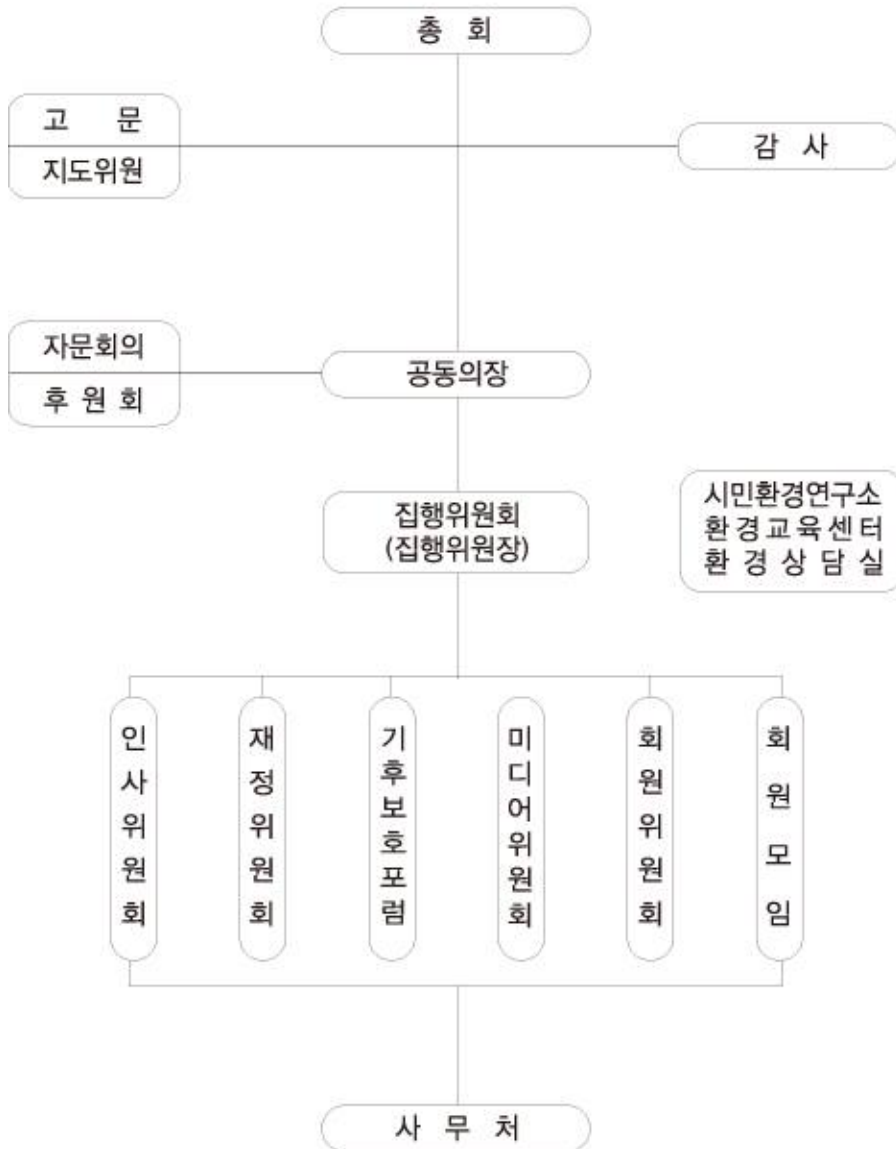
- 팀장(김종필)

- 간사(정은정, 임학진)

■ 부설기관

-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_ 이사장(조진상)

광주환경운동연합 조직도



2017년 사업계획 안

2017년 사업계획 안

□ 배경 및 전망

1. 촛불과 대선, 그리고 사회개혁

- 박근혜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촛불정국, 그리고 탄핵으로 이어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와 행동이 사회의 총체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변화
- 분노로 시작한 촛불의 에너지가 한국 사회의 개혁을 이끌어내는 에너지로 작용, 적폐청산 등 구체적인 국민의 목소리가 모아짐

2. 반환경정책 폐기, 반환경적 대선공약 감시

- 지난해 설악산케이블카 계획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써 박근혜 정부 반환경 정책의 폐기운동 신호탄이 됨.
- 조기대선으로 인해, 반환경정책 폐기와 대선 공약이 연계하여 제기될 것임. 그러나 시간의 한계로 인해 대선 후보와 대선 공약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상황이 빚어질 수 있음.
- 또한 각 정당별 대선 공약과 지역 공약에 대규모 개발 사업과 토목사업들이 포함될 우려가 높음.
- 반환경정책의 폐기와 함께 가슴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 4대강 청문회를 통한 재자연화, 노후원전폐기 및 탈핵 에너지전환 사회의 실현 등 불통의 권위주의에서 소통을 통한 생태민주주의로의 전환의 목소리를 대중화를 만들어야 함.

3. 도시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이끄는 환경정책 만들기.

- 민선 6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도시.환경분야에서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함.
- 도시 열섬, 도시공원의 위기, 도심 및 외곽의 초고층 아파트 개발, 자연녹지의 훼손 등 도시의 환경질이 악화.
- 또한 미세먼지의 심각, 위험한 화학물질 노출 등 도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들이 지속.
- 경제 침체 등으로 개발에 대한 욕구와 보전에 대한 대립과 갈등이 빚

어짐. 도시·환경정책에 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활동 필요

□ 사업기조

- 시민이 만드는 생태도시 광주, 회원이 이끄는 환경운동연합
-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
- 도시 공간 및 도시정책의 공공성 강화
- 정책 감시과 대안제시를 통한 제도 개선

□ 중점사업

1. 참여의 활성화, 홍보의 체계화, 환경교육의 대중화

- 회원과 시민참여 확대, 사회변화와 환경운동의 주체로 자리매김
: 회원참여프로그램, 회원확대캠페인, 회원모임활성화
- 계층별, 관심사별 홍보활동을 체계화, 환경운동의 성과와 아쉬움을 시민들과 공유
: 밝은 삶 맑은터 소식지간행, 홈페이지·SNS 활성화, 미디어홍보위원회 활동력강화
- 교육을 통한 환경운동의 활성화, 인식의 변화에서 삶의 방식의 변화로 실천과 연계
: 환경교육센터로의 전환, 시민환경포럼, 책읽는 강연회, 자원순환교육 활성화

2. 탈핵 에너지전환, 기후보호운동

- 대선에서의 탈핵 에너지전환선언 이끌어내기
- 지자체차원의 에너지전환 계획, 기후행동 계획 실현
- 햇빛발전 확대, 제 2, 제 3의 햇빛발전소 만들기, 햇빛협동조합 지원

3. 도시 공공성 강화 - 생태도시만들기

- 도시개발 및 관리정책의 감시, 대안 제시
- 도시공공성 및 공공교통(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가 편안한 도시)을 위한 연대
-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 공간 만들기

□ 지속사업

4. 광주천·영산강 살리기운동

- 지천 수질보전과 감시활동
- 안전한 수돗물마시기 운동
- 4대강후속 대응- 영산강 재자연화

5. 안전한 생활환경만들기

- (초)미세먼지 인식과 개선 대책 마련
- 차없는 거리 지정운동
- 가슴기 살균제 참사 대응활동
- 생활속 유해화학물질 유해성 홍보 캠페인

6. 자원순환마을만들기

- 쓰레기없는 우리마을 만들기
- 자원순환캠퍼스만들기
- 자원순환 파티

□ 브랜드 사업

- 브랜드사업 T/F팀구성(회원, 임위원, 전문가 등)
- 브랜드사업 실행계획 수립(단기, 중기, 장기)
- : 회원실천활동, 시민홍보 및 참여사업, 정책 및 제도개선 등
- 브랜드 사업 1차년도 사업 수립 및 실행

회원 조직화 사업

□ 사업목적

- 적극적인 회원참여활동을 통한 조직 역량강화
- 회원 확대를 통한 조직 건강성 확보

□ 사업개요

- 회원확대캠페인을 비롯한 회원배가활동
- 생태적 가치를 담은 회원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운영
- 마을 및 지역 회원활동 활성화 및 신규회원소모임 결성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회원들과의 소통

□ 사업내용

1. 회원확대

1) 장기미납회원관리 및 회비증액활동

- 기간 : 1월~3월
- 내용
 - 6개월 이상 회비미납회원에 회원유지여부 및 회비납부여부 확인 후 처리, 탈퇴 및 보류회원 파악. 회원정보 정리 및 수정을 대대적으로 진행
 - 회비증액 권유 활동 (소식지, 웹메일, 전화 등으로 권유)

2) 회원확대 집중 캠페인

- 기간 : 4월~6월
- 내용 : 회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회원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진행함. 효율적이고 회원확대 방안을 마련해 캠페인에 집중
- * 발대식 : 회원체육대회날 함께 진행

3) 회원의 날

- 기간 : 6월말(회원확대 캠페인 종료 후)
- 내용 : 신입회원에게 환경연합 활동을 소개하고 단체에 대한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함. 회원소모임을 소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각각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향후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

2. 홍보활동 및 조직강화사업

1) 회원홍보실무팀 구성

- 기간 : 연중
- 내용
 - 단체홍보 및 회원참여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 홍보활동 : SNS홍보, 카드뉴스 등 온라인 활동/온라인 확산방법 강구 (친구맺기, 리트윗 등)

2) 홍보리플렛 제작

- 기간 : 2월~3월중
- 내용 : 광주환경운동연합 최근활동을 반영하여 홍보리플렛 제작

3) 소식지 배포

- 기간 : 연중
- 내용 : 회원 외 소식지 배포 확대. 상가, 지하철역사 내 등 대중시설에 단체소식지(밝은삶 맑은터)를 정기적으로 배포 모색. 환경연합 활동 홍보 일환.

2. 회원 참여 프로그램 운영

1) 회원체육대회

- 일정 : 4월 29일(토)
- 내용 : 회원과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협동심을 기르고 회원들 간의 친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
- 기타 : 회원확대캠페인 발대식 진행

2) 회원 특성화 프로그램 진행

- 기간 : 연중
- 방법
 - 회원참여활성화 : 대상별, 관심영역별 참여 프로그램 기획
 - 회원문화의 날 : 환경영화 단체관람, 문화특강 등 진행

3) 재능기부의 날

- 기간 : 격월
- 내용 :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체험프로그램 진행

3. 회원조직화 및 위원회 활성화 사업

1) 위원회의 활성화

- 위원회의 전반적인 활성화 모색
- 지도위원 모임 정례화(상하 반기) 및 상시적 자문 협력(전문가 등)

2) 후원의 밤 행사

- 일정 : 11월중
- 내용 : 후원인 분들과 후원회원들을 초청 해 활동보고와 비전제시로 환경운동의 방향을 소개하고, 감사의 뜻을 담은 공연과 캠페인 등을 소개

4. 회원모임 활성화

1) 내용

- : 기타 회원들의 요구 참여 희망에 따라 다양한 회원모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2) 회원모임 운영 및 활성화

[환경통신원]·[녹색감시단]

- 자동차 매연 및 환경오염 현장 고발과 시정 요구 연중 활동
- 정례모임
- 상시적 환경연합 회원프로그램 참여

[물한방을휴한중]

- 문화, 역사, 문학 등을 생태와 접목하여 답사 및 기행 진행
- 개인, 가족 단위의 회원모임으로 활동
- 매월 세 번째 일요일 정기모임 진행
- 구성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회차 별 기획 및 진행 담당 회원을 둠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 기간 : 2월~12월(매월 네 번째 토요일)
- 장소 : 광주천, 영산강
- 내용
 - o 광주천, 영산강답사로 정례모임 진행
 - o 광주천 구간 별 답사 및 모니터링
 - o 광주천 개선방안 제안
 - o 어린이 광주천 생태체험 및 교육 진행
- 월별 계획

| 일자 | 주제 | 장소 | 이끄미 |
|---------|--------------|------------|-----|
| 2월 25일 | 광주천 답사 | 제2수원지~샘골답사 | |
| 3월 25일 | 영산강 답사 | 관방제림~면양정 | 김희련 |
| 4월 22일 | 광주천 답사 | 제2수원지~소태천 | |
| 5월 27일 | 영산강 답사 | 무안 느러지 | 홍기혁 |
| 6월 24일 | 광주천 답사 | 소태천~양유교 | |
| 7월 22일 | 회원교육(식물) | 광주환경운동연합 | 조어진 |
| 8월 26일 | 회원 워크숍 | 단합대회, 쌍봉사 | 이병님 |
| 9월 23일 | 영산강 답사 | 나주대교~영산대교 | 조어진 |
| 10월 28일 | 광주천 답사 | 양유교~상무교 | |
| 11월 25일 | 영산강 답사 | 극락교~승춘보 | 박행림 |
| 12월 23일 | 회원교육, 송년 간담회 | 환경연합 교육실 | |

[시와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 매월 정기모임 개최
- 시와 문학 작품을 낭송 및 감상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고 회원간의 단합, 친목활동 전개
- 문화 공연 참여, 작가와의 만남
- 자작시 창작 및 발표
- 시낭송회 자원활동, 환경운동연합 활동지원

[일곡·양산 모임]

- 일곡양산을 기반으로 북구지역 회원으로 확대
- 매월 정례적인 활동을 통해 회원간의 소통, 생활실천활동 진행

[용용C]

- 매월 정기모임 개최
- 자원순환활동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
- 자원순환교육활동 진행
-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심화교육 진행

4. 홍보활동

1) 소식지 '밝은 삶 맑은터' 발행

- 기간 : 격월 발행. 연중 총 6회.
- 내용 : 광주전남 지역의 환경이슈와 현안, 사무처 활동소식, 회원모임 활동소개, 공지사항 등을 담은 단체 소식지. 회원과 사무처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2) 월간지 '함께 사는 길' 발송

- 기간 : 매월1회
- 내용 : 환경운동연합 부설기관 '함께 사는 길'에서 매월 발행하는 환경전문지 '함께 사는 길'을 구독 희망한 자료회원에게 발송

3) 웹 소식지 '자연지기' 발송

·기간 : 매월 2회

·내용 : 활동소식, 행사안내, 등을 중심으로 하고 환경이슈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구성

4) 홈페이지, SNS활용

·성명서, 보도자료, 등 활동자료 공개하고 시민들과 공유함.

·소셜 네트워크 활용확대를 통한 다각도 홍보, 쌍방향 소통 강화

·미디어 홍보 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환경운동연합 성과홍보

□ 기대효과

- 회원확대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및 장기적 재정안정도 확보

- 회원모임 활성화를 통한 풀뿌리 회원조직 강화, 회원 활동 참여도 향상

- 미디어 홍보를 통한 환경운동연합 활동성과 홍보

[회의 및 위원회 운영]

1. 정기총회 : 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

- 회의: 매년 1월중에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날짜와 시간 정해서 소집

- 내용: 감사보고안, 사업보고 및 결산안, 정관개정안, 임원선임안, 사업 및 예산안 심의

2. 집행위원회 : 상시적 사업 및 조직 운영에 관한 결정 및 집행

- 회의: 정기회의-매월 첫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임시회의-필요시 집행 위원장 소집

- 내용: 사업 및 활동내용, 예산집행에 대한 검토와 추진 방향 논의

3. 자문회의 : 고문, 공동의장, 감사, 부설기관 대표가 참여

- 회의: 정기회의-집행위원회와 분기별로 연석회의, 임시회의- 필요시 공동의장 소집

- 내용: 사업 및 조직 운영 자문

4. 지도위원 모임

-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각계 인사를 중심으로 지도위원 위촉
- 상하반기 각 1회씩 활동보고 및 자문(상시적)

5. 상설위원회

- 인사위원회, 재정위원회, 미디어홍보위원회, 회원위원회, 기후보호포럼
- 신규 활동가 채용 등의 인사업무, 후원의 밤 등 재정사업, 상시적 홍보 활성화, 회원사업 등 조직 운영 및 해당사업 진행시 위원회 별 논의 진행

1) 미디어위원회 : '밝은삶 맑은터' 회원소식지에 대한 논의

-회의 : 격월 1회

-내용 : '밝은삶 맑은터'편집안에 대한 논의(편집위원회)

2) 교육위원회

- 각 소모임 교육 담당 회원들로 위촉 교육 전문가위촉
- 광주환경연합 교육 사업의 방향, 방법, 등을 제시

3) 회원위원회

- 회원확대캠페인 기획 및 추진
- 회원체육대회 등 회원프로그램 기획

6.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임 임원, 활동가 모임

- 전 임원 및 활동가들 모임. 분기별 정례 모임.
- 친목 및 환경연합 활동에 대한 지원, 활동 공유 등

환경교육

□ 사업목적

-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체계화된 환경교육 구축
- 회원, 시민들과 교육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해 소통과 공유
- 교육을 통한 반성과 실천, 지속가능한 삶으로의 전환

□ 사업개요

- 환경교육위원회에서 환경교육센터로의 체계 전환
- 환경현안과 소통하고 싶은 환경이야기에 대한 다양한 시민강좌 개최
- 역량있는 자원순환 시민활동가 양성

□ 사업내용

1. 교육위원회 정례화

- 일자 : 2월~12월, 매월 둘째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 내용
 - 환경운동연합의 환경교육 사업에 대한 기획, 제안, 평가활동
 - 환경교육 진행프로그램의 결과 및 성과 취합
 - 환경교육센터로의 전환을 위한 조직 구성
 - 환경교육센터 창립 논의

2. 시민, 회원 참여 강좌

1) 시민환경포럼

- 일자 : 3월, 9월, 11월
-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실
- 참여자 : 회원 및 시민 30여명
- 내용
 - 지역 및 전국적인 환경이슈를 중심으로 회원들과 소통하고 토론하는 강좌로 진행

2) 책읽는 강연회

- 일자 : 2월, 4월, 9월 10월
- 장소 : 대중적으로 알려진 강좌 가능한 공간 혹은 문화적 공간
- 참여자 : 70여명
- 내용
 - 시민들과 소통하고 싶은 책. 재미있는 책을 선정하고 글쓴이를 직접 초 대하여 강연회 개최
 - 쉽고 편안한 강연회를 지향

4. 어린이 대상 환경 교육

1) 제 1기 환경운동연합 어린이교육 기획팀 구성

- 일자 : 연중
- 내용
 - 어린이교육으로 진행되는 자연나들이,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전담팀 구성 및 운영
 - 1년의 기간동안 연속성을 갖을 수 있도록 함.

2) 자연나들이

- 일자 :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 내용 : 기획팀 구성에 따라 내용을 설정

3) 여름, 겨울캠프

- 일자 : 여름, 겨울방학에 진행
- 내용 : 기획팀 구성에 따라 내용을 설정

5. 자원순환시민활동가 용용C

1) 자원순환시민활동가 용용C 정기모임

- 일자 : 매월 둘째주 화요일
- 내용
 - 현재 운영진(회장, 부회장, 총무)을 중심으로 정기모임을 진행
 - 활동에 대한 계획 및 평가를 통해 자원순환활동의 전문성을 강화

2) 자원순환교육 진행

- 기간 : 연중
- 내용
 - 초등학교, 중학교 자원순환교육 진행
 - 현재 개발된 3개의 프로그램 외에도 중학교프로그램, 성인 프로그램의 개발 진행
 - 다양한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활동 진행

6.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

- 기간 : 연중
- 내용
 - 모래톱의 하천교육, 자원순환교육, 어린이 자연나들이 등의 교육프로그램은 UNESCO 환경교육 인증, 환경부 초록지팡이 등 평가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함.
 - 교육프로그램의 체계화를 통해 환경교육센터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연합의 정체성 실현. 이를 통한 환경운동연합 홍보 및 회원확대
- 지속적인 환경교육 체계 마련으로 환경연합의 조직 및 활동력 확보
- 환경교육의 신뢰성 확보(참여자 만족도 향상),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확대

기후에너지

[기후보호 및 에너지 전환운동]

□ 사업목적

- 공공분야, 사적 분야별 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
- 지역 에너지 정책의 대안 모색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계획 마련

□ 사업개요

- 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민의견과 정책들을 활성화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활동
- 핵발전소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시민대상 탈핵 홍보 및 교육활동, 시민 참여활동 발굴

□ 사업내용

1.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한 정책제안 활동

1) 재생에너지 정책 제안 활동

- 기간 : 연중
- 내용
 - 지역내 에너지자립 관련 연구 및 정책활동 조사
 -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연대활동(공동토론회, 정책제안, 입법(조례 등)) 추진

2) 신재생에너지관련 법률, 조례, 정책 모니터링

- 기간 : 연중
- 내용 : 신재생에너지관련 법률, 조례,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반영되어 진행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결과에 따른 대응활동

3) 재생에너지관련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활동

- 기간 : 연중

- 내용 : 재생에너지 갈등 사례 추가 조사, 관련 제도 개선 노력과 시민의 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및 정책 제안 활동, 재생에너지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조례 및 행정지침

2.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한 실천활동

1) 햇빛교실

·기간 : 하반기

·대상 : 가정용, 상업용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싶은 광주시민

·내용

- 시민대상 햇빛교실을 개최하여 태양광발전 설치를 위한 정보제공
- 재생에너지와 지역자립에너지의 이해
- 태양광발전 시설의 이해 : 발전원리, 모듈(단결정, 다결정), 인버터 등
- 태양광발전 시설조성을 위한 관련제도와 절차 : 행정절차, 관련서류, 고려사항, 이용방법과 판매방식
- 기타 : 좋은업체 선정하는법, 기타 태양광발전 제도 등

2) 태양광발전 참가단 구성 및 운영

· 기간 : 연중

· 방법 : 광주시 아파트베란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참가자, 개별설치시민으로 태양광발전 참가단 구성

· 활동

- 태양광시설 보급사업과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참가후기 등 작성
- 에너지 절약을 위한 생활환경컨설팅, 실천활동 / 결과 공유 및 홍보

3. 기후보호포럼

·기간 : 상반기

·내용

- ‘기후보호포럼’조직 정비 및 활성화
- 기후관련 지역의 현안진단, 의제발굴, 정책제안 등을 위한 포럼 개최

□ 기대효과

- 광주전남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점검과 제안으로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 로 하는 지역에너지 대안정책 생산
- 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한 지역여건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만들기에 기여
- 햇빛교실, 태양광발전 참가단 등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적극적인 시민 운동전개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광주 로드맵 만들기]

□ 사업목적

- 98% 외부의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광주의 에너지자립을 높이기
- 8년뒤 수명이 다하는 영광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없는 폐로
- 시민 참여의 지역에너지 정책만들기

□ 사업개요

- 로드맵 작성그룹 운영
- 탈핵에너지전환도시- 광주만들기 워크숍 및 토론회
- 탈핵에너지전환도시 시민선언
- 2018년 광주시장 후보에게 제안할 로드맵 작성

□ 사업내용

1. 탈핵에너지전환도시- 광주 로드맵 작성그룹 운영

1) 로드맵 작성그룹 기획팀

- 기간 : 2월
- 내용 : 작성그룹의 활동방향, 일정, 구성원에 대한 논의, 방향설정

2) 로드맵 작성그룹 구성 및 운영

- 기간 : 3월~12월
- 내용
 - 시민, 전문가, 관련 기업 등 관심있는 시민이 누구나 참여해서 함께 학습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룹 운영
 - 그룹별 혹은 공동토론 등의 활동을 진행

2. 탈핵에너지전환도시- 광주만들기 워크숍 및 토론회

- 일정 :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내용 : 로드맵 그룹의 활동과정에서의 성과에 대한 워크숍, 국내외 도시별 에너지전환도시 수립과정에 대한 토론 등을 진행

3. 안전과 평화를 실현하는 탈핵에너지전환도시 시민선언

- 일정 : 12월
- 장소 : 광주시청 앞 광장 혹은 5.18민주광장
- 내용 : 탈핵에너지전환도시 광주선언에 함께 하는 시민들의 이름의 시민선언활동 진행

4. 2018년 광주시장 후보에게 제안할 로드맵 작성

- 일정 : 12월~2018년 1월
- 내용
 - 2018년 6월, 진행되는 지자체선거에 출마하는 광주시장들에게 탈핵에너지전환도시- 광주 로드맵 전달
 - 지자체장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에너지전환을 통해 안전한 도시, 정의로운 도시 광주를 구현
- 시민들이 에너지문제에 직접적인 당사자로 활동하고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에너지정책전환을 이끌어내는 주체가 됨.

[시민햇빛발전소]

□ 사업목적

- 시민이 직접참여하여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 기후변화와 핵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

□ 사업개요

-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호기 건설 및 2호기 건설 추진활동

□ 사업내용

1.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호기 건립

- 기간 : 상반기
- 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및 전기생산 /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호 준
공식

2. 광주시민햇빛발전소 2호기 건설 추진활동

- 기간 : 상반기
- 내용 : 준비위원회 구성, 목표용량 및 부지조사, 예산마련 등

3. 에너지 교육 및 조합 홍보활동

- 기간 : 연중
- 내용 : 조합원 및 시민대상 에너지 교육, 대외홍보활동

4. 조합원 에너지 컨설팅

- 기간 : 연중
- 내용 : 재능기부를 통한 조합원 대상 주거공간이나 사무공간 에너지컨설팅.

5. 햇빛발전협동조합 웹소식지 발행

- 횟수 : 분기1회(총4회)
- 내용 : 태양광발전 현황, 조합활동 소식, 기타 내용 등

6. 정기총회

- 일자 : 2월 21일
- 내용 : 2016년 사업보고 및 재정결산 보고, 2017년 사업계획안 및 조직
구성안, 예산안 결의

□ 기대효과

-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소 건립 및 태양광발전소 확대
- 시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대규모 집중적 에너지 생산방식
에서 분산형 지역에너지 구축에 기여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

□ 사업목적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생산하고, 자연환경과 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한·중·일의 석탄발전소 확대 저지
-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탄소저감실천활동 확산을 교육활동 전개

□ 사업개요

- 한·중·일 석탄화력발전 확대정책 저지를 위한 공론의 장 마련
-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탄소저감실천활동에 기여하는 한·중·일 공통교육교재 개발

□ 사업내용

1. 동아시아 석탄화력발전소 국제세미나 개최

- 기간 : 4월 or 5월
- 내용
 - 2016년 일본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기후포럼에서 석탄화력발전 문제는 동아시아 기후변화 대책에서 공통적인 주요 과제로 확인. 각국의 석탄화력발전과 에너지 기후 정책 현황, NGO의 석탄화력발전 반대 활동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공동의 행동 전략을 구상함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맞춰 NGO의 공동 입장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정부에 요구를 전달.

2. 한·중·일 기후변화 교재 공동개발

- 기간 : 연중
- 내용 :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 연대단체들이 각각의 학습자료, 학습기구,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한·중·일 공동교재를 개발하여 제작, 활용함

□ 기대효과

- 한중일 3개국의 기후정책 감시활동과 지속적인 동아시아 연대 활동과 교육활동 전개

탈핵운동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 사업목적

- 광주전남의 탈핵 현안에 대해 함께 연대하는 조직으로써 행동력을 강화
- 전국 탈핵행동, 탈핵지역대책위 등과의 연대를 통해 국내 탈핵에너지정책의 전환기 마련
- 탈핵, 에너지전환운동의 대중화
- 탈핵 시민활동가 발굴 및 역량강화

□ 사업개요

-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서명운동 등 전국연대활동 진행
- 광주전남 탈핵행동 운영위원회의 정례화
- 탈핵강사양성교육, 탈핵시민교육 등 진행

□ 사업내용

1.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조직 운영

- 사무국 : 광주환경운동연합
- 대표자 : 광주여성단체연합, 영광공동행동, 한 살림, 불교환경연대 대표자로 구성
- 운영위원회 : 참여단체 사무국처장으로 구성
- 정례 운영위원회 회의 : 매월 셋째주 수요일
- ※ 참여단체 확대 및 기존

2.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서명운동

- 기간 : 1월~대선 전
- 내용 : 전국 탈핵진영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서명운동에 광주전남지역 시도민의 탈핵의지를 모으고 대선 공약으로 탈핵선언을 이끌기 위해 매주 토요일 서명운동전개

3. 탈핵캠페인

- 기간 : 4월~12월
- 내용 : 매월 1일 탈핵캠페인의 전개, 참여단체들이 주관하여 각 단체별 특성과 기획에 따라 다양한 형태(순례, 거리 서명, 거리 포퍼먼스, 문화행사)로 진행

4. 제 2기 탈핵강사양성교육

- 기간 : 5월~12월
- 내용 : 시민대상의 탈핵에너지교육을 진행할 탈핵강사 양성교육

5. 3.11후쿠시마 6주기 기념행사

- 일자 : 3월 11일(토)
- 장소 : 5.18민주광장 등
- 내용 : 시민들과 소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의 전시부스 등 운영
3.11 후쿠시마 6주기를 기념하고 대선 정책에 탈핵의 시민요구를 모아감.
주말 촛불 광장과 연계한 탈핵마당 운영

6. 찾아가는 탈핵교육

- 기간 : 연중
- 내용 : 교회, 성당, 사찰, 생협모임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탈핵교육 진행
2017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진행

7. 전국연대 활동

- 기간 : 연중
- 내용 : 탈핵지역대책위, 영광탈핵행동, 전국탈핵행동 등 연대조직에 참여

□ 기대효과

- 탈핵에너지전환운동에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함으로써 탈핵운동의 대중화를 꾀함
- 탈핵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모아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이끔.

- 지역내 탈핵의제를 환경그룹뿐 아니라 청소년, 여성, 생협, 종교계 등으로 확산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서 탈핵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공유함.

생태도시만들기

□ 사업목적

- 토지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 모두를 위한 도시 만들기
- 도시 공간의 공공성 강화
- 도시의 막개발이 아닌, 재생을 바탕으로 한 도시 관리로 전환

□ 사업개요

- 도시교통, 도시개발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
- 도시공원의 민간공원 방식에 대한 공정성, 공공성 감시
- 민선 7기의 도시정책 방향 수립 제안

□ 사업내용

1. 도시교통의 공공성- 편안한 대중교통, 안전한 보행

1) 광주의 공공교통 네트워크 구성

- 기간 : 연중
- 내용 : 장애인, 여성,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생물학적 약자그룹들에게 편안한 도시교통이 모두에게 편리한 교통임을 인식하고, 도시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2) 광주의 교통정책에 대한 진단 및 대안 모색 워크숍

- 기간 : 3월 6월 9월
- 내용 : 광주의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를 주제로 광주의 상황을 진단하고 평가, 대안을 제시하는 워크숍 진행

3)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교통

- 기간 : 5월~9월
- 내용 : 공공교통 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도시교통의 의제를 발굴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진행. 시민이 꿈꾸고 만들어가는 도시- 광주 만들기, 안전한 도시교통, 약자를 배려한 교통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사업 진행

2.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감시

- 기간 : 2월~3월
- 내용 ; 광주시의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도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에 대한 평가와 도시개발관련 심의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마련, 2016년의 광주시 도시정책의 평가 발표.

3. 민간공원, 장기 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공공성, 공정성 감시활동

- 기간 : 연중
- 내용 : 2017년 광주의 민간공원 추진 방침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이 개발되는 상황으로 바뀜. 민간공원의 개발의 방식에 대한 감시활동 전개(민간공원- 현재 10개 공원을 대상으로 하며, 미조성공원의 일부를 개발(30%)하고, 70%를 공원으로 기업이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식)

□ 기대효과

- 도시정책 및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임으로써 시민을 위한 도시정책 수립을 이끔
- 도시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도시민 모두의 생활환경의 질, 도시 서비스의 질을 높임.
- 도시의 교통, 공원 등 다양한 도시운동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연대를 강화함.

광주천 · 영산강 살리기 운동

[지천 수질보전·감시활동]

□ 사업목적

- 지천의 현장답사, 정화활동을 통한 하천 살리기
- 시민활동으로 하천보전 의식 확산
- 복개하천 복원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

□ 사업개요

- 광주의 하천관리 사각지대 주변의 주민센터와 연계한 주민 교육 및 계도
- 하천관리 사각지대 답사 및 정화활동 전개
- 광주 옛 물길 찾기

□ 사업내용

1. 하천 살리기 운동

1) 주민 지킴이 교육

- 기간 : 5~6월
- 장소 : 평동주민센터, 동곡주민센터 등
- 내용 : 하천관리 사각지대인 평동천 주변의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주민 교육 및 계도 실시_하천보전을 위한 주민의 역할, 하천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한 강연회 실시.
- 대상 : 지역 주민

2) 정화활동

- 기간 : 10월~11월
- 장소 : 평동천 일대
- 내용 : 불법 투기 및 소각되고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 정화활동, 투기 근절을 위한 후속 대응 등
- 대상 : 광주자원봉사단, 학생 등

2. 광주 옛 물길 찾기

- 기간 : 3월~11월
- 장소 : 서방천, 동계천, 용봉천 등
- 내용 : 월별로 복개된 하천의 옛 물길 조사 및 기록, 물길을 표시하는 퍼포먼스 진행, 복원방안에 대한 논의
- 대상 : 광주 환경단체, 학생 등

□ 기대효과

- 정화활동을 통한 수질개선효과
- 하천관리 및 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제고

[안전한 수돗물 마시기 운동]

□ 사업목적

- 안전한 수돗물의 인식 확산
- 수돗물 직접 음용의 대중화 및 공공적 가치 확산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돗물 검사와 관리요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음용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수돗물에 대한 교육
- 안전한 수돗물 마시기 캠페인
- 간담회, 토론회 개최

□ 사업내용

- 안전한 수돗물 마시기 운동
 - 기간 : 연중
 - 내용 : 안전한 수돗물 마시기 교육 및 캠페인(정수기, 생수의 사용실태와 문제점 알리기, 수돗물의 안전성 등), 시민, 시의회, 전문가 등과 안전한 수돗물 마시기를 위한 간담회 개최

□ 기대효과

-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해소
- 안전한 수돗물 관리 유도

[4대강사업 후속 대응 - 영산강 살리기 운동]

□ 사업 목적

- 4대강사업 이후 변화, 악화된 영산강 모니터링과 대안 모색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영산강 조사 틀 마련
- 영산강 친수구역 개발 저지
- 영산강 재자연화 공론화 및 강 살리기 시민참여 확대

□ 사업 개요

-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의 생태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을 전문가, 지역시민단체, 지역민과 조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함
- 영산강을 되살리는 방안모색과 실현을 위해 지역주민, 단체,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추진
- 녹조, 수질, 퇴적토, 생태환경 등을 조사
- 영산강 복원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 등을 실시
- 영산강 하구언 부분해수유통 요구 활동

□ 사업내용

1. 물의 날 기념행사

- 일자 : 3월 22일
- 내용

- 영산강 친수지구 현황과 관리실태, 4대강사업 이후 생태계의 변화, 영산강 하구언 부분해수유통을 위한 활동계획 등

2. 영산강 조사사업

- 기간 : 2월~12월(연중)
- 내용

- 하천 수질 및 퇴적토 공동조사 계획 수립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영산강 생태, 환경 변화 조사(상시조사)
- 녹조 발생 시기와 현황 파악
- 4대강 사업 보상 받고 떠난 주민 인터뷰, 설문 등을 통한 사회영향조사

3. 영산강 복원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

- 기간 : 연중
- 내용 : 조사 내용과 정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영산강 진단. 호소 환경으로 변한 영산강의 문제 인식, 물이 흐르는 강으로의 복원 과제와 방향 등을 주제로 지역별 간담회 실시
 - 영산강 모니터링 활동 공유
 - 4대강사업 이후 승촌보, 죽산보가 하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진단
 - 계속되는 하천부지 개발 확대 정책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 하구언 생태복원 협의회 활동_하구둑으로 인한 영산호 수질 및 생태성 악화의 문제와 대책(해수유통을 위한 지역 공감대 확산)

4. 영산강 현황에 대한 홍보

- 4대강사업 이후의 영산강의 현장 사진 기록, 온라인 홍보 등
- 영산강 친수구역 개발 대응활동
- 본래의 아름다운 우리강의 모습, 대안적 복원 기대를 위한 홍보 활동 전개

5.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연대 활동

1) 제 12회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 기간 : 7~8월 중
- 장소 : 영산강 일대
- 내용 : 100여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영산강 도보순례, 영산강 유역의 주요 시·군을 탐사. 영산강의 수생태환경 조사, 퍼포먼스 등

2) 제 9회 영산강 살리기 한마당

- 기간 : 12월 중
- 내용 : 권역별로 영산강과 지류하천을 보전하기 위해 진행했던 활동과 성과 공유

□ 기대효과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영산강 조사 틀 마련을 통해 영산강 복원을 요구하는 기초자료 축적
- 하천 난개발 저지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공감대 확산
- 건강한 강하천 복원, 물정책 평가와 개선 기대
- 하구언 생태복원을 위한 부분해수유통의 필요성 확대
- 바람직한 하천살리기 복원 방향에 대한 공론화, 시민참여형, 주민참여형 하천살리기와 지속가능한 하천에 대한 이해 확산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

[대기질 개선 사업]

□ 사업목적

- 지속적인 대기환경개선 캠페인을 통한 시민인식제고
- 정책토론회를 통해 특히 초미세·미세먼지문제를 중심으로 예·경보제 홍보 및 기준강화 요구
- 어린이 등 취약자를 위한 보호책 및 교육 마련

□ 사업개요

- 초미세, 미세먼지 예경보제 모니터링 및 홍보
- 대기질 취약학교 중심으로 대기질 개선 캠페인 및 교육진행
- 토론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지방정부 등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실현할 수 있도록 촉구함.

□ 사업내용

1. 초미세먼지 피해저감 사업단 리빙랩 운영

- 기간 : 1월~2월
- 내용
 - 초미세먼지 원인, 피해대책에 대한 관련업무담당자·전문가 심층조사
 - 정화제품(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모바일 앱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

2. 미세먼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 일자 : 4월 중
- 대상 : 전문가, 시민, 행정
- 내용 :
 - 미세먼지현황 공유하고 개선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진행함.
 -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천사례를 소개하고 지역상황에 맞는 개선 정책을 도입·실현할 수 있도록 요구함.

3. 미세먼지‘오늘, 어디까지 보이나요?’

- 기간 : 4월~6월
- 내용 : 미세먼지 교육 및 캠페인의 일환으로 무등산 등 광주의 상징적인 장소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시민들이 가시거리 측정·기록하여 홍보

4. 깨끗하고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교육 및 캠페인

- 기간 : 9월~10월
- 대상 : 광주지역 초·중학교 5개
- 내용 :
 - 미세먼지와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수업 실시
 - 교육 참여자와 함께 통학로 캠페인 전개(승용차 이용자체, 학교 앞 공회전금지 등)

5. 차 없는 거리 지정운동

- 기간 : 9월
- 내용 :
 - 자동차와 환경문제, 기후문제, 에너지문제, 공동체 문제에 대한 공론화
 - 금남로 차 없는 거리 등 지역적 특성과 현황 고려하며 차 없는 거리 상징화, 대중교통전용존 등 지속적인 실현 방안 모색

□ 기대효과

- 초미세, 미세먼지와 건강 문제 관심제고
- 대기질 개선안 대책마련 공론화 및 제도개선
- 어린이 등 취약층, 취약지구에 대한 대책 촉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응]

□ 사업목적

- 최근 남영전구 수은누출사고, 세방산업 TCE배출 등 지역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부실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으로 안전문제의 원인이 되는 바,

-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강화요구 등 지속적 대응 필요
-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성 인식제고를 통해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
 -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대응 전문인력 구축 및 네트워크 형성

□ 사업개요

- 유해화학물질 대응 및 개선운동
-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유해성 홍보 캠페인
- 유해화학물질 관리 지자체 대책 조사, 관련 간담회

□ 사업내용

1. 유해화학물질 대응 및 개선운동
 - 기간 : 연중
 - 내용 :
 - 유해화학물질사고 발생 시 상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 우려 기업체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
 -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대응과 시민들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지원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
2. 가습기살균제참사 대응활동
 - 기간 : 연중
 - 내용 : 지역피해자를 중심으로 피해자 찾기,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함
3.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유해성 홍보 캠페인
 - 기간 : 4월~9월/월 2회
 - 내용 : 생활 속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용품 속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시민에게 SNS를 통해 홍보하고 경각심을 깨닫게 함.
4. 유해화학물질 관리 개선방안 간담회
 - 일자 : 9월 중
 - 내용 : 전문가, 시민, 행정 참여.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 구체적 실천

사례 소개와 더불어 우리지역의 유해화학물질 관리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방안 강구와 실천을 위한 간담회

□ 기대효과

-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시민인식확산 및 대안실현 기대
- 유해화학물질관리관련 법률 및 조례 제정·도출 촉구
-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관리현황 및 대책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감시·견제의 역할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 사업목적

- 지역 내 대학교대상 캠페인 및 교육을 통해 자원순환 문화정착을 유도하고, 교내 쓰레기문제를 진단하여 개선안을 모색·실현하는 실천사례 만들기
- 일회용품 사용자제(일회용 컵, 비닐 등)에 대한 일상적인 캠페인 실시 및 정책요구

□ 사업개요

- 쓰레기 문제해결 및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실천을 대학중심으로 추진함.
- 대학교 내 자원순환교육, 캠페인 등 실천사례 만들기
- 지자체별 마을사업과 자원순환 강사단 등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쓰레기 감축사례 개발

□ 사업내용

1. 사업추진단 조직 및 운영

- 기간 : 4월~10월
- 내용 : 추진단, 기관담당자, 전문가와 조직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회의 진행. 사업일정·내용 공유, 역할분담, 추진과정에서의 평가개선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2. 쓰레기 없는 우리 마을 만들기

- 기간 : 5월~7월
- 내용 : 마을사업과 연계하여 일회용품 안 쓰기, 분리배출 활성화 등 자원순환 목표를 지정하고 자원순환마을 모델 구축 및 확대

3. 자원순환캠퍼스 협약체결

- 기간 : 4월
- 내용 : 사업대상 대학과 자원순환캠퍼스 만들기를 위한 협약 체결 및 상호협력 약속

4. 자원순환 캠퍼스 실천사례 만들기

- 일정 : 4~10월
- 내용 :
 - 이면지 활용확대 활동 : 이면지함 설치 확대 및 사용실태 모니터링, 이면지로 레포트 제출하기 캠페인 진행
 - 1회용 컵 사용절감 활동 : 텀블러사용 활성화캠페인, 교내카페 다회용 컵 사용협약 체결

5. 자원순환 PARTY

- 일정 : 9월
- 내용 : 자원순환 나눔장터 및 재활용 작품 전시회, 감량 성과 및 개선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행사 개최

□ 기대효과

- 일회용품 사용 자제 캠페인으로 시민인식제고, 자원순환 기반 마련, 모델구축
- 다양한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참여, 실천방안 발굴

지역 및 전국 연대

[전국환경운동연합]

1. 전국대의원대회/ 년 1회, 전국대의원 참여
2. 대표자회의/ 년 2회
3. 전국 국처장단회의 / 격월, 필요시 소집
4. 광주전남 사무국 회의/ 분기별 1회, 필요시 소집
5. 광주전남 임원활동가 수련회 / 반기별, 년 2회
6. 전국환경운동연합 대의원 워크숍 / 격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1. 운영위원회 / 매월
2.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
 - 어등산, 도시정책 등 시민협이 중심이 되어 대응하는 지역 현안 공동 대응
3. 연대활동
 - 박근혜퇴진, 대선 정책활동 등 광주지역시민사회가 공동의 연대활동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 운영위원회
2. 거버넌스 실천사업 분과별 참여
3. 생태문화마을 만들기
4. 기타 협력 사업 진행(푸른광주의 날 등)

[지구의 날 기념 행사위원회]

- 일자 : 4월 22일(토)
- 장소 : 금남로 일원
- 주관 : 2017 지구의 날 광주위원회
- 간사단체 : 시민생활환경회의
- 내용 :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을 주제로 한 시민환경축제 개최,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해 시민 홍보활동 등, 기획단 참여.

[전국현안 대응]

- 대선공약에 대한 검증, 새로운 정부의 환경정책 제시, 각종 개발 현안 및 박근혜 환경정책 폐기활동 등
- 가습기 살균제, 탈핵, 4대강 사업 등 연속사업에 대한 연대

2017년 예산(안)

2017년 예산(안)

(단위 : 원)

| 수 입 부 | | 지 출 부 | | | | |
|------------------|-------------|-----------------------|---------------------------------|--------------|------------|------------|
| 이월금 | 13,573,895 | 경 상 비 | 공과금(통신, 관리비 등) | 6,240,000 | | |
| 회 비 | 162,000,000 | | 소모품 및 수선비 | 1,800,000 | | |
| | | | 비품 구입비 | 2,000,000 | | |
| | | | 후생복지 | 15,771,560 | | |
| | | | 보험료 | 8,420,600 | | |
| | | | 인건비 | 125,407,590 | | |
| | | | 계 (47%) | 159,639,750 | | |
| 평 생 회 원 | 6,000,000 | 사 업 비 | 중 점 · 연 속 사 업 | 환경교육 | 24,000,000 | |
| | 5,040,000 | | | 탈핵, 기후보호운동 | 22,000,000 | |
| | | | | 173,040,000 | 생태도시 | 22,000,000 |
| | | | | | 광주천영산강 살리기 | 22,000,000 |
| 후 원 금 | 70,000,000 | | | 자원순환 | 10,000,000 | |
| | | | | 브랜드 사업 | 5,000,000 | |
| | | | | 정기간행물(회보,잡지) | 22,440,000 | |
| | | | | 홍보물제작,우편,수수료 | 12,000,000 | |
| 회 보 광 고 | 500,000 | | | 회원모임 지원 | 2,800,000 | |
| | | | | 회원 조직 및 참여사업 | 12,000,000 | |
| | | 홈페이지, 자료실 운영 | 3,300,000 | | | |
| 계 (21%) | 70,500,000 | 조 직 · 연 대 | 정기총회 및 회의 | 4,800,000 | | |
| | | | 후원의밤 | 4,000,000 | | |
| | | | 전국 지역 연대 | 11,000,000 | | |
| | | 계(52%) | 177,340,000 | | | |
| 사 업 비 | 70,000,000 | 기 타 | 기 타 | 기타 | 20,250 | |
| | 12,000,000 | | | 예비비 | 3,000,000 | |
| | 82,000,000 | | | 계 (1%) | 3,020,250 | |
| 600,000 | | | | | | |
| 기 타 | 286,105 | | | | | |
| | 886,105 | | | | | |
| 계(100%) | | 총 계(100%) | | 340,000,000 | | |

2016년 결산 대비 2017년 예산(안) 비교

(단위 : 원)

| 수 입 부 | | | 지 출 부 | | | | |
|-----------------------|--------------|-------------|------------------|---------------------|-----------------|------------|------------|
| | 2016 | 2017 예산안 | 항목 | 2016 결산 | 2017 예산안 | | |
| 이월금 | 14,736,581 | 13,573,895 | | | | | |
| 회 비 | 어린이·청소년회원 | 151,191,000 | 상 비 | 공과금 (통신 관리비) | 6,149,665 | 6,240,000 | |
| | 일반회원 | | | 스모품 및 수선비 | 1,008,780 | 1,800,000 | |
| | 가족회원 | | | 비품구입비 | 1,059,300 | 2,000,000 | |
| | 단체회원 | | | 후생복지(퇴직금 등) | 12,811,790 | 15,771,560 | |
| | 평생회원 | 0 | | 6,000,000 | 보험료 | 7,051,850 | 8,420,600 |
| 특별(임원) | 4,000,000 | 5,040,000 | 인건비 | 113,935,855 | 125,407,590 | | |
| 계 | 155,191,000 | 173,040,000 | 계 | 142,017,240 | 159,639,750 | | |
| 후 원 금 | 후원의밤/ 기부금 | 59,132,900 | 사 업 비 | 환경교육 | 21,173,677 | 24,000,000 | |
| | 회보광고 | 0 | | 중점 및 연속 사업 | 기후보호, 탈핵 | 16,730,784 | 22,000,000 |
| | 계 | 59,132,900 | | 상대도시 | 9,643,556 | 22,000,000 | |
| 사 업 비 | 민간협력 사업 | 58,080,900 | 사 업 비 | 영산강 광주천 살리기 | 17,299,320 | 22,000,000 | |
| | 교육참가비 | 13,959,600 | | 지원순환 | 16,201,743 | 10,000,000 | |
| | 계 | 72,040,500 | | 브랜딩사업 | | 5,000,000 | |
| 기 타 | 자료대여 | 600,000 | 조 직 연 대 | 정기간행물 (회보 잡지) | 16,724,000 | 22,440,000 | |
| | 대여금 상환 | 2,000,000 | | 홍보물제작, 우편 수수료 | 6,547,600 | 12,000,000 | |
| | 차입금 | 5,000,000 | | 회원모임 지원 | 1,330,500 | 2,800,000 | |
| | 이자 및 기타수익 | 587,217 | | 286,105 | 회원 조직 및 참여사업 | 6,943,090 | 12,000,000 |
| 계 | 8,187,217 | 886,105 | 홈페이지, 자료실 운영 | 1,385,200 | 3,300,000 | | |
| 당 해 년 총 계 | 295,311,617 | 326,426,105 | 기 타 | 정기총회 및 회의 | 3,575,660 | 4,800,000 | |
| | 계 | 310,048,198 | | 340,000,000 | 후원의 밤 | 2,890,500 | 4,000,000 |
| | 계 | 310,048,198 | | 340,000,000 | 전국 지역 연대 | 11,723,033 | 11,000,000 |
| 계 | 310,048,198 | 340,000,000 | 장기 발전 기금 | 17,000,000 | | | |
| | | | 차입금 상환 | 5,000,000 | | | |
| | | | 기타 지출 / 예비비 | 288,400 | 3,020,250 | | |
| | | | 계 | 22,288,400 | 3,020,250 | | |
| 당해년 총계 | 295,311,617 | 326,426,105 | 차기 이월금 | 13,573,895 | - | | |
| 계 | 310,048,198 | 340,000,000 | 총 계 | 310,048,198 | 340,000,000 | | |

2017 예산 세부(안)

■ 수입(안)

(단위 : 원)

| 관 | 항 목 | 금 액 | 내 역 |
|-------------|------------|-------------|---|
| | 전년도 이월금 | 13,573,895 | (4%) |
| 회 비 | 어린이·청소년 회원 | 6,000,000 | 5,000×100인×12개월 |
| | 일반·자료 회원 | 25,200,000 | 5,000×420인×12개월 |
| | | 72,000,000 | 10,000×600인×12개월 |
| | | 28,800,000 | 15,000×160인×12개월 |
| | 가족회원 | 18,000,000 | 20,000×75가족×12개월 |
| | 단체·기업 회원 | 12,000,000 | 50,000×20곳×12개월 |
| | 평생회원 | 6,000,000 | 2,000,000×3인 |
| | 특별회비(임원) | 5,040,000 | 420,000×12개월 |
| | 소 계 | 173,040,000 | (51%) |
| 후 원 금 | 후원·기부금 | 70,000,000 | 후원의 밤 및 연중 기부 |
| | 회보광고 등 | 500,000 | 100,000×1곳×5개월 |
| | 소 계 | 243,040,000 | (21%) |
| 사 업 비 | 민간협력사업 | 70,000,000 | 10,000,000×2개(생태도시, 자원순환) 10,000,000×2개(기후보호, 탈핵) 10,000,000×2개(하천살리기) 10,000,000×1개(생활안전, 조사사업) |
| | 교육참가비 | 12,000,000 | 1,500,000×8회 |
| | 소 계 | 313,040,000 | (24%) |
| 기 타 | 자료대여, 판매 등 | 600,000 | 자료 대여 및 판매 등 |
| | 기타 | 286,105 | 이자수익 및 기타 |
| | 소 계 | 313,640,000 | (1%) |
| 수입 | | 326,426,105 | |
| 수입총액 | | 340,000,000 | (100%) |

■ 지출(안) I _경상비

(단위 : 원)

| 관 | 항 | 목 | 금 액 | 내 역 | |
|-------------|-------------|--------------|-------------------|--|-------------------|
| 경 상 비 | 운 영 비 | 통신, 관리비 | 6,240,000 | 전화통신비 1,440,000=120,000×12월 | |
| | | | | 건물관리비 4,800,000=400,000×12월 | |
| | | 소모품 및 수선비 | 1,800,000 | 150,000×12월 | |
| | | 비품구입비 | 2,000,000 | PC, 프린터 등 사무 비품 | |
| | | 후생복지 | 15,771,560 | 중식5,000×5인×20일×12월=6,000,000 공제조합 지원 10,000×5인×12개월 간사 교육 200,000원×2인 퇴직적립금 8,771,560(기본급 100%) | |
| | | 4대보험 | 8,420,600 | 4대보험(인건비 총액에 따른 산정) | |
| | | 운영비 계 | 34,232,160 | (10%) | |
| | 인 건 비 | 기 본 급 | 처장1 (19호봉) | 23,862,000 | 1,988,500×1인×12개월 |
| | | | 실장1 (20호봉) | 24,100,680 | 2,008,390×1인×12개월 |
| | | | 팀장1 (10호봉) | 20,769,240 | 1,730,770×1인×12개월 |
| | | | 간사2 (4호봉) | 36,526,800 | 1,521,950×2인×12개월 |
| | | 상여금 | 16,548,870 | 기본급 200%. (휴직기간 제외) | |
| | | 직책 수당 | 3,600,000 | 내규상 수당의 50% ※ 처장1. 150,000×12개월 실장1. 100,000×12개월 팀장1. 50,000×12개월 | |
| | | | 인건비 계 | 125,407,590 | (37%) |
| | | | 경상비 합계 | 159,639,750 | (47%) |

■ 지출(안) II _ 사업비 및 기타

(단위 : 원)

| 관 | 항 | 목 | 금 액 | 내 역 |
|------------------|----------------------------|--------------------|--------------------|---|
| 사 | 중점 및 연속 사업 | 환경교육 | 24,000,000 | 2,000,000×12 (어린이, 일반 등) |
| | | 탈핵, 기후보호운동 | 22,000,000 | 탈핵 5,000,000 기후보호, 에너지전환 17,000,000 |
| | | 생태도시 | 22,000,000 | 대기질개선 17,000,000 지속가능도시 5,000,000 |
| | | 광주천 영산강살리기 | 22,000,000 | 하천살리기(영산강, 광주천, 지천)17,000,000 수돗물 5,000,000 |
| | | 자원순환 | 10,000,000 | 자원순환마을, 그린캠퍼스 운동 10,000,000 |
| | | 브랜드 사업 | 5,000,000 | 브랜드사업1년차 5,000,000 |
| | | 소 계 | 105,000,000 | (30%) |
| 업 | 회 원 사 업 | 정기간행 (회보,함께사는길) | 22,440,000 | (함·길)1,800×650부×12개월=14,040,000 (회보) 1,400,000×6회(격월)=8,400,000 |
| | | 홍보물 제작, 우편료 | 12,000,000 | 1,000,000×12월 |
| | | 회원모임 지원 | 2,800,000 | 400,000×7개 |
| | | 회원조직 및 참여사업 | 12,000,000 | 회원확대캠페인 5,000,000(홍보물, 현장 활동) 회원 행사 2,000,000×3회=6,000,000 소모임 조직 1,000,000×1개=1,000,000 |
| | | 홈페이지,웹메일, 문자 등 | 3,300,000 | 서버 이용 및 관리, 문자 홍보 등 200,000×12개월 회계위탁운영 75,000원×12개월 |
| | | 소 계 | 52,540,000 | (16%) |
| 비 | 조 직 면 대 사 업 | 정기총회 및 회의 | 4,800,000 | 정기총회-자료집, 장소대관, 다과 3,000,000, (상설)위원회 등 150,000×12회 |
| | | 후원의 밤 | 4,000,000 | 행사비_장소대관, 음식, 초청장 제작 및 발송, 기타 |
| | | 중앙/지역 연대 | 11,000,000 | 시민협회비 : 100,000×12개월=1,200,000 전국 분담금 : 400,000×12개월=4,800,000 기타 연대 500,000원×10회 = 5,000,000 |
| | | 소 계 | 19,800,000 | (6%) |
| 사업비 합계 | | 177,340,000 | (52%) | |
| 기타 | 예비비 | 3,020,250 | | |
| | 소 계 | 3,020,250 | (1%) | |
| (사업비+기타) 계 | | 180,360,000 | (53%) | |
| 지출총액(경상비+사업비+기타) | | 340,000,000 | (100%) | |

부록

- 성명서 · 논평 · 기자회견문
- 언론보도로 보는 2016년 활동
 - 회원생활규칙

- 성명서 · 논평 · 기자회견문

각화· 문흥동 송전탑 이설, 주민피해 없어야 한다

서희아파트 건설에 따른 기존 154kv 송전탑과 송전선로 이설 계획으로 예정부지인 제2순환도로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마을 인근으로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게 되어 앞으로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전자파, 경관훼손 이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예견되면서 해당 주민들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가 없는 입지로 변경하거나 아파트 승인 당시 전제되었던 바대로 지중화로 해달라는 것이다.

애초의 이전 예정부지에서 2순환도로로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존철탑 No.23 부근의 부지 확보 등 대안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비용 증액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우려와 이에 따른 대책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된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주민들이라는 이유로 밀어부쳐서는 더더욱 안된다. 애초 아파트 건설 승인 당시, 이설 송전선로 지중화가 포함되었다. 환경, 경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설되는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지중화한다는 전제로 아파트 건설 계획도 승인되었을 것이다.

현재의 송전선로 이설은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승인을 받은 후 추진했어야 함에도, 공사부터 착공을 하였다. 이는 불법행위이다. 주민 민원이 있었음에도 묵살했다는 것이다. 결국은 공사 중단이 이루어 졌고, 지난 12월 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가 유보된 상황이다.

상대적 다수가 필요로 하는 이익을 위해 소수의 피해쯤은 별문제 아니라는 식의 발상은 위험하다. 이번의 송전탑 및 선로의 경우, 아파트건설을 위해 이설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주민 피해에 대한 해소 부담을 사업자 측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

주민의 피해를 살피고, 해소해야 한다. 주민의 고충과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2016. 1. 4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 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로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 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들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 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4대강사업 결과로 강 생태계는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영산강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이라니

- 광주 남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 TF팀’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4대강사업 결과로 영산강 생태계는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지역 지자체가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남구와 TF팀의 논리는, 낙동강과 영산강 주변 친수구역 개발 사업비 차이가 약 500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역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도시계획전문가 등이 낙동강 수변구역 에코델타시티 사업비가 5천 4,386억원임에 반해 영산강 친수개발 사업비는 불과 112억원에 불과하기에 지역 차등 없이 영산강에서도 낙동강 수준의 개발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영산강 수변개발사업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역간 차별없이 낙동강 수준의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 외에 무엇이 있는가? 도시계획 검토나 경제성 환경성 입증 없이 추진된 사업은 결국 지자체와 지역민의 재정적 부담과 생태계 악화라는 결과만 남길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 낙동강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과장되어 사업자체의 타당성 논란이 있고 반대 여론도 높다. 전체 예산중 80%는 수자원공사, 20% 부산시가 분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1조 가량을 부산시 즉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과연 투자대비 수익과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실한 상황임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환경문제 유발은 말할 것도 없다.
- ‘친수구역 특별법’은 이명박 정권이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이라는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

- ,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정한 악법이다. 친수구역특별법은 국가 하천 양안 2km 범위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도록 하여 국가하천 주변으로 수 많은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 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대강사업비중 국회 예산 심의를 비켜가기 위해, 보가 건설되는 구간의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도록 하였는데, 그 예산이 8조다. 한국수자원공사에 하천 개발권을 부여하면서, 수자원공사의 고유한 목적사업이 아닌 주택 등 분양사업, 개발사업을 통해 돈벌이를 하라고 길을 열어 둔 것이다.
- 기존 악법을 근거로, 부당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악법을 폐기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영산강 친수개발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2016. 2. 17.

국가도시공원법 제정을 환영하며

지난 3월 3일 새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국가도시공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체계에 ‘국가도시공원’을 신설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리는 지방사무로 분류되어 국비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녹색인프라의 핵심인 도시공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만 의존하게 되어 미조성공원이 방치되고, 양질의 공원관리 및 인프라 구축이 어려웠다. 국가 차원에서도 도시공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 국가 정책에서 도시공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국가도시공원법 제정으로 늦게나마 국가가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부지만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크게 환영한다.

광주, 부산 등의 환경단체들은 도시공원이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 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전국 순회 심포지엄, 서명 및 청원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번 국가도시공원 제정의 결과는 국가도

만들자가 아닌 도시공원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는 시민운동의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사)푸른길,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등에서 미조성으로 방치된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조성하는 운동을 펼쳐왔다. 중앙공원은 80여만평에 달하는 광주의 대표공원이지만 현재 조성률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20년 공원일몰제로 인해 중앙공원의 해제절차가 계획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높았다.

이번 국가도시공원법의 제정을 발판삼아 중앙공원을 국내 첫 번째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과 행정,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국가도시공원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에서는 국가 지원을 확보하고, 미조성공원 관련 예산을 확충하여 녹색인프라 확충과 공원일몰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16.3.4

, (사)푸른길, 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남영전구인근 대기 중
수은농도 전국 평균보다 20배~40배,
노동자, 주민의 체내 수은농도 23%가 **한국 평균보다 높아**

지난해 발생한 남영전구의 수은누출사고의 사후처리는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니다. 최근 광주환경운동연합이 확보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유역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영전구인근 대기 중 수은농도가 계속해서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영산강유역청은 광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기 중 수은농도는 전국평균치의 20배~40배 이상이며, 주변 제3자 수은중독 여부의 조사결과, 23%가 한국인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영산강유역청은 '조사 중'이기 때문에 대기 내 수은농도를 공개할 수 없고, 노동자와 주민들의 체내 수은농도의 조사결과를 평균값으로만 계산하여 '수은중독 피해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밝혔다.

지난해 11월 자문회의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남영전구 주변의 2개 지점에서 대기 중 수은농도 13.13ng/m³, 21.97ng/m³으로 전국의 월평균 농도(0.37~4.78ng/m³)의 20배~40배에 달하고

. 또한 현재까지 대기 중의 수은농도가 평균보다 높다. 그러나 영산강유역청은 현재도 진행 중인 수은의 대기농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기 중 수은의 확산을 막기 위해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 또한 취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기 중 수은의 확산은 기온이 높아지는 지금부터가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남영전구와 담장을 맞닿아 있는 공장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빵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남영전구 인근 주민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 3차 수은중독여부 검사결과, 소변 중 수은농도가 73명 중 17명이 영산강유역청이 제시한 기준치인 한국인 평균보다 높았음에도 전체 조사결과를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한국인 평균이하”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고 평균치로 발표한 것은 주민들을 기만한 것이며, 건강의 문제를 소홀히 다룬 것이다. 영산강청이 기준으로 제시한 한국인 평균치인 $0.53\mu\text{g}/\ell$ 보다 높게 나타난 주민과 노동자에 대해 심층적인 역학조사 및 추가조사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다.

영산강유역청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화학사고의 예방, 사후조치 등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남영전구의 경우에는 사전예방의 실패뿐 아니라 사후조치 역시 실패했다. 영산강유역청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수은누출사고의 영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도 인근 노동자와 주민뿐만 아니라 광주시민 전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영산강유역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영산강유역청은 대기 중 계속되는 높은 수은농도로 지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1차 환경피해 대비를 위해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등 선조치와 사후처리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남영전구에 인접하여 빵 가공공장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식품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2. 영산강유역청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남영전구 수은사고 처리에 대한 과정과 조사결과를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특히 지난해 제 3차 수은중독조사 결과 한국인 평균 수은농도보다 높은 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재조사와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우리는 영산강유역청이 관련 조치들을 공개하고, 특히 제3자에 대한 피해조사 재실시를 요구하며 3월 24일부터 4월 16일까지 영산강유역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다. 또한 영산강유역청의 화학 사고에 대한 부실한 대응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6. 3. 23

20대 국회의원 선거 반환경후보 낙선운동을 시작하며」

후보(영암, 무안, 신안)는 지역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20대 총선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

- 박준영 후보(국민의당, 영암무안신안)는 지난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할 당시 영산강운하를 뱃길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지를 했고, 이후 4대강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어 추진했을때도 지역의 숙원이라며 역시 이를 찬동했다. ‘기아자동차의 물류를 영산강 뱃길(운하)을 통해 수출’할 것을 주장한 바 있으며, 4대강사업은 오염된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개선하고, 홍수가뭍 등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 막대한 국민혈세로 4대강사업을 추진한 결과 영산강은 녹조가 극심하여 물 안전성이 위협 받고 있다. 토종 어류종과 수는 줄고 정체수역을 좋아하는 외래어종이 급격히 늘었다. 양서류서생물종 또한 줄었다. 수질을 비롯한 생태환경은 열악해 졌다. 홍수나 가뭄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4대강사업을 반대했고 종교계도 반생명사업이라고 규정했다. 많은 국민들이 4대강사업을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준영 후보는 전남지사 시절 도정에서 할 수 있는 영산강수질개선 실천의지는 보이지는 않고, 본인의 소신이라며 MB 4대강사업을 찬성한 것이다.
- 박준영 후보는 전남권에 있는 지리산, 월출산 국립공원내에 케이블카 설치 또한 찬성한바 있다. 우리지역에 자연생태, 문화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국립공원이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자 자랑이다. 국립공원 보전과 이에 부합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상을 제시하지는 않고, 소모적인 이용과 개발을 부추긴 것이다.
- 또한 도지사 시절, 경제성 등 타당성이 없어 많은 도민이 우려했던 F1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도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전력이 있다. F1 후유증은 계속 되고 있으며 지역에 골치덩이로 남아 있다. 박준영 후보가 이에 대한 사과나 책임있는 후속대응을 마련했다는 말은 없다.
- 이렇듯 박준영 후보는 반환경 행보로 지역의 중요한 자산인 생태환경을 악화 시켰고, 열악

도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 전력이 있다. 박준영 후보는 지역을 대표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박준영 후보가 서민과 농촌을 대변할 수 없고, 국가의 정의를 바로잡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20대 총선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 후보에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합법적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제대로 된 평가와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일을 다 할 것이다.

2016. 3. 31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하천에 역행하는 광주천 우안 자전거 도로 신설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 생태하천을 만든다는 광주시, 이후 편의시설만 늘어나는 광주천
- 광주천 양안 자전거 도로 설치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한다

결국 광주시가 2016년 3월부터 광주천 우안인 빗고을 초등학교 앞 광암교 구간에 1.5km의 자전거 도로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광주천은 이미 좌안 쪽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약 8천만 원을 들여서 광주천 우안에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광주천은 하천 규모에 비해 과잉으로 도입되고 있는 친수시설들로 인하여 생태계가 단절되고 무등산과 영산강을 잇는 생태 축으로써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광주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해왔지만, 분수대, 야외공연장, 운동기구, 하천편의시설,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친수구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천 우안의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둔치 폭과 생태계 연결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하천개발정책이다. 하천 내 산책로, 자전거 도로는 가능한 한 양안(좌우안 둔치) 설치를 지양해야한다는

대한 기본방침을 무시한 행위이다.

광주하천네트워크를 비롯한 광주 시민단체는 광주천 우안의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해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그럴 때마다 광주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몇몇 주민들의 민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현재 광주천을 걸어 다니는 시민들이 양안으로 다니는 자전거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가 역주행하는 경우나 도보로의 침입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안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된다면 광주천을 걸어 다니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것이고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자전거 도로를 요구하는 인근 시민의 민원을 이유로 진행되는 이번 광주천 자전거도로 공사는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정책방향에 벗어나 있으며 하천관리의 퇴보이다.

1.5km의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고작 5분 거리이다. 이번 광주천 우안 자전거 도로 공사는 양안 자전거도로 설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광주시와 서구청은 광주천의 생태를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광주천 우안 자전거도로 설치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2016. 4. 4.

, 광주환경운동연합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첫 발
광주지역 롯데마트·홈플러스 전 지점의
옥시제품 판매중단을 환영하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수)과 17일(금),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및 각종 불법행위로 논란이 되었던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제품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이에 광주의 대표적인 대형유통마트인 롯데마트 4곳, 홈플러스 3곳도 매장에 진열한 모든 옥시제품을 철수했다.

전국 각지의 피해자 가족, 시민단체,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1인 시위, 불매캠페인 등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이다. 윤리를 저버린 기업에 대해 응당 이루어져야 할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옥시제품 불매선언 후 40여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결정된 것이 아쉽지만, 뒤늦게나마 옥시제품 판매를 중단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결정을 환영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5월말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는 전국 2,336명으로 이 중 사망자가 462명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93명의 피해자(사망 28명)가 접수되었다. 하지만 잠재적 피해자가 30만에서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지금의 피해접수자 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유가족과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광주지역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이어 아직까지 판매를 지속하고 있는 광주지역 이마트에서도 옥시제품 판매가 중단되고, 옥션, G마켓 등의 온라인쇼핑몰과 지역의 중소슈퍼마켓에서도 완전 철수 되어야한다. 이에 우리는 시장에서 옥시제품이 완전 퇴출될 때까지 옥시불매운동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를 처음 개발하고, 옥시 등의 원료를 제공한 SK케미칼, 여전히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애경과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판매를 허가해준 정부에 대한 조사 등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우리는 연대를 통해 계속해서 활동해 나갈 것이며, 단순히 옥시불매운동을 넘어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을 알리는 활동, 옥시 예방법 제정, 유해 화학물질 감시활동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히고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2016. 6. 20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민선 6기 전반기 환경정책 평가

- 6기 환경정책 시민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 지역 환경단체들 민선6기 환경정책을 전문가, 시민들과 중간평가 결과 62%가 불만족하고 있으며,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바래
- 주요 현안으로 공원일몰제, 광주천복원, 에너지자립, 기후행동계획재수립, 방사능방재대책, 녹색교통전환 꼽아

민선6기 출범 2년을 맞이하여 광주지역 9개 환경단체(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불교환경연대, 에코바이크, (사)푸른길, 시민생활환경회의,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는 민선 6기 환경부분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에는 전문가, 시민, 활동가 등 179명이 참여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만족여부와 분야별 현안(핵안전, 공원녹지, 대중교통과 보행권, 하천, 기후변화, 에너지자립)에 대한 평가 및 제언을 담았다.

민선6기 환경정책에 대해 평가자의 62%가 불만족 한다고 답하였으며, 전 분야의 불만족도가 50%를 넘어 민선6기환경정책을 많은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선6기 환경정책 중 가장 부족한 점으로 ‘편리한 대중교통과 걷고 싶은 도시’와 ‘녹지와 공원의 확보’를 꼽았으며, 하반기에 우선해야 할 부분으로는 ‘녹지와 공원의 확보’, ‘편리한 대중교통과 걷고 싶은 도시’, ‘시민이 체감하는 기후변화대응’을 꼽았다.

평가의 과정 속에서 ‘생활’, ‘참여’, ‘홍보’, ‘체감’ 등이 키워드로 언급되어 시민은 환경정책을 생활 속에서 체감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잘된 정책이라도 홍보가 부족하고,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을 수 있는 참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안전을 중시하는 시민 인식의 변화도 나타났다. ‘미세먼지’, ‘방사능’ 등 시민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생활안전에 대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랐다.

종합적 제언으로 환경부분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한 통합적 정책 수립과 시민 삶과 직결한 분야에 대한 선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원녹지, 하천 / 탈핵, 에너지, 기후변화 / 대중교통, 대기질과 같이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는 부서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부서에만 시행하고 있는 정책자문관을 생활환경과 안전에 관련된 분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2년간 윤장현 시장이 외친 공감행정, 시민참여행정이 환경분야에서는 매우 미흡했음이 드러났다. 남은 2년의 시간동안, 광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환경의 질이 후퇴하지 않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

더불어 이번 평가에서는 체감평가와 더불어 분야별 현안으로 공원일몰제, 광주천복원, 에너지 자립, 기후행동계획재수립, 방사능방재대책, 녹색교통전환을 선정하여 지난 2년을 평가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016. 6. 21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불교환경연대, 에코바이크, (사)푸른길, 시민생활환경회의,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국민의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및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무효
광주전남 시도민선언**

우리는 지난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표결을 통해 결정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또한 핵발전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안전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한다.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은 60개의 활성단층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2개의 단층만으로 지진 평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 중대사고에 대한 대비 부족, 주변 주민들의 피폭, 초고압 송전탑 문제 등 안전과 관련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반경 30km이내 380만이 사는 인구밀집지역에 10개의 핵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다수호기 입지에 따른 안전성 검토는 부실하였고,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원자로시설이 떨어져 위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고작 3차례의 회의 끝에 표결로 안전을 결정했다. 결과는 정부와

추천위원 7인의 찬성과 야당측 추천인사 2인의 반대, 예견된 결과였다. 다수결로 안전이 결정될 수 없음에도 정부와 여당측의 위원은 표결을 강행했다..

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 대신, 정부와 한수원은 전력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부실하고 위법한 과정으로 신고리 5.6호기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전력은 남아돌고 있다. 지난해 여름 전력예비율은 16%이상을 기록했고 LNG발전소는 가동을 멈췄거나 50%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조원에 달하는 핵발전소 건설사업은 토건 대기업의 잔치일 뿐이다.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은 설계수명 60년이라는 사용과정의 안전뿐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까지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 후 핵연료의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고,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했다. 물론 지역주민들과 국민의 핵발전 확대에 대한 동의도 없었다.

우리는 정부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포기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해 탈핵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다.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하면 영광 여섯기, 월성 여섯기, 울진 여덟기, 고리 열기로 총 3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된다. 세계 최대의 핵발전 밀집국에서 이제는 세계 최대 핵발전 밀집 단지까지 만들려는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우리는 반대한다.

또한 우리는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세계 각국이 핵과 화석에너지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핵과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의 전환은 탈핵, 탈화석에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핵발전소 건설 중단,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노후원전 폐쇄를 요구해 나갈 것이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가 무효임을 선언하며, 부산과 울산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전국적으로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6. 6. 27

세상 광주전남행동

**하남산단 셋방산업,
6년 연속 1급 발암물질 배출 1위,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기업 이익위해
발암물질 매일 1톤 가까이 쏟아내**

2016년 7월 7일 발표한 “2014년 화학물질배출량 조사”결과, 2014년 세방산업이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 294톤을 대기 중으로 배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암물질 배출기업으로 꼽혔다. .

- 하남산단의 자리한 세방산업의 TCE 배출량을 보면 2009년 74톤, 2010년 201톤, 2011년 310톤, 2012년 439톤, 2013년 250톤을 배출해, 매년 전국 1위를 차지해왔다. 2008년에 7톤에서 2009년 74톤으로 10배이상 증가한 이후, 다량의 TCE를 배출하고 있다. 세방산업은 배터리 분리막의 세척에 TCE를 사용하고 있다.
- 2014년 세방산업의 1급 발암물질 배출량은 2위를 차지한 (주)트리스의 배출량 130톤의 2배 이상이며, (주)엘지화학여수공장이 배출한 50톤의 5배이다. 특히 전국 1급 발암물질 배출량 1,064톤의 30%에 달하며, 전국 TCE 대기 배출량 720톤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 TCE(트리클로로에틸렌)은 금속기계부품 등의 세정, 살충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간암과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성물질이다. 또한 두통, 허약, 흥분, 중추신경계 이상증상과 간과 신장에 심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했을 때는 간이나 신장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신경 독성과 호흡독성, 피부독성을 갖는 유독물질이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부터 남영전구 수은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관리에 구멍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세방산업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동안 TCE를 1,570톤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동안, 아무런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기업은 이윤을 위해 생산량 증대에 열을 올리며, 매일 1톤 가까이 발암물질을 굴뚝으로 뿜어냈다. 그 결과 대기환경은 악화되었고, 결국 인근 노동자와 주민뿐 아니라 광주시민 전체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 겨우 지난 3월, 광주시는 하남산단 인근 대기오염측정소에서 TCE의 수치가 높다는 것을 환경부로부터 통보받고 세방산업에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한 저감노력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정부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매년 증가되어온 TCE배출량을 보면 사업자인 세방산업의 노력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정부 또한, 조사는 진행했지만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세방산업 사건은 제2의 기습기살균제사건이다. 기업과 광주시, 정부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하였다.

- 우리는 어마어마한 양의 발암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사이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화학산단이 아닌 일반산단에 입주한 기업이라는 점, 특히 대규모 택지지구인 수완지구의 코앞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등 납득할 수 없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 우리는 세방산업과 광주시, 정부에 TCE 배출로 인한 주변 피해 조사와 TCE 배출의 근본적 대책을 수립을 요구한다. 더불어 세방산업과 광주시, 정부는 지금까지의 무사안일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현재의 상황과 대책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2016. 7. 12.

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서석초 앞 보행전용도로를
도로로 만드는 것은
보행권확대에 반하는 일!!**

서석초 앞 보행전용공간을 도로로 만드는 것은 보행권의 확대라는 도시 철학의 반하는 행위이자 어린이의 안전과 어린이친화도시-광주를 포기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구 광주여고 부지를 문화전당 주차장으로 허가하면서 서석초등학교 정문 맞은편으로 주차장 진출입로를 만들고, 보행전용도로를 없애 그 자리에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만들겠다고 한다.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전용도로는 과거 서석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을 통제하기로 지역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기존의 보행전용도로를 확대하기는커녕, 그 자리에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은 자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보행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자, 문화전당 주변 들레길을 연결하여 도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사람중심의 안전한 도시-어린이친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광주시의 정책에도 반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계획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면

, 광주시와 문화전당의 행정 편익적인 발상이 빚어낸 결과다.

- 문화전당은 민주를 상징하는 광장과 평화를 상징하는 녹색공원을 통해 도시공간의 획기적인 질적 향상과 생태와 환경이라는 미래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 문화전당이 제안하고 광주시가 허가한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자전용도로를 없애는 것은 전당과 도시를 연계하는 공간을 훼손시키는 일이며, 결국 주차장과 차량의 편의만을 위할 뿐, 문화전당과 도시공간의 철학을 광주시 스스로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 어린이들의 안전과 보행권을 포기하는 계획이다.

- 서석초등학교 앞 130m구간은 광주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 앞 보행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차량운행이 통제됨으로써 어린이들이 마음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며 상대적으로 안전이 담보되는 곳이다.
-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보행자 사고의 50%가 발생한다는 통계가 아니더라도 정문 바로 앞 2차선 도로는 어린이들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주차장의 진출입차량뿐 아니라 동구청과 동계천을 연결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차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교통사고뿐 아니라 매연, 갓길주차 등 난잡하고 위험한 도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셋째, 문화와 도시재생의 거점 공간의 잠재력을 없애는 것이다.

- 마을의 광장과 차 없는 도로는 도시의 문화적·도시재생의 거점공간이다. 서석초 앞 보행자전용도로는 작지만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펼쳐지는 작은 광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매력적인 공간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 그러나 이제 막 움트고 있는 문화와 재생의 역량들은 도로의 개설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며, 작은 공간들을 지키고 문화와 재생의 역량을 키우는 일에 광주시가 앞장 서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러한 가치들을 무시하고 광주시가 도시재생을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다.

우리는 광주시가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공간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보행권의 가치와 어린이의 안전을 훼손하는 정책을 결정한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광주시가 말하는 '사람중심의 안전한 도시'는 여전히 슬로건과 목표에 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광주시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계획을 바로잡아서 시민과 안전이 행정의 편리보다 우선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하며, 보행자전용도로를 확대는 못할망정 있는 기존의 공간마저 훼손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2016.7.20.

, 광주에코바이크, 광주환경운동연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나무심는건축인모임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 바닥까지 썩고 있다

- 영산강 바닥 퇴적토, 4대강 공사 이전 보다 카드뮴 납 비소 등 유해중금속 수치 상승
- 총인은 준설을 해야 할 오히려 최고 기준치인 1,000mg/kg 보다 2배 이상, '심각하고 명백한 오염 상태'. 4대강사업 이전 영산호 바닥보다 더 나쁜 상황
- 성층화 현상 뚜렷, 저층과 강바닥은 빈산소, 무산소층으로 생명이 살수 없는 공간
- 극심한 녹조, 썩고 있는 강바닥만 보아도 4대강사업은 강 파괴 사업임을 입증
- 흐르는 강물로 회복시키지 않는 이상, 더 악화 될 것

지난 7월 29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광주 전남 시민단체와 대한하천학회는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상류지점에서 퇴적토, 수질, 용존산소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NICEM)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 이전(2009년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자료 내, 현재의 보 근접 지역 측정치)보다 훨씬 악화된 결과가 나왔다.

중금속 수치 증가

2009년 영산강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보고된 퇴적 저질토 현황과 비교해 보니 카드뮴, 구리, 납, 비소, 아연 등 유해 중금속 수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승촌보 구간에서는 구리가 0.127mg/kg에서 44.7mg/kg으로 342배, 납은 4mg/kg에서 37.3mg/kg으로 9.1배 가까이 증가했다. 죽산보 구간에도 카드뮴이 0.063mg/kg에서 0.33mg/kg으로 5.2배, 납은 1.0mg/kg에서 30.6mg/kg으로 29.6배 증가하였다.

비소의 경우 4대강 사업 이전에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EPA(미국환경보호청)의 유기물 오염판단기준의 '심한 오염' 수준에 달하는 수치가 확인되었다.

제시한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2015. 11. 16 개정)에 따르면, 이들 중금속 수치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오염정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퇴적토의 총인(T-P) 수치도 증가

퇴적토의 총인(T-P) 수치도 4대강 사업 이전 조사 자료와 비교해본 결과 174mg/kg에서 2592.7mg/kg으로 14.9배가 증가하였다. 준설해야 할 오히려 최고 기준치인 1,000mg/kg보다도 2배 이상을 넘어서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토적토내 중금속은 대체로 1등급(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2015. 11. 16 개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총인(T-P)은 4등급이고 완전연소가능량도 거의 4등급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4등급인 항목이 1개 이상이면 ‘매우 나쁨’, 즉 ‘심각하고 명백한 오염’상태라고 볼 수 있다. 토양정화 및 복원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수준이다.

성층화 현상 뚜렷,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강바닥

강바닥의 용존산소의 경우, 승촌보와 죽산보 상류에서 수심별로 측정한 결과 성층화현상(호수 깊이에 따른 수온변화에 의한 밀도차이로 여러 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승촌보, 죽산보 상류지점의 표층 수치는 9mg/l인 반면 수심 4~5m구간에서부터는 1mg/l도 되지 않은 무산소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변했다.

보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영산강의 표층에서 해마다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고 강바닥은 썩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예견했던 결과이다. 영산강에 승촌보, 죽산보라는 댐을 만들어, 결국 유속이 느린 호소로 변화시켜 미세 퇴적물이 쌓이고, 썩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미 하구둑으로 인해 영산호 바닥은 생물이 없는 빈산소층, 무산소층이 형성되었다. 바닥 퇴적물은 썩고 오염되어서, 기형물고기가 발견되고 물고기 폐사 사건도 발생했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4대강 사업결과로 영산강 중상류에 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흐르는 강으로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더 악화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의 수문을 개방하여 영산강 녹조, 퇴적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 영산강에 대한 수질측정을 수심별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수행하여 공개하고 표수층의 조류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막대한 혈세를 들여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고, 영산강을 흐르는 강으로 복원해야 하다.

영산강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4대강사업을 검증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영산강 복원을 촉구하는 대안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16. 10. 6

,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

도시의 공공성을 포기한 난개발의 전형,
누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의 상징인 금남로와 광주천 사이 누문동 일대에 최고층 44층, 3,524세대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이후, 오는 29일(화) 도시경관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남로의 입구인 유동 사거리에서 삼성생명 사거리 사이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도시재생에 역행하는 구도심 난개발과 일조권 침해, 교통혼잡 유발, 기형적인 도시경관 초래. 조망권 훼손, 바람길 저해와 도심열섬화 가중, 금남로와 광주천의 도시공간 가치 훼손 등 수많은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별첨_ 문제점 참고)

누문동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사업이다. 중산층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시행과 시공을 민간건설회사가 맡게 되어 공공성보다는 이익을 우선하는 구조이다.

그간 광주는 외곽의 아파트 택지개발 시기를 거쳐 최근 도심의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해 저층주택지가 아파트로 바뀌고 있다. 결국 외곽과 도심 곳곳에 아파트 병풍이 둘러쳐진 전국적으로도 유례 없는 아파트 중심의 도시가 되어버렸다. 도심의 낙후된 주거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나 재생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 이전에 도시기반시설과 입지여건, 환경의 고려, 주변과의 경관 조화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주의 수익성을 우선하게 되면 그 한편에서는 초고층 주거지역 주변의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은 침해될 것이며 기형적인 도시경관을 낳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폐쇄된 도시 구조를 낳아 수많은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도심에 홀로 우뚝 선 기형적인 초고층 아파트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도시관리 철학과 행정이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종합적이고 바람직한 원도심의 재생의 방향성을 갖지 못한 채 사업성 추구의 개발계획에 휘둘리며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의 주거환경, 경관, 교통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

우리는 윤장현 시장의 도시정책이 대해 광주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누구와 도심의 고층 아파트 개발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하였는가? 묻고자 한다.

우리는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누문동 개발 계획의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지금이라도 시민과 전문가, 도시행정가들이 공개적인 토론을 펼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종합적인 도시관리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적인 개발계획만을 논의할 수는 없다. 도시의 맥락과 도시의 미래상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시민들은 원하고 있다. 아무런 대책 없이 허가된 개발 계획은 이후 다양한 도시의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현재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2016. 11. 27.

영산강 친수지구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 국토해양부, 영산강 친수지구 확대 지정 변경절차 진행. 하천기본계획에 12월 내로 반영할 계획
- 영산강의 생태환경은 악화되고 있는데, 친수지구 지정은 오히려 영산강을 망가뜨리는 일
- 영산강 둔치에 축구장, 야구장 등 각종 친수시설도입을 멈추고 생태축 단절이 되지 않도록 복원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도록 해야 한다.

- 국토해양부는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 안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 하천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부터 기존 보전, 복원, 친수 3개로 구분하던 것을 특별보전, 일반보전, 완전보전, 복원, 근린친수, 친수거점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는 방침으로 변경하는 하천구역 지구지

변경절차를 진행해 왔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지정을 세분화한다고 하지만, 정작 지구지정 변경 내용을 보면, 보전이나 복원지구가 친수지로 변경된 내용만 늘었다. 영산강에서도 2013년에 친수지구가 확대된 지구지정 변경이 있었고, 올해 12월내로 영산강 지구지정 변경 건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올해의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안) 내용을 보면, 각 지자체로부터 총 16건의 지구지정 조정이 건의되었고, 이중 9개의 지구를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전체 및 일부 변경하겠다는 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둔치와 같은 하천구역에 친수시설 도입을 적극 허용하는 현재의 지구지정 변경 안에 대한 문제점과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안은 하천기본계획 취지에 어긋난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친수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변경(안)을 반영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절차는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2013년 10월에 영산강 9개의 보전지구가 친수지구로 지정되었다(좌안 6,450m, 우안 4,200m).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추가로 친수지구를 확장하기 위한 지구지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구지정을 세분화하면서 친수구역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친수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친수지구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생태계 단절로 하천 기능이 파괴될 우려가 크다.

2. 특별보전지역에 자전거 길을 비롯하여 하천구역 내에 운동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안)의 관리방향을 살펴보면 도입 가능 시설로 자전거 길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보전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생태계보전구역, 습지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특별히 높은 곳이다. 근린친수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자전거 길을 특별보전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친수지구에 야외극장, 휴게음식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말 그대로의 친수 기능과 무관한 시설을 과잉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통수에 장애를 주고 하천 수질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하천부지 밖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3. 영산강은 하천둔치에 많은 야구장, 축구장 등 친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체육시설 도입을 허용하기 위한 친수지구 추가 지정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12월에 있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영산강 지구지정(안)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다면 친수지구로 지정된 곳에 체육시설이 도입되어 영산강의 생태환경이 더 심각하게

것이다. 특히 광주의 영산강 하천둔치에는 첨단 종합운동장, 북구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많은 야구장, 축구장이 들어와 있다.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계획된 북구 첨단 대교 좌안의 지구지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영산강 북구구역에는 첨단 종합운동장, 북구 종합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이 과잉으로 도입되어 있다. 하천부지 내로 운동장과 같은 체육시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 광산구 호가정 주변인 영산강 우안과 남구의 영산강 좌안의 친수지구 지정도 철회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친수지구로 지정된 모든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미 하천둔치의 친수공간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체육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친수지구 확대는 멈춰야 한다.

- 이미 4대강 사업 결과로 공원 등 하천구역에서의 친수시설이 과잉 조성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4대강사업 이후에도 각 지자체로부터 하천둔치 이용과 개발 요구가 빈번해졌고, 이로 인해 하천 둔치에 각종 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광장, 산책로 등 친수시설이 경쟁적으로 도입되었다.
- 영산강은 승촌보와 죽산보에 물길이 가로막혀 수질과 강바닥의 심각한 오염이 이어지고 있다. 영산강은 비점오염원 부하가 높다. 생태기능을 회복시켜야 할 영산강에 지구지정에 있어서 기초체육시설 등의 친수시설 도입은 문제가 크다. 친수지구 확대가 아니라 생태축 단절이 되지 않도록 복원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6. 12. 19

광주전남녹색연합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목포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46명 조사 및 접수
이중 사망 71명, 생존환자 175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총 5,294건 피해접수
이중 사망은 1,098건, 생존 4,196건(16.12.16 기준)

피 늘어남에 따라 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체로 인구규모에 비례
 2016년 11월 30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광주·전남지역 거주자의 피해접수는 모두 246명

사망자는 71명, 생존 환자는 175명
광주는 피해접수 138명 중 사망자 36명, 생존환자 102명
전남은 피해접수 108명 중 사망자 35명, 생존환자 73명
가습기살균제 전체 사용자 약 1천만명 추산
이중 잠재적 피해자 29만~227만명

신고접수도 전체의 빙산의 일각이며 전인구대상 역학조사 및 2-3차 병원, 집단시설 전수조사와 지속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 검토되고 있는 특별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는 특별기구와 인력 및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2016. 12. 20

경관법 시행령을 위배한 광주시 경관위원회 심의 중단을 요구한다

광주시는 12월 26일(월)과 27일(화), 누문동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운암동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경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경관위원회를 위원회를 규정하는 법령인 ‘경관법 시행령’을 위배하여 운영해 왔다.

또한 광주의 미래에 적합한 도시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민선시장의 책무임에도 현재 광주시는 철학과 방향 없이 제출된 계획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될 예정이어서 심각한 공공성의 침해가 예상된다.

우리는 법령을 위배하고, 시민합의와 공론화 없이 진행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중단을 요구한다.

○ 광주시의 경관위원회는 경관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시행령 제 26조 “경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토록 한 법령을 위반한 채 운영해 왔다.

광주시는 2015년 10월부터 40명의 위원을 A조, B조로 구분하여 운영, “회의시 마다 지정”토록 되어있음에도 이미 확정 구성된 A조와 B조에 안전을 배정해 심의함으로써 편익적 운

하여 왔다. 또한, 국토부의 「경관심의 지침」에는 “재심의시 가급적 당초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포함되어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광주시는 심의위원을 새롭게 지정하지 않고, 기존에 논의한 조에 재심의를 하도록 운영해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까다로운 심의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 이미 우리 눈앞에 실제로 들어선 학동 아이파크와 같이 도시민이 모두 누려야 할 도시경관 자원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도심의 고층 아파트에 대해 광주시는 명확한 계획과 방향 수립을 우선하여 심의해야 한다.

이미 확정된 임동 39층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외에도 누문동 44층 등 고층 아파트에 대해 경관 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성 침해에 대한 분석과 대책 없이 심의되는 현재의 과정의 중단을 요구한다.

- 고층아파트로 인해 공공성 침해를 겪고 있는 광주시민들의 고층에 대해 윤장현시장은 아무런 대책이나 공론화 없이 고층아파트를 승인해주고 있다. 광천동 호반 씨밋플레이스 48층, 첨단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42층, 양산동 쌍용예가 46층 등이 그것이다. 또한 도심 중심부에 허가된 임동 39층, 심의 진행 중인 누문동 44층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있다. 윤장현 시장은 도시의 고층화에 대한 시민 우려와 불편에 대해 도시개발의 철학과 비전이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 광주시는 뉴스테이 사업선정 이후, 현재까지 “누문구역 사업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외부전문가 1인과 공무원 8인으로 구성된 팀은 누문구역과 층수와 용적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 결과 최고층 44층의 아파트가 결정되었다.

T/F는 도심의 고층아파트에 대한 광주의 도시경관을 지키고 사랑하는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여론수렴을 거치는 어떠한 공공적 논의도 없이 수익률의 보장과 사업 성공에 매몰되어 있을 뿐이다. 누구를 위해 광주시는 T/F를 운영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도시정책에 대한 진단과 고민 없이 진행되는 심의, 법령에 위배된 경관위원회의 진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광주시가 심의를 중단하고 고층아파트로 인한 경관의 침해,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안전성, 고밀도 주거단지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족, 교통영향 등 다각도의 검토를 우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도시에 대한 비전과 방향에 대해 시민과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2016. 12. 21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선정, 2016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2016 광주전남의 환경사건을 중심으로 선정한 10대 환경뉴스는 246명의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국 1위의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 사상최악의 조류독감, 난개발 중심의 도시계획, 영산강 수질 및 퇴적토 오염심각, 일방적인 핵폐기물처리 계획 등이 선정되었다.

올해의 10대환경뉴스에는 가습기 살균제의 참사, 광주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 전국 1위, 광양 와우택지 지구에서 토양기준치의 9배가 넘는 발암물질 니켈을 포함한 성토재 사용 등 3개의 환경뉴스가 정부와 지자체의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소홀이 빚어낸 사건으로, 여전히 관리당국의 불감증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영산강의 녹조와 함께 4대강사업으로 인한 퇴적토와 수질오염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주민들의 동의 없이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를 영광핵발전소 부지내 설치하려는 정부와 한수원의 계획에 거세게 반대하는 주민들의 활동 등 광주전남의 환경현안으로 여전히 영산강과 핵발전소가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광주에서의 고층아파트 중심의 도시개발, 녹장대응이 빚어낸 조류독감의 전국적 확산 등도 꼽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환경부분의 부정적인 사건이 많은 반면,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과 공론화 과정으로 '전라선 옛길 공원화 사업'이 본격 시작과 GMO 쌀 상용화 대응을 위한 GMO반대 전남도민행동의 결성되는 등 시민사회의 활동의 성과와 안전한 먹거리와 농업 보전을 위한 시도민의 노력이 있었다. 또한 광주는 습지 및 물순환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노력의 결과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도 함께 포함되었다.

참사, 광주전남 피해자 246명 이중 사망자 71명

올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함께 피해 사례가 본격적으로 조사된 결과, 현재 광주·전남지역 거주피해자는 246명으로 집계되며, 이중 사망자는 광주36명, 전남35명으로 모두 71명에 달한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1천만명, 잠재적 피해자 최소 29만명에서 최대 227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현재 접수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는 전국적으로 5,294건(12월 16일 기준)이 넘었고, 이중 올해 접수가 4,012건으로 전체의 75.8%이다.

1급발암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 전국 최다 배출기업

소재한 세방산업이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 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년 300여톤 가량을 대기중으로 배출해온 세방산업 인근에 수원지구, 하남지구 등 대규모 주거지역이 자리해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었다. 지난해 남영전구 수은누출 사고 이후 연달아 드러난 세방산업의 TCE배출은 하남산단과 지역 내 화학물질, 대기배출 관리 소홀 등 행정의 안이하고 부실한 관리가 빚어낸 사건이다. 현재 세방산업의 TCE배출에 검증위원회가 구성되어 주변 환경과 주민, 노동자 건강에 대한 영향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세방산업은 지난 6년동안 1500여톤이 넘는 ‘TCE’를 대기중으로 배출하였다.

□ 영산강, 4대강 사업이후 수질뿐만 아니라 퇴적토 오염까지 심각

4대강사업이 완료된 이후 영산강에서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녹조문제와 물고기폐사 사고 외에도 하천바닥 퇴적토까지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민단체와 대한하천학회에서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구간 하천바닥에 쌓인 저질토를 조사한 결과, 토양정화 및 복원대책이 필요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하천, 호수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으로 총인(T-P)은 4등급, 완전연소가능량도 거의 4등급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매우 나쁨’, 즉 ‘심각하고 명백한 오염’상태라는 것이다.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혀, 성층화현상(호수 깊이에 따른 수온변화에 의한 밀도차이로 여러 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뚜렷하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표층의 용존산소량은 양호하지만, 저층은 무산소층을 형성하고 있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친수지구 확산 계획, 친수구역 개발 요구 등을 하고 있어 생태복원과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광주, 여전히 계속되는 무분별한 초고층아파트 중심의 도시계획

올해도 아파트중심의 도시재생사업과 도심여건에 부적합한 종상향에 의한 초고층아파트의 건설 계획이 추진되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뉴스테이사업, 종상향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층아파트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광천동 호반 씨밋플레이스 48층, 첨단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42층, 양산동 쌍용예가 46층, 임동 39층과 심의가 진행중인 누문동 44층의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의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과 세부지침, 조례 등 시스템 구축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고층아파트 중심의 개발사업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수익 중심의 고층아파트 건설은 교통난, 녹지공간축소, 일조권 침해, 기형적 도시경관 초래, 도심 열섬화 심화, 도시공간 소통 단절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기형적인 도시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도시의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제반 제도 구축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옛철길 공원화 사업 첫 삽

지난 8월에 '전라선 철도폐선부지 공원화 조성사업' 기공식과 함께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전라선 옛 철길 공원화 사업은 광주 푸른길 10.8km의 두 배인 21.4km로 국내 최장 구간이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2011년 4월 폐선된 전라선 옛 철길을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2008년부터 폐선부지 공원화 제안과 캠페인을 시작으로 2009년 선진지 견학활동과 도보·자전거·차량 답사, 2010년 전국 푸른길 네트워크 참여와 생태공원 요구, 2011년 옛철길 공원화 기자회견·논평과 토론회·간담회 진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2012년 폐선부지는 도시계획(공원) 결정·고시되었고, 여수 시민사회는 2013년 옛철길 공원화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나무심기 행사 등을 진행해 왔다.

□ 영광핵발전소,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반대 거세

정부와 한수원은 2024년까지 영광 핵발전소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을 추가 건설을 위해 '한빛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고준위핵폐기물은 발전소 내 수조에 임시저장된 상태로, 2023년이 수조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 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이 알려진 이후, 영광핵발전소 부지내 핵시설이 추가로 건설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론화없는 "고준위방사성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전면 백지화 요구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 광주, 물순환선도도시 선정

광주광역시가 환경부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되었다. 광주시에 따르면 상무지구에 투수블럭, 옥상녹화, 식생체류지, 빗물침투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물순환선도도시의 선정은 그동안 시민사회, 행정, 학계가 광주의 물순환체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토론회, 현장활동 등의 노력이 기반이 되어 이끌어낸 민관 협치의 성과이다. 이후 광주시는 빗물 등 물순환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정비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광주천의 중하류 지역인 상무지구 시범단지의 효율성 문제와 함께 하천 통합관리를 비롯하여 도시내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와 자립이라는 건전한 물순환 체계에 부합한 도시계획 등 제반 과제도 요구된다.

□ 사상최악의 조류독감(AI) 발생, 2천만마리 이상 살처분

지난 11월 전남해남과 충북음성에서 첫 발생한 조류독감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정부와 지자체의 초기대응의 실패로 인해 이미 전국의 가금류 2천만마리 이상이 살처분되었고, 지난 12월

15 ,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 광주 우치공원과 더불어 전국의 동물원이 임시휴장에 들어갔으며, 계란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의 조류독감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시, 초기 대응의 실패, 낙장대응으로 그 피해를 키웠다. 사육환경의 개선, 차단 방역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와우 택지지구 성토재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 검출

전남 광양의 와우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성토재로 매립한 페로니켈 슬래그에서 발암물질인 니켈 성분이 기준치보다 매우 높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광양시에 따르면 와우지구 도시개발 정비사업의 주택단지 조성 현장에 약한 지반을 다지기 위한 수평배수재로 지하 10m 아래에 모래 대신 27만7천여의 페로니켈 슬래그를 매립했다. 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페로니켈 슬래그의 성분 분석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 발암물질인 니켈이 주거지역 토양오염 우려 기준(100mg/kg)의 9배를 넘는 967.8mg/kg이 검출됐다

□ GMO 쌀 상용화 반대 전남도민행동 출범

전 세계 64개국이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을 금지하거나 표시를 강화하고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GMO쌀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어 생산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 30여개의 단체로 구성된 ‘GMO반대 전남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이 출범하였다.GMO의 나라로 불리는 미국에서도 주식인 밀에 대해서는 GMO승인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농촌진흥청은 13개 작물 111종의 GM작물을 포함해 올해 총 146종의 GMO를 연구중이며 전남 무안, 전북 완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GMO벼가 시험재배 되고 있다.

도민행동은 GMO 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 GMO상용화 중단과 시험재배지의 안전한 관리체제등이 이뤄지도록 건강한 대안을 찾아 활동할 예정이다.

2016. 12. 25

·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보도로 보는 우리의 활동

환경단체, '4대강 찬동' 전 전남지사 박준영 후보 낙선운동

20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31일 4대강 찬동으로 국토 난개발을 조장하는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24명 중 전남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전 전남지사인 국민의당 박준영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31일 오전 11시 30분 무안 남악의 전남도청 부근의 박 후보 선거 사무실 앞에서 반환경 후보인 박 후보의 사퇴 촉구와 함께 낙선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 출마하는 반환경 후보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제대로 된 평가와 심판을 하기 위해서라고 광주환경운동연합이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반환경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촉구하고 박 후보에 대한 낙선 대상자 선정 이유와 퍼포먼스를 통해 향후 낙선 활동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야당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환경운동연합의 낙천 후보로 선정된 박준영 후보는 "환경연합이 4대 강 찬동을 이유로 낙천 후보로 선정했겠지만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 살리기'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지금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2016. 03. 31
CBS 김형로 기자



광주환경운동연합, "옥시 제품 불매운동 돌입"

옥시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옥시레킷벤키저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개별보상을 할 때까지 대형마트 1인시위 등을 통해 옥시 제품 125종에 대한 불매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0일에는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옥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광주전남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5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이 숨졌습니다.

2016. 5. 4



광주환경운동연합 "롯데마트·홈플러스 옥시 제품 판매 중단 환영"

(광주평화방송) 김범진기자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20일) 논평을 내고 "광주의 대표적인 대형유통마트인 롯데마트 4곳과 홈플러스 3곳에서 옥시 제품이 철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각지의 피해자 가족, 시민단체,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1인 시위, 불매캠페인 등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이다"며 "아직까지 옥시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광주지역 이마트와 옥션, G마켓 등의 온라인쇼핑몰 및 지역 중소슈퍼마켓에서도 완전철수할 때까지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료를 개발하고 제공한 SK케미컬과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애경과 이마트, 판매를 허가해 준 정부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며 “불매운동을 넘어 생활화학제품의 위 해성을 알리는 활동과 예방법 제정, 감시활동으로 영역을 넓혀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6. 6. 20



"광주 산단 입주업체 1급 발암물질 배출량 "전국 1위"

(광주=연합뉴스) 정희성 기자 = 환경단체가 광주 하남산단 배터리 전문 제조업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암물질을 배출한 기업으로 꼽혔다며 관계 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014년 화학물질배출량 조사 결과 하남공단 세방산업은 2014년 한해에만 1급 발암물질인 TCE(트리클로로에틸렌)를 294t 배출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세방산업의 대기 중 TCE 배출량은 2008년 7t에서 이듬해 74t으로 10배 증가한 이후 2010년 201t, 2011년 310t, 2012년 439t, 2013년 250t 등 매년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세방산업의 TCE 배출량은 전국 2위 업체 배출량 130t의 2배 이상, 여수산단 한 화학업체가 배출한 50t의 5배"라며 "전국 1급 발암물질 배출량 1천64t의 30%이자 전국 TCE 배출량 720t의 40%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TCE는 중추신경계, 간,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발암물질이다. 세방산업은 배터리 분리막 세척에 TCE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대규모 택지지구 앞에서 많은 양의 발암물질이 지속해서 배출되는 사이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광주시와 정부는 주변 피해 조사와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2016. 7. 12

시민의소리

광주시민 83.9% 열섬화 심각 재개발 억제, 바람길을 고려한 건물배치 등 대책 마련 주문

시원함과 바람길을 막아버릴 고층의 아파트 단지들이 광주천 옆에 건설되고 있다. 곧 추석이 다가와도 건물에 붙은 실외기는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다.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도시 열섬현상 때문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과 급격한 도시화로 광주의 향후 미래가 걱정 되는 판국이다.

몇 년 전만 해도 광주의 아파트 단지는 이정도로 밀집되지도 많지도 않았다. 갑작스런 도시개발로 도로마다 아스팔트가 깔리고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도시녹지가 감소됐고, 도시의 온도는 도시 주변의 온도보다 5℃ ~ 10℃정도 높아졌으며, 사람들의 에너지사용은 급증하였다. 이를 ‘도시열섬현상’이라 부른다. 도시열섬으로 인해 도시대기환경이 악화되고 노인, 유아 등 생물학적 약자들의 건강문제와 시민들의 작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광역시의회는 ‘도시열섬과 도시계획의 방향’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도시열섬에 대해 살펴보고,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며, 행정, 전문가, 시민의 시각에서 도시열섬현상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시민 2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도시열섬현상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의 열섬현상에 대해 응답자의 83.9%가 열섬화가 심각하다 동의하였고, 10명중 9명이 열대야로 인해 수면에 방해가 되었다고 답하였다.

열섬현상에 동의한다는 조 모씨(24)는 “에어컨을 잘 틀지 않았었는데 올해 여름은 너무 더워 에어컨 없이 살 수 없었다”며 “여름이라 더운 건 이해하지만, 너무 심하다. 온종일 더위에 설 치며 보내기 힘든 여름이었다”고 불만을 토해냈다.

박석봉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대구는 오래전부터 폭염에 대해 대책을 세워왔다”며 “현재

언제든지 폭염으로 이어질 요소가 많다”고 우려했다.
또한 박교수는 “광주 인근에는 땅도 많은데 너무 과밀화 되어 있다”며 “그 안에서 에너지가 과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세워진 대책으로 ▲재개발 억제 ▲가로수 지나친 가지치기 방지 ▲에너지 다소비 지역에 소규모 공원 조성 ▲그린인프라가 접목된 건축개발 ▲바람길을 고려한 건물 설계와 배치 ▲도심건축물의 옥상과 벽면 녹지로 활용 등의 의견이 나왔다.

광주시는 지금부터라도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도시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가 셀 수도 없이 많아 하루아침에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2016. 9. 7

全南日報

기후변화 관련 한중일 교재 출간 · 사이트 구축 "기후변화는 전 세대가 노력해야... 교육이 중요"

제 5회 동아시아 기후포럼 참석자들이 행사가 끝난 지난 25일 일본 교토국제회관에서 연대를 결의하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지난 25일 교토국제회관에서 진행된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 전략회의'에서 "기후변화 관련 교재 공동 출간 · 사이트 구축"에 의견이 모아졌다.

중국환경과학기술연구센터의 장쑤 씨는 "2012~2015년 기후변화에 관한 교재를 편찬하고, 전국 449개 학교 · 81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기후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면서 "환경은 한세대가 아닌 전세대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만큼 청소년에 있어 기후변화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는 중국에서 작성한 기후변화에 대한 교재이지만, 앞으로 동아시아의 공통적 내용을 담아

예정이다.

또한 한·중·일이 함께 '탈석탄 공동 보고서'를 발표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팀장은 "현재 동아시아에서 탈()석탄 운동이 시급하다"면서 "한중일과 영어 등 4개 언어로 석탄 발전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싶다. 2018년 중국에서 열리는 동아시아기후포럼에 앞서 내년 쯤 한국에서 동아시아 탈석탄 워크숍을 개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후네트워크 모모이(일본) 씨는 한중일이 공동으로 탈석탄 관련 사이트를 구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2013년 이후 일본에서 계획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건설 규모와 위치, 가동시기 등에 대해 추적해 표시하는 사이트를 구축했다. 탈석탄워크숍 전에 이 사이트를 참고해 동아시아에서 공동으로 지도를 확대·제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4시간여의 회의 끝에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는 올 연말까지 계획안을 구상한 후 '기후네트워크' 이름으로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기로 했다.

2016. 9. 29

교토=박수진 기자



광주환경연합 "일부 학교 대기오염 여전히 심각"
광주 주요거점 이산화질소(NO2) 조사 결과
'교차로-관공서-상가-학교-공단-아파트'순 높아
일부 학교 '국제기준 초과' 개선 시급

광주 주요거점의 대기질을 조사해봤더니 일부 학교에서 일산화질소 수치가 국제기준 수치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발표한 '광주 주요거점 대기질(NO₂)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거점 별 NO₂ 평균농도는 교차로-관공서-상가-학교-공단-아파트 순으로 농도가 높았다.

NO₂는 이산화질소를 말하는 것으로 유독하고 산화 작용이 강해 흡입하면 폐수종, 폐렴, 폐출혈 등 폐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교차로의 NO₂농도가 가장 높은 이유로 자동차의 배기가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교차로나 상가 지역의 농도가 높고 교통량에 따라 NO₂의 농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미뤄 광주 도심의 NO₂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동차를 꼽았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집중돼있는 학교의 경우, 2016년 조사된 47개 학교 중 15학교가 평균측정농도보다 높게 측정됐다.

2015년 조사에선 39개 학교 중 14학교가 높게 측정됐는데 월산초·문산초·문흥초·중앙초·상무중·동성중 등 6개 학교는 2년 연속 NO₂ 평균이상 농도로 측정됐다. 특히 중앙초등학교(2015년 55ppb, 2016년 37.7ppb), 상무중학교(2015년 55.4ppb, 2016년 39.5ppb), 동성중학교(2015년 56.7ppb, 2016년 48.9ppb)는 2년 연속 최고농도를 기록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WHO가 권고하고 있는 NO₂기준은 40ppb 이하이며 일본의 기준치 또한 40ppb를 명시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평균농도 40ppb를 초과한 학교는 2015년 11개 학교, 2016년 1개 학교이다.

광주 5개 구별로 살펴보면 서구가 32ppb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냈으며 남구가 27.4ppb, 동구가 25.8ppb, 북구는 25.6ppb를 보였고 광산구는 21.6ppb로 가장 낮게 측정됐다. 광주지역 평균농도는 26.3ppb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간선도로(교차로), 이면도로, 공공기관, 공원, 시장, 학교, 공동주택 등 5개 구의 20여 주요 거점의 NO₂농도를 측정했다.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에 샘플러를 부착하고 24시간이 지난 뒤 수거해 분석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광주시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민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광주시민들은 지역의 환경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기오염(33%)'을 꼽았다.

또 시민 대부분은 이같은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광주시 자체 내의 오염원(74%)'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배출가스 저감 정책(37%)', '교통량 감축 정책(27%)', '생활주변 환경개선(20%)' 등을 선택했다.

2016. 9. 22



"영산강, 바닥까지 썩고있다"

영산강이 4대강 사업 이후 중금속 농도가 최대 342배가 증가하는 등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5일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연구원(NICEM)에 의뢰 분석한 영산강 퇴적토 및 수질조사 결과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09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영산강 퇴적토의 유해중금속 수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 상류 지점에서 채취한 하천퇴적물에 함유된 카드뮴·구리·납·비소 등 중금속 농도는 2009년 대비 1.2~34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천 부영양화 원인이 되는 총인(T-P) 농도는 14배 가까이 치솟았다.

영산강 총인 농도는 승촌보 우안에서 2천691mg/kg·좌안에서 2천494mg/kg·죽산보 좌안에서 1천 887mg/kg 검출되는 등 국립환경과학원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에 따라 '매우 나쁨' 수준인 4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용존산소량도 승촌보·죽산보 수심 0.2m에서 9.2mg/l·9.8mg/l 를 보이다가 수심 4m에 이르면 0.7mg/l·1.8mg/l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강바닥에 가까워질수록 고갈되는 현상을 보였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보 건설 이후 영산강의 성층화 현상 또한 뚜렷하게 나타나며, 강바닥도 무산소층으로 변해 더 이상 생명이 살수 없는 공간이 됐다"면서 "오는 7일에 있을 영산강 유역환경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영산강 퇴적토, 수질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망가진 영산강의 실상을 알리고, 4대강사업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등 환경단체들은 6일 오전 11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2016. 10. 05

한겨레

금남로 누문동 44층 아파트 추진 도시경관 논란

상징인 금남로와 광주천 사이 누문동 일대에 44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북구 누문동 174번지 일원 10만5783㎡(약3만2천평) 규모에 3556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시가 이 일대를 국토부의 ‘기업형 장기임대사업’(뉴스테이사업) 시범사업지구로 추천해 지난해 9월 확정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달 조건부로 통과됐고, 29일 도시경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누문동 개발사업이 도시의 공공성을 포기한 막개발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일대는 주민들이 재개발 조합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용적률이 372%로 적용됐으나, 뉴스테이 사업으로 바뀌면서 용적률이 453%까지 높아져 개발조건이 크게 완화됐다. 이 때문에 최고층이 39층에서 44층으로 변경됐으며 10개동 1726가구였던 것이 13개동 3556가구로 늘었고, 시공사도 선정됐다.

환경단체에선 무엇보다 도시 조망권(스카이라인)이 파괴될 것을 우려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도심에서 무등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이었다. 그런데 누문동 뉴스테이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광주천과 무등산을 함께 볼 수 있는 경관을 아예 없애버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강권 광주시 도시디자인과장은 “시 조례 등에 도심권에 아파트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고도제한’ 규정이 없다.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지 등만을 심의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을 두고 윤장현 광주시장의 도시재생 철학 부재를 탓하는 목소리도 높다.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지낸 시민운동가 출신인 윤 시장이 “사업주의 수익성을 우선하는 개발 계획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윤 시장이 누구와 도심의 고층아파트 개발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하였는지 묻고 싶다. 현재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도심의 고층아파트가 도시 열섬을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철갑 조선대 의대 교수는 “누문동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무등산~아시아문화전당~금남로로 이어지는 ‘바람길’을

도심 온도를 높이는 열섬현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 11. 28

서울경제

명태, 가쓰오부시 등 방사능 물질 검출... 수산물 안전 조치 비상

명태, 송어, 가쓰오부시 등 주로 섭취하는 수산물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이 기준치(1벵크렐)를 초과해 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과자치연구소가 발표한 ‘2016년 국민다소비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에 따르면 송어 18.8%, 명태 12.1%, 가쓰오부시 11.1% 순으로 방사능 물질인 세슘 137이 검출됐다.

특히 일본산 수산가공품 가쓰오부시에서 세슘 137이 정부가 설정한 유통 기준치를 넘긴 1.02Bq(벵크렐)로 검출돼 시중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국가별로 세슘 137의 검출빈도는 러시아산 107개 중 13건(12.2%), 일본산 9개 중 1건(11.1%), 노르웨이산 17개 중 1건(5.9%), 국내산 207개 중 7건(3.4%)으로 나타났다.

세슘 137은 핵실험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인공 원소로 일본 후쿠시마,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며 인체 노출 시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시민단체는 지난 3년간 서울, 부산, 광주 지역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수산물을 구입해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했다.

명태, 고등어, 대구, 다시마, 가쓰오부시 등 식탁에 주로 오르는 수산물 405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23개의 시료에서 세슘 137이 검출됐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회유성 어종인 명태는 후쿠시마 원전의 영향을 받는 해역에서 어획된 것으로 보이며 국내산 송어에서 검출된 방사능에 대해선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 선택 시 원산지 및 성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 12. 06



광주 '초고층 아파트숲' 문제 어떻게?
광주환경운동연합, 19일 정책토론 개최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대안' 주제

아파트숲으로 점령되고 있는 광주 도시계획을 놓고 실태와 대안을 논해보는 토론회가 열린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시의회는 19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빈번한 상황에서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과 세부지침, 조례 등 시스템 구축 제안을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을 좌장으로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을 주제로, 윤희철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이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도시계획, 주택·주거, 교통,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광주시 담당공무원이 지정토론을 조동범 전남대학교수의 사회로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시 주택보급률은 2014년 기준 104%를 넘었고 전체 주택 중 아파트 비중은 2015년 기준 77.4%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누문동과 운암3단지에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초고층 아파트 △일조권 침해 △교통 혼잡 △기형적 도시경관 초래 △도심 열섬화 심화 △도시공간 소통 단절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기형적인 도시경관

공공의 이익을 빼앗아 시민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2016. 12. 15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광주·전남 246명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가 시작된 지난 2011년부터 올해 말까지 접수된 광주·전남 지역 피해자 246명 중 7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광주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까지 조사 접수된 광주·전남 피해자 수는 246명이었고 이 중 71명이 사망했다. 광주는 피해자 138명 중 36명이 사망했고 전남에서는 108명 가운데 35명이 사망했다.

특히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광주는 79%에 달하는 109명이, 전남에서는 75.9%에 달하는 82명이 올해 접수되는 등 살균제 피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올 한해만 전국적으로 4천12건의 피해가 신고됐고 이 가운데 86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접수가 시작된 지난 2011년부터 누적된 신고 건수는 전국적으로 5천294건, 사망자는 1천 98명에 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 36명에 이어 순천시가 26명(사망 6명)으로 피해신고가 가장 많았고 여수시 15명(사망 7명), 광양시 14명(사망 3명) 순이다.

이들 환경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 전체 사용자가 약 1천만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잠재적 피해자가 29만~227만명으로 보인다"며 "현재 접수된 신고도 빙산의 일각이다"고 말했다.

또 "전인구 대상 역학조사와 집단시설 전수조사 등을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에서 발의·검토중인 특별법에 피해자를 찾는 특별기구의 인력 및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 12. 21

全南日報

광주·전남 환경단체 "영산강 친수지구 확대 반대"

· 전남지역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영산강 친수지구(친수구역) 확대에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녹색연합,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영산강에 친수지구를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안을 포함한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라며 "각 지자체에서 16건의 지구지정 조정이 건의됐고 이 중 9개의 지구를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전체 또는 일부 변경한다고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친수지구는 하천과 조화가 되도록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구역이다.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10월 영산강은 9개의 보전지구가 친수지구(좌안 6450m·우안 4200m)로 지정됐다.

환경단체는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안의 관리방향을 보면 친수지구에 야외극장과 휴게음식점 등 친수와 무관한 시설을 과잉 허용하고 있다. 하천 수질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2016. 12. 22

환경연합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선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은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 전국 1위' 등 올해 광주와 전남 지역 10대 환경뉴스를 25일 선정·발표했다.

환경연합은 광주 하남산단 내 세방산업이 지난 6년 동안 1500여t의 트리클로로에틸렌(TCE·1군 발암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했다며 이는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이후 영산강의 퇴적토 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점도 10대 뉴스로 꼽혔다. 환경연합은 영산강 저층에서는 무산소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토양 정화와 복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에서 고층 아파트 건설이 무분별하게 추진돼 교통난, 녹지 공간 축소, 일조권 침해, 기형적 도시 경관 초래, 도심 열섬화 심화, 도시공간 소통 단절 등의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연합은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도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초기 대응 실패로 피해가 커진 점을 지적하면서 사육 환경 개선, 차단 방역 등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광양 와우 택지지구 성토재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니켈) 검출, 영광핵발전소의 일방적인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건설 계획, 가슴기 살균제 피해 지역민 246명 중 71명 사망 등도 10대 뉴스에 이름을 올렸다.

단체는 환경당국의 불감증으로 지역 환경과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올 한 해를 "환경적으로 암울했다"고 평했다.

전라선 옛철길 공원화 사업 첫삽, 광주 물순환 선도 도시 선정, 유전자변형농산물 쌀 상용화 반대 전남도민행동 출범 등은 시민 사회의 활동의 성과로 꼽혔다.

2016. 12. 25

세계일보

광주 도심 초고층 아파트 조망권 침해 논란 누문동에 44층 높이 건설 추진 “광주천·무등산 조망 방해” 지적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이 한눈에 보이는 임동과 누문동 일대에 40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추진돼 조망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광주시와 광주 북구에 따르면 북구 임동구역주택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임동정비사업조합)은 임동 76번지 일대 8만6288㎡에 아파트 12동과 주상복합상가 3동, 오피스텔 1동을 건립하는 임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적률은 372%이며, 아파트 규모는 2245가구에 달한다.

임동정비사업조합은 도시계획과 건축계획 심의 등 심의 절차를 모두 마치고 사업시행 인가 제출을 앞두고 있다. 임동구역 옆 누문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조합(누문지역조합)은 북구 누문동 174번지 10만5783㎡에 3556가구가 들어서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누문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난해 9월 국토부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됐다.

뉴스테이 시범지구로 지정되면서 당초 용적률이 372%에서 453%로 높아졌다.

용적률 변경으로 아파트 최고층이 당초 39층에서 44층으로 올라갔다. 규모도 10개동 1762가구에서 13개동 3556가구로 늘어났다.

누문도시환경정비사업은 최근 열린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경관위원회에서 아파트 층수에 제동이 걸렸다. 도시계획위는 지난 10월 심의에서 ‘중심부 동은 높게하고 남측과 북측은 낮게 해 무등산 스카이 라인을 형성하고, 용적률도 낮추라’고 조건부 의결을 했다.

누문지역조합은 이 같은 도시계획위 심의를 반영해 지난 10월 개최된 도시경관위에 ‘중앙부는 44층으로 그대로 두지만 금남로 쪽은 27층으로, 광주천변 쪽은 41층으로 층수를 낮추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냈다. 도시경관위는 이 안을 놓고 심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2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는 임동과 누문동 두 지역에 예정대로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무등산 조망권이 파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구도심인 임동과 누문동에 40층짜리 아파트가 조성될 경우 광주천과 무등산을 아예 바라볼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2016. 12. 28



환경연합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선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은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 전국 1위 등 올해 광주와 전남 지역 10대 환경뉴스를 25일 선정·발표했다.

환경연합은 광주 하남산단 내 세방산업이 지난 6년 동안 1500여t의 트리클로로에틸렌(TCE·1군 발암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했다며 이는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이후 영산강의 퇴적토 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점도 10대 뉴스로 꼽혔다. 환경연합은 영산강 저층에서는 무산소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토양 정화와 복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에서 고층 아파트 건설이 무분별하게 추진돼 교통난, 녹지 공간 축소, 일조권 침해, 기형적 도시 경관 초래, 도심 열섬화 심화, 도시공간 소통 단절 등의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연합은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도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초기 대응 실패로 피해가 커진 점을 지적하면서 사육 환경 개선, 차단 방역 등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광양 와우 택지지구 성토재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니켈) 검출, 영광핵발전소의 일방적인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건설 계획, 가슴기 살균제 피해 지역민 246명 중 71명 사망 등도 10대 뉴스에 이름을 올렸다.

단체는 환경당국의 불감증으로 지역 환경과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올 한 해를 "환경적으로 암울했다"고 평했다.

이밖에 전라선 옛철길 공원화 사업 첫삽, 광주 물순환 선도 도시 선정, 유전자변형농산물 쌀 상용화 반대 전남도민행동 출범 등은 시민 사회의 활동의 성과로 꼽혔다.

2016. 12. 25
신대회 기자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 생활수칙】

1. **자연**을 사랑한다
2. **검소**하게 생활한다
3. **1회용품**을 안쓴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5. **물**을 아껴쓴다
6. **우리지역 농산물**을 애용한다
7. **쓰레기**를 줄인다
8. **에너지**를 절약한다
9. **남김없이** 먹는다
10. **나**부터 실천한다